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PRIL 1985 NO. 193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아니라
위의 전경이
룸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반사율이 높은 열선반
지역의 보온을 위하여 개
다.

창(특히 공기조절 설비

창

는 곳
있는 곳

화를 창출하는



SS INDUSTRY CO.

THE ULTIMATE IN INTERIOR & EXTERIOR COATINGS Fiber Tex-Cote Glass®

하이바 텍스코트글래스 (FIBER TEX-COTE GLASS) 제품의 특징

- (1) 고상하고 미려한 색상을 장기간 유지한다.
- (2) 내후성 및 내구력이 뛰어나다.
- (3) 흡음, 단열 및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 (4) 구조력과 성형력이 강력하다.
- (5) 도막 자체가 통기성이 있으므로 결로현상이 방지된다.
- (6) 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 (7) 완전한 내화성으로서 방화벽의 역할은 물론 무공해성 제품이다.
- (8) 곰팡이나 부패현상이 방지되므로 건축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
- (9) 질감이 다양하며 무광이다.
- (10) 건조후 도막 신축성이 우수하다.
- (11) 시공절차가 간편하다.

레인스토퍼 (RAINSTOPPER) 의 특징

- (1) 벽면의 수분침투 방지.
- (2) 건조후에 표면이 투명하고 일록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함.
- (3) 시공표면의 산화, 백화 및 풍화현상을 방지.
- (4) 오물접착 및 모세관 침투현상 방지.
- (5) 페인트 도장면에 시공시 페인트의 수명을 연장.
- (6) 목재부분의 수분 침투에 의한 손상 방지.
- (7) 시공에 기후조건이 없으며 산·알칼리 및 해수(海水)에 강하므로 결국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줌.
- (8) 표면내부에 침투하므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지 않음.
- (9) 내후성이 우수하며 자외선에 강함.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요 생산제품 안내

●텍스-코트 600®

강한 접착력과 유연성을 지닌 속수성제품. 합판이나 시멘트판 및 널시스템용으로 사용.

●레인스토퍼™ 스테인

페인트 도장과 다른, 위의 레인. 파-크리어 제품에 침투성 색이 된 제품. 석공(MASONRY), 콘크리트, 트볼릭, 건축콘크리트, 벽돌 시스타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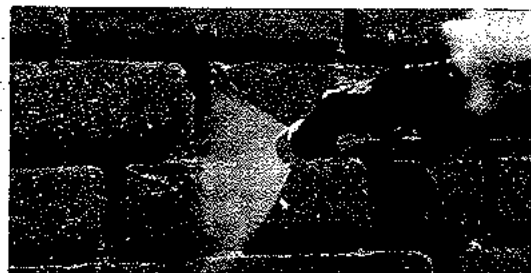
●텍스 타이트

석공표면, 합판(WOOD), 수영장 OOL), 콘크리트 볼릭, 지하실 사용 강력방수액

●TCA CONCRETE FLOOR ST. FLOOR, WALKWAYS, PATIO DECK 등 내마모성 침투성 바닥재

●BLACK TOPPER —

아스팔트 주차장용 상도코팅제



株式会社 韓國 텍스코트

(美国 T. C. A. 社 技術提携)

事務所: 서울特別市永登浦區汝矣島洞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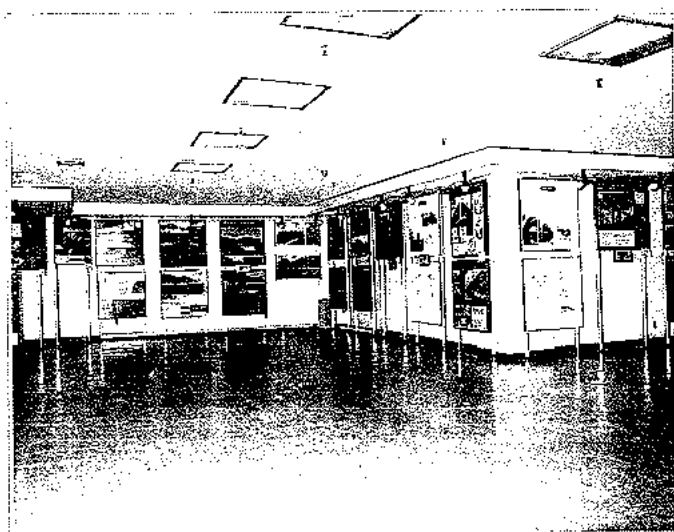
(韓國機械工業振興會館5層)

電話: 783-8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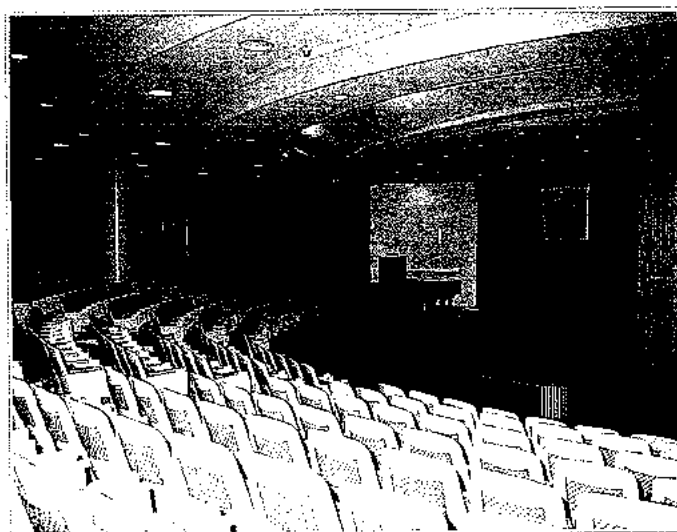
私書函: 汝矣島 P. O. BOX 302

TELEX: K22064 KOTONCO

建築士會館利用案内



講堂



講堂

講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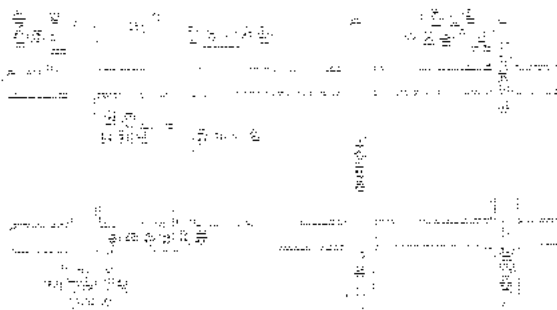
- ・大會議、講演會、L.D.L、建築式、講習會等
- ・劇場式 座席 483席、冷暖房施設
- ・複寫室、無線電照明施設

展示場

- ・建築作品、建築資料、其他 藝術作品 展示
- ・第1 室：135㎡
- ・第2 室：140㎡

圖書室

- ・國內外 建築分野 關係圖書 多數 具備
- ・閱覽、部分 複寫 可 便宜提供



서울特別市 江南區 瑞草洞 山61의3

大韓建築士協會

電話 581-5711, 5712, 5713, 5714

天井革命

JEIL LOUVER SYSTEM

세계의 천정제
수입업 제1박마!

당신의 천정 하계
판공실로
안내합니다.

- 产品特点
- 100% 알루미늄 소재로
 - 인공 조명, 자연광 조명
 - 방음, 단열, 방화, 방충
 - 방습, 방염, 방독
 - 방진, 방열, 방수
 - 방화, 방염, 방독
 - 방진, 방열, 방수
 - 방화, 방염, 방독
 - 방진, 방열, 방수

제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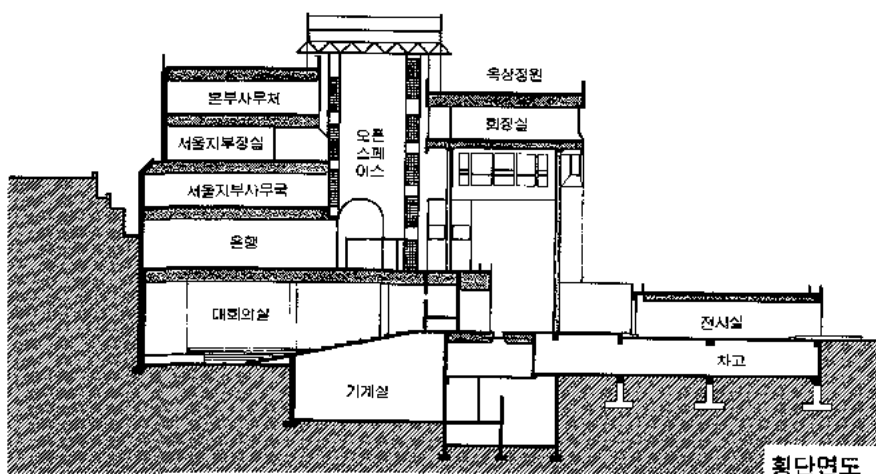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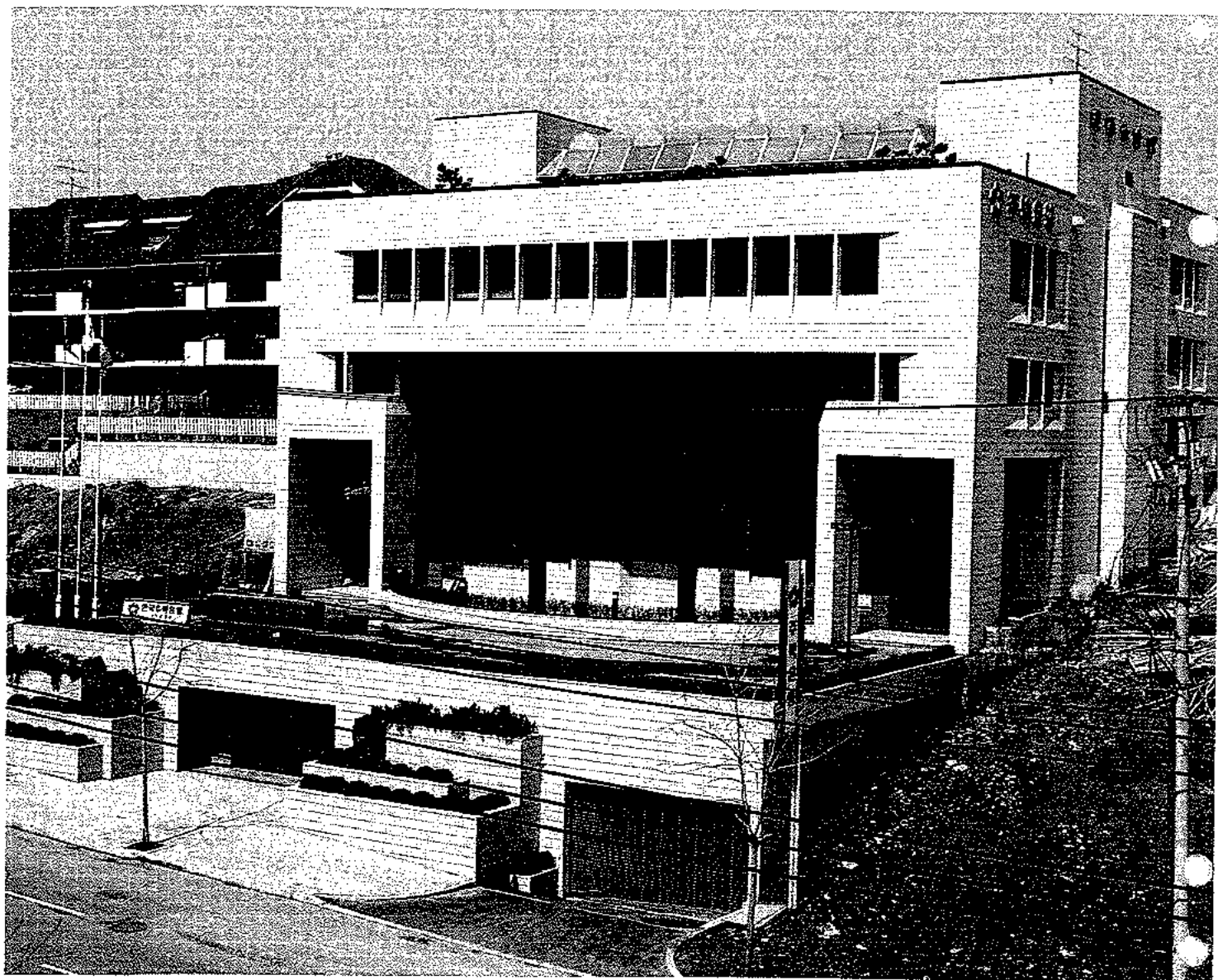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송광섭 / 환건축연구소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산61-3
- 대지면적 : 1,885㎡
- 건축면적 : 4,418.43㎡
- 건축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 건물규모 : 지하 2층, 지상 4층, 옥탑층
- 주차능력 : 옥내 20대, 옥외 20대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3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지부	





회관주요시설

강 당 • 극장식 좌석 4백60석, 냉난방 시설

- 영상실 및 부대조명시설
- 대회의, 강연회, 세미나, 결혼식, 연극,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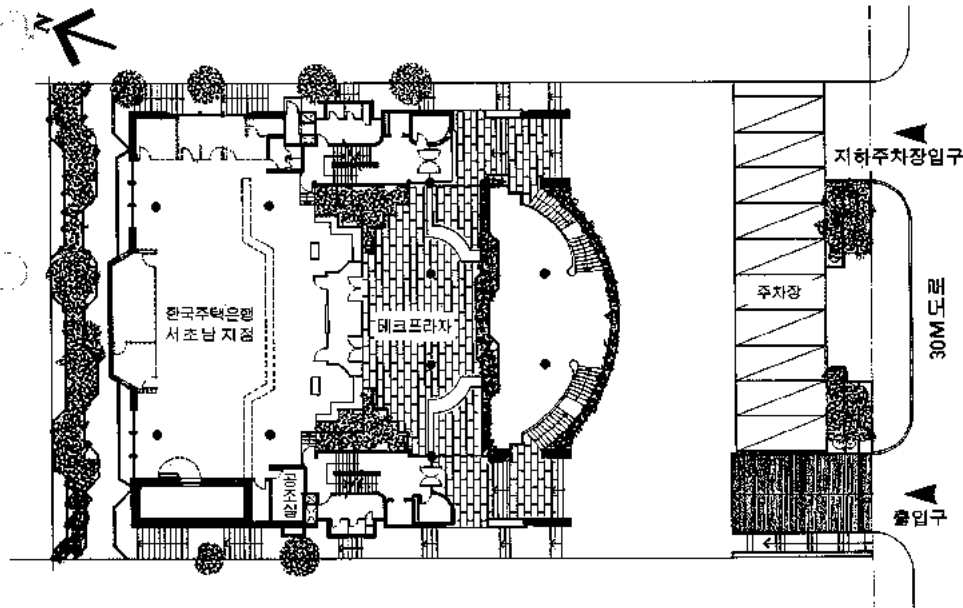
전시장 • 1실 155제곱미터, 2실 140제곱미터

- 건축작품 및 건축자재, 기타 예술 작품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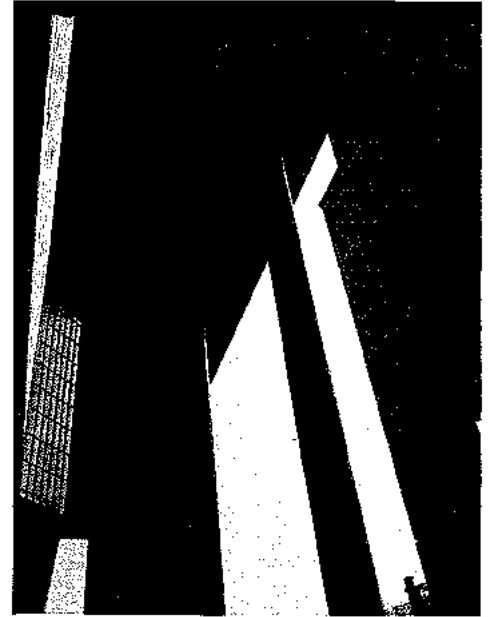
도서실 • 국내외 건축분야 관계도서 다수구비

- 열람, 부분 복사등 편의제공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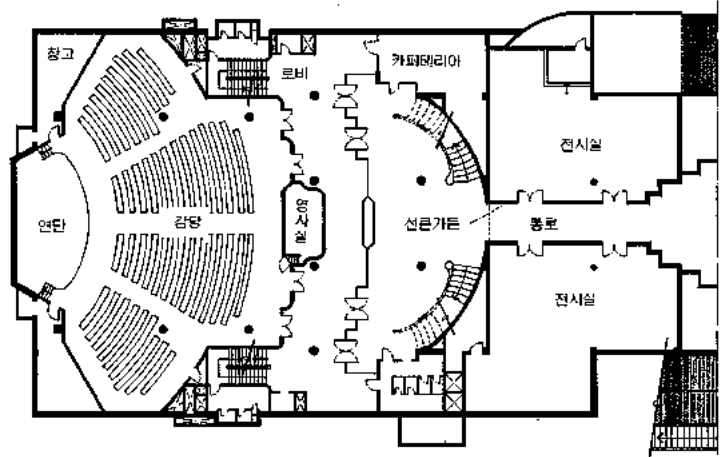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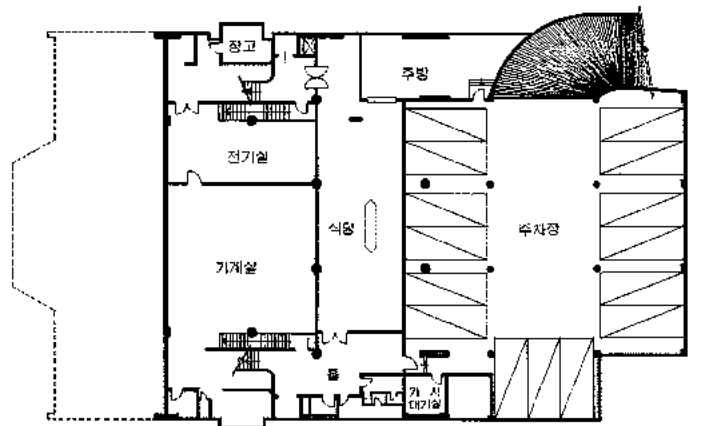


건축 계획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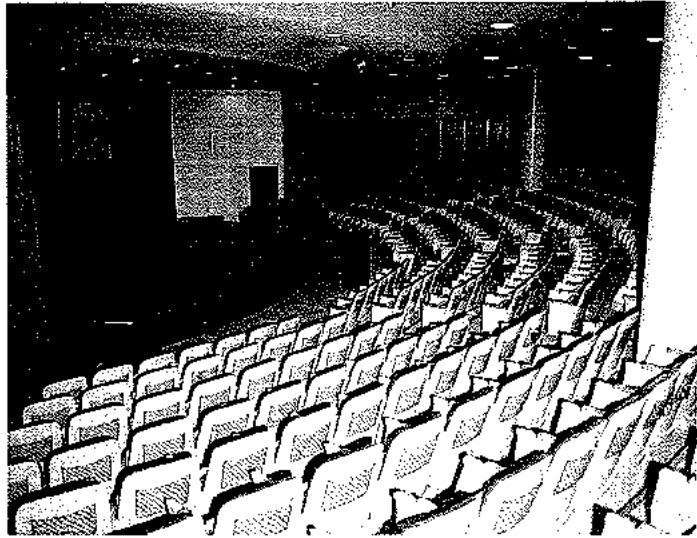
1. 전면도로 폭 30미터에 접한 대지에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약 20미터 후퇴한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여 본 건물 지상 4층이 위치함.
2. 지하 1층을 전면도로와 연결하는 통로를 설치하고 그 양측에 전시실을 두어 관객의 전시공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다.
3. 지하 1층 내부에 선문가든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대강당으로 동선이 연결되게 처리 하였다.
4.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 냉난방 시설을 갖춘 오디오리움의 평면이 460석의 계단식으로 처리되어 강연회, 세미나, 음악회 등 각종 용도의 집회 공간을 마련 하였다.
5. 지상 4층 건물 부분은 전면과 후면으로 구분하여 중간부분에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 각층 바닥은 스킵 플로어의 다양한 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6. 1층 정면은 건물로 통하는 양측 2개의 출입구를 두고 중간 부분은 데크 플라자로 처리하여 개방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7. 건물 중앙 부분인 데크 플라자는 상부를 오픈하여 자연 채광을 건물 상부로 부터 각층 사무공간 깊숙히 인입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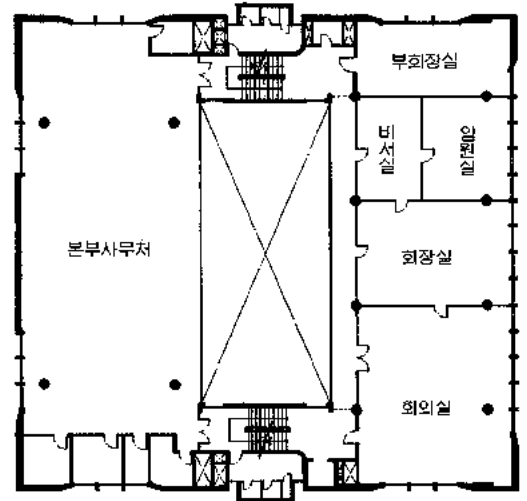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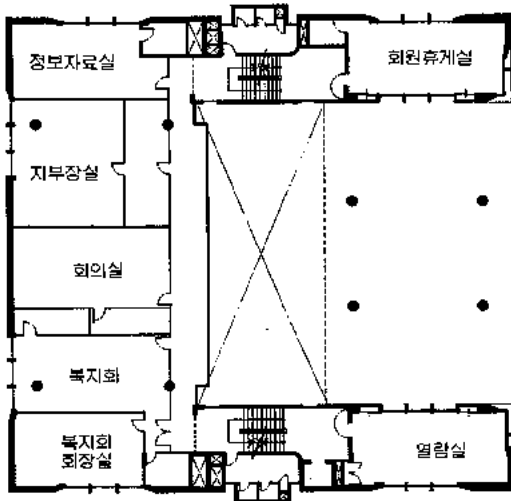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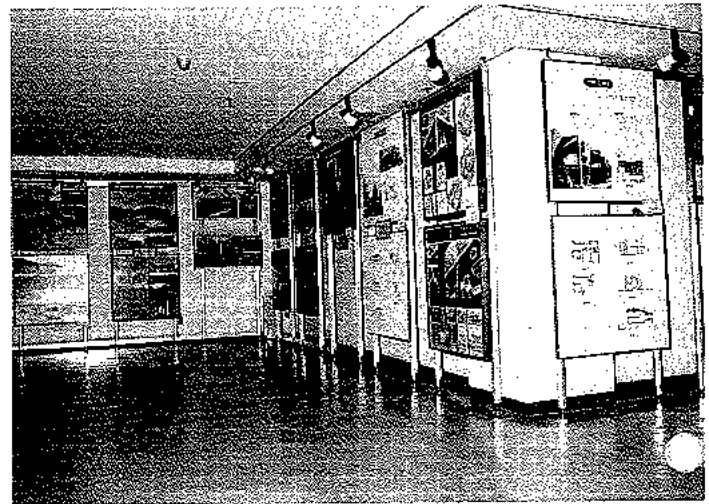
대회의실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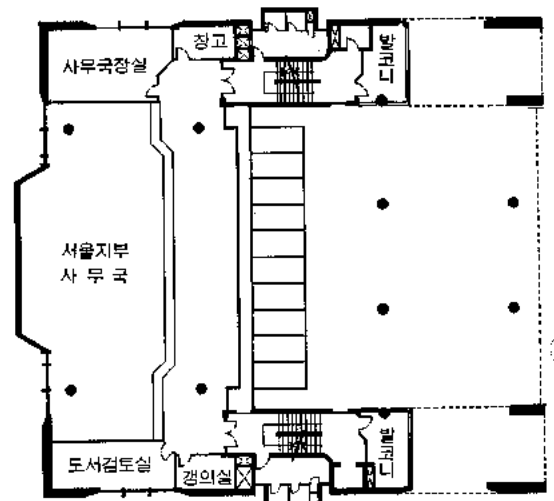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전시실



1층 현관입구



2층 평면도

THE UNIVERSITY OF CHICAGO

$\frac{d}{dt} \left(\frac{\partial L}{\partial \dot{x}} \right) = \frac{\partial L}{\partial x}$

7 11 50

02-24-2014

Figure 6

[illegible][illegibl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80 2681 2682 2683 2684 2685 2686 2687 2688 2689 2690 2691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 2701 2702 2703 2704 2705 2706 2707 2708 2709 2710 2711 2712 2713 2714 2715 2716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2736 2737 2738 2739 2740 2741 2742 2743 2744 2745 2746 2747 2748 2749 2750 2751 2752 2753 2754 2755 2756 2757 2758 2759 2760 2761 2762 2763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 2773 2774 2775 2776 2777 2778 2779 2780 2781 2782 2783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2802 2803 2804 2805 2806 2807 2808 2809 2810 2811 2812 2813 2814 2815 2816 2817 2818 2819 2820 2821 2822 2823 2824 2825 2826 2827 2828

附 註 書 目 表

840051825-100012 0 5 3000000000

1. 2. 3.

100-1-2009-01

REFERENCES

[illegible]

21. 22. 46.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athbf{w}_i}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athbf{w}_i}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athbf{w}_i} \frac{\partial \mathbf{w}_i}{\partial \mathbf{w}_i}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athbf{w}_i} + \frac{\partial \mathcal{L}}{\partial \mathbf{w}_i} \frac{\partial \mathbf{w}_i}{\partial \mathbf{w}_i}$$

2015年12月29日

[illegible]

全 局 型

[illegible]

729 960 421 129

Am. Chem. Soc. 1991, 113, 10233-10235.

1990 1991 1992

2025 2025 2025

TRANSFORMING THE 21ST CENTURY

$$\begin{array}{ccc} \begin{array}{c} 1 \\ 0 \\ 1 \\ 1 \\ 1 \end{array} & \begin{array}{c} 1 \\ 0 \\ 1 \\ 1 \\ 1 \end{array} & \begin{array}{c} 1540 \\ 1540 \\ 1540 \\ 1540 \\ 1540 \end{array} \end{array}$$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825 100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1 12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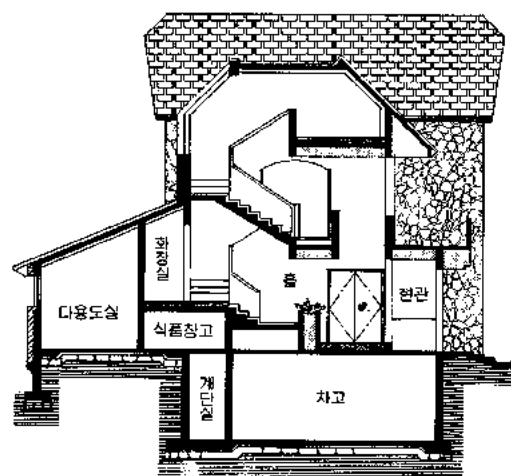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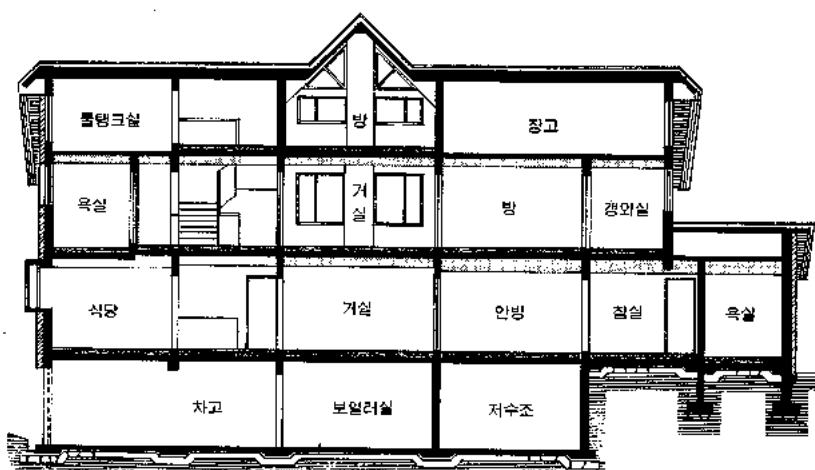
10-25-92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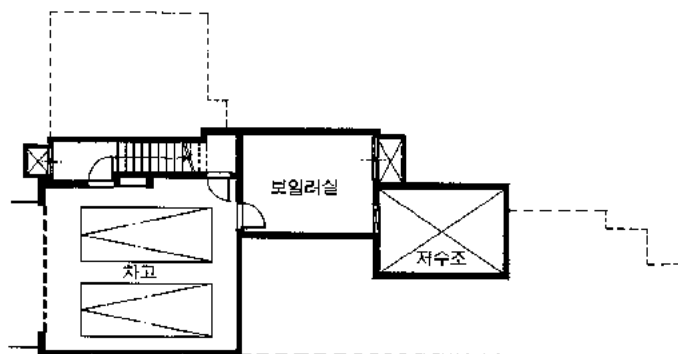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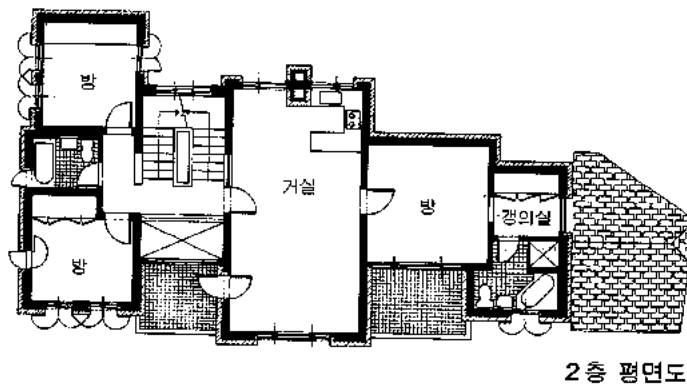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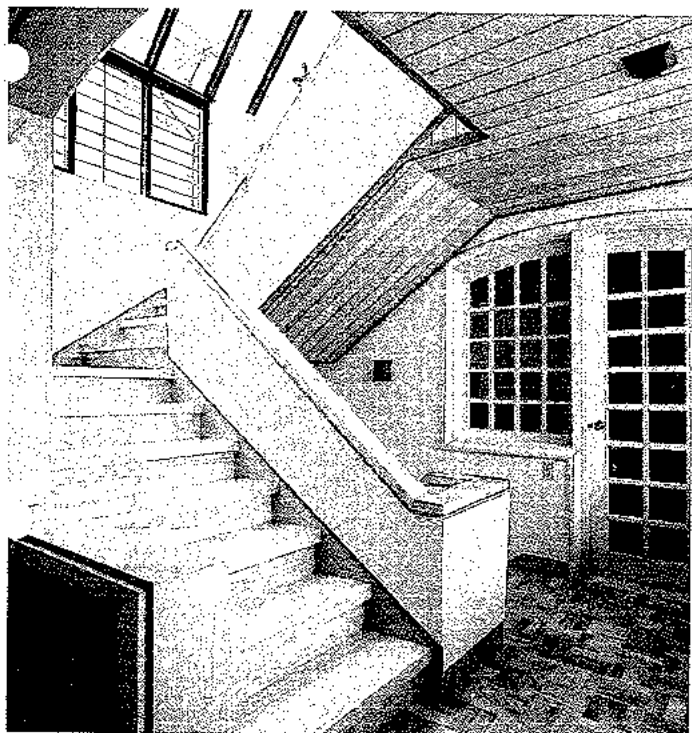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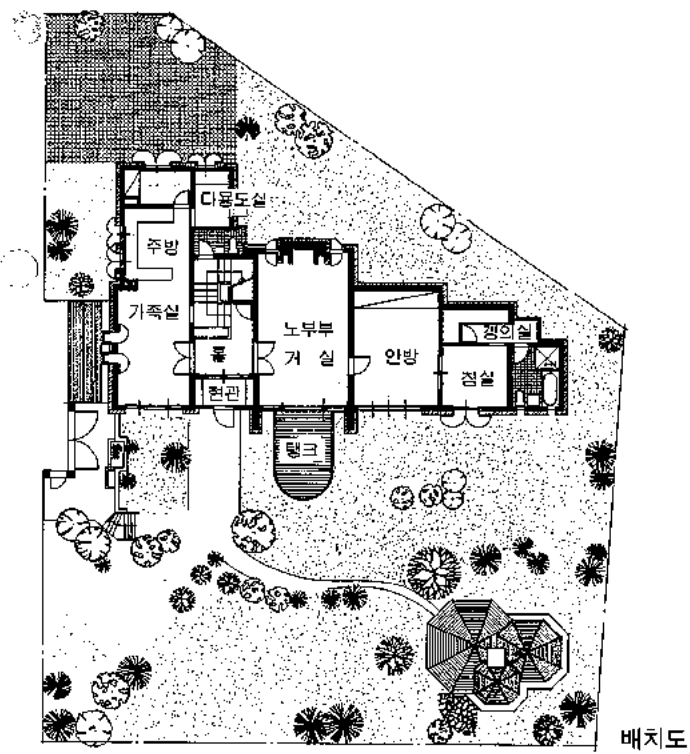
평창동 L씨댁

PYEONGCHANG-DONG L'S RESIDENCE

김기석 / 아람건축연구소

- 대지위치 : 서울 종로구 평창동
- 지 역 : 주거지역
- 지 구 : 용치지구
- 용 적 율 : 37.55%
- 건 폐 율 : 19.67%
- 대지면적 : 790.5m²
- 연 면 적 : 319.29m²
- 건축면적 : 155.5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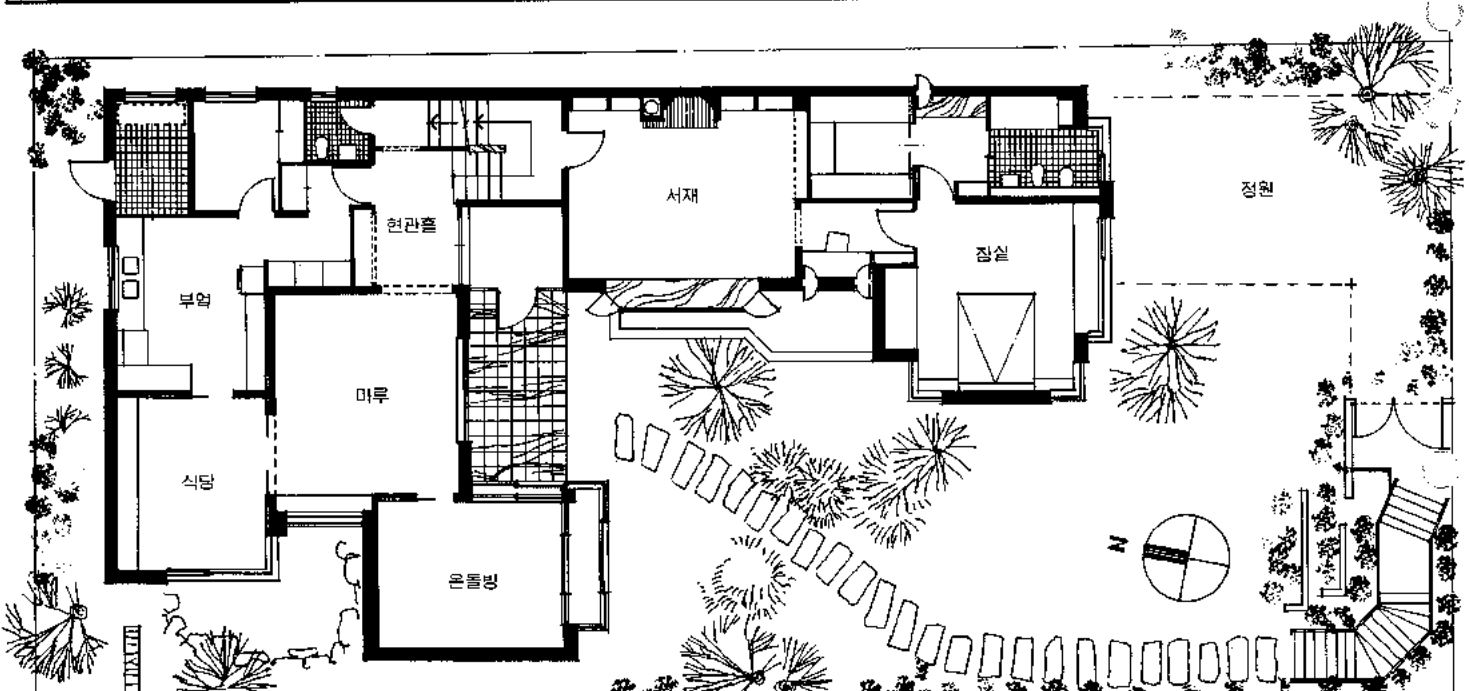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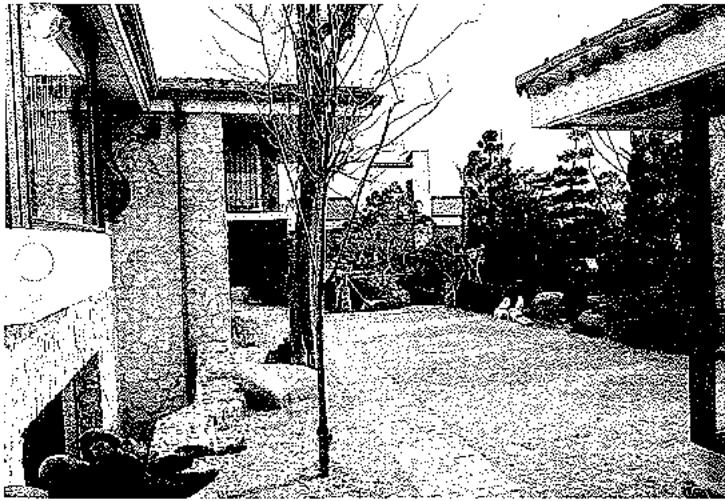
방배동 B씨댁

BANGBAE-DONG B'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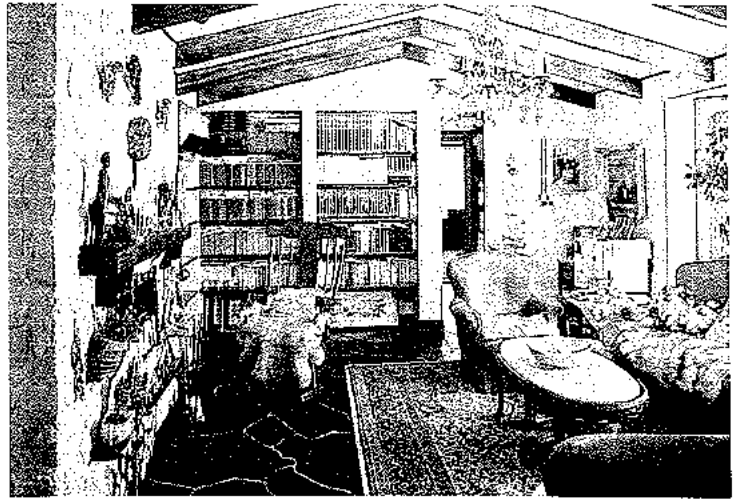
황일인 / 종합환경연구소 일 건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방배동
- 대지면적 : 406㎡
- 구 조 : 조적조
- 건축재료 : 외벽 / 백색 자연석 쌓기
지붕 : 오지기와
내벽 : 울터워 본타일
혹은 벽지마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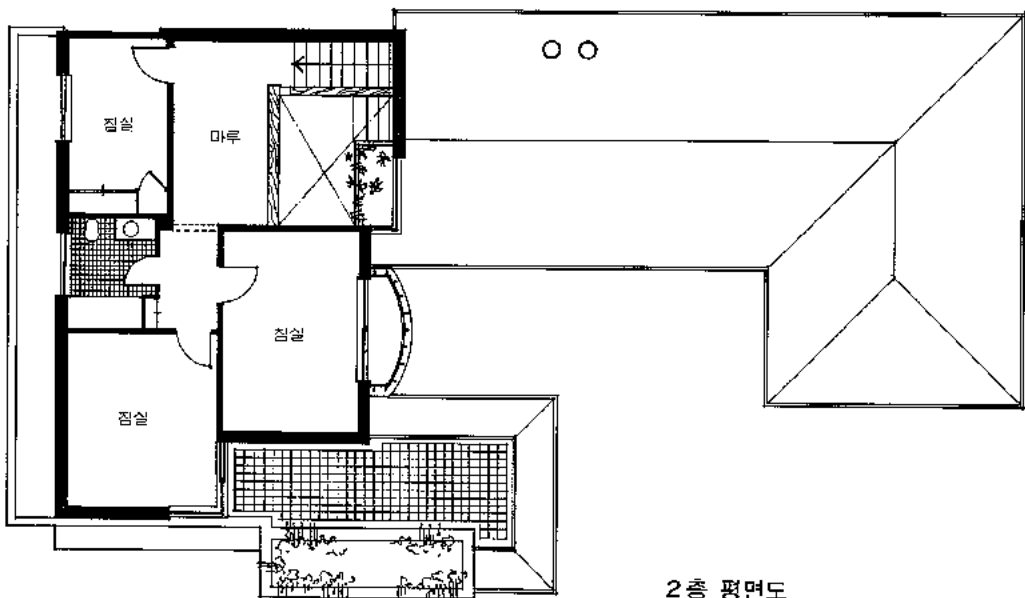


②



③

- ① 정 원
- ② 서 재
- ③ 2층에서본 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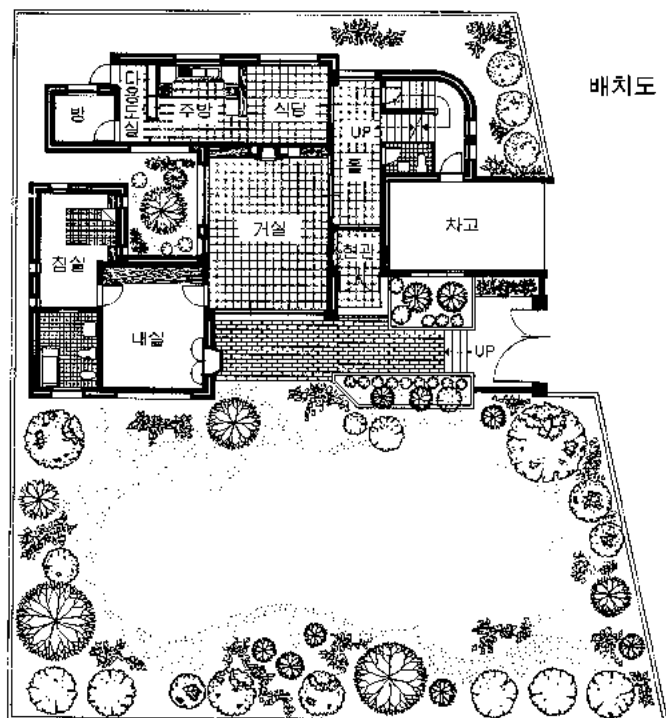


방배동 김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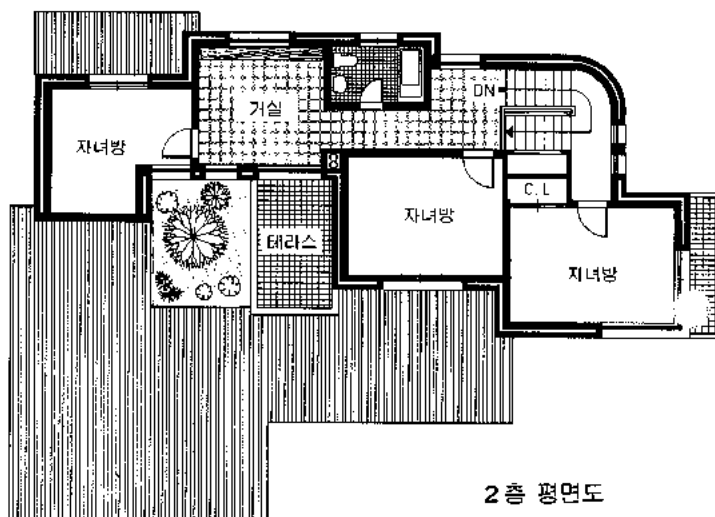
BANGBAE-DONG K'S RESIDENCE

김영수 / 김영수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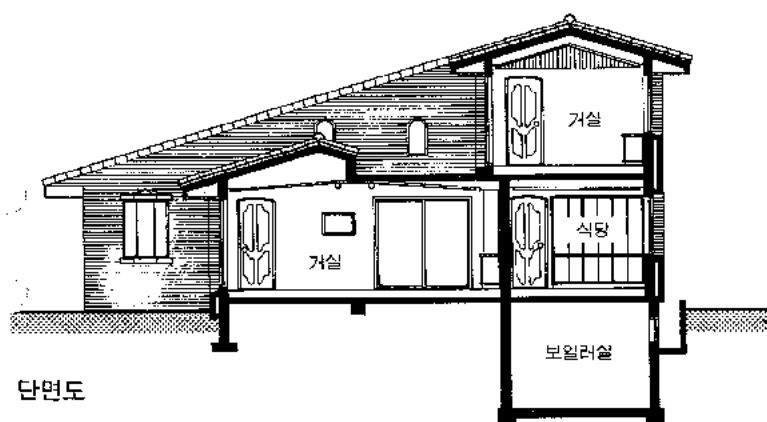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방배동
- 대지면적 : 801.15㎡
- 건축면적 : 181.04㎡
- 연면적 : 318.10㎡
- 구조 : 조적조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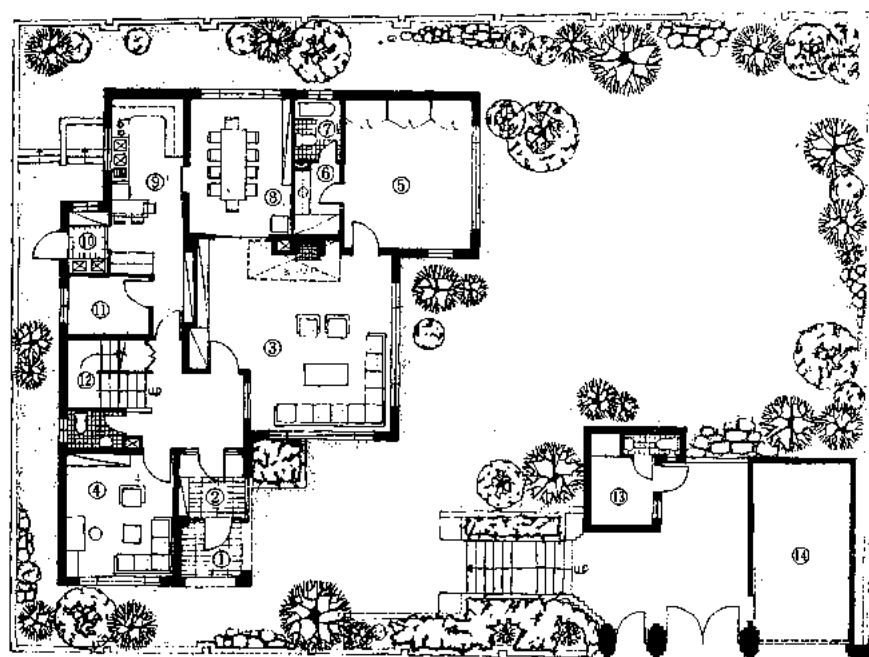


한남동 K씨택

HANNAM-DONG K'S RESI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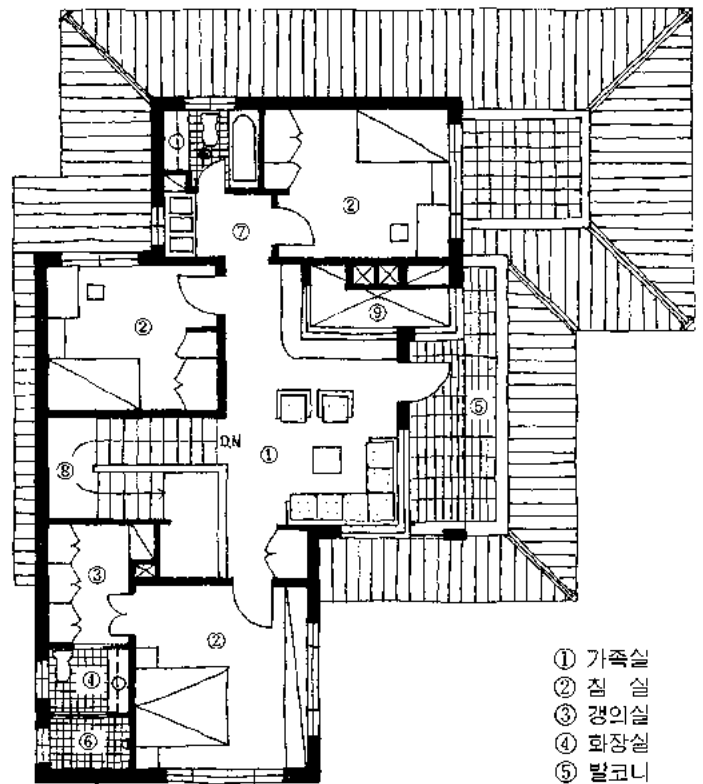
박재환 / 도성건축연구소

- 대지위치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대지면적 : 641㎡
- 건축면적 : 174.24㎡
- 연면적 : 325.37㎡
- 구조 : 조적조



- ① 포 치
- ② 현 관 실
- ③ 거 실
- ④ 응접실
- ⑤ 안 방
- ⑥ 경의실
- ⑦ 화장실
- ⑧ 식 당
- ⑨ 주 방
- ⑩ 세탁실
- ⑪ 가정부실
- ⑫ 계단실
- ⑬ 관리실
- ⑭ 차 고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① 가족실
- ② 침실
- ③ 강의실
- ④ 화장실
- ⑤ 발코니
- ⑥ 샤워실
- ⑦ 간이주방
- ⑧ 계단실
- ⑨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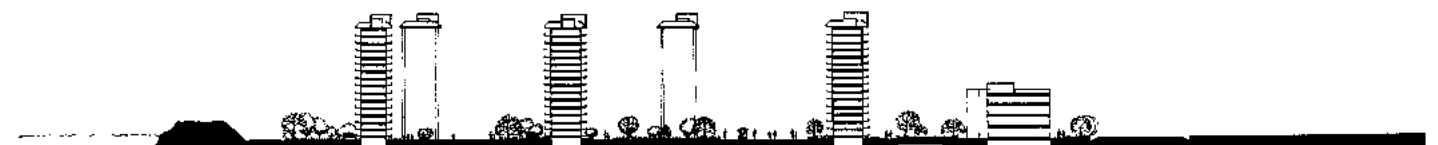
2층 거실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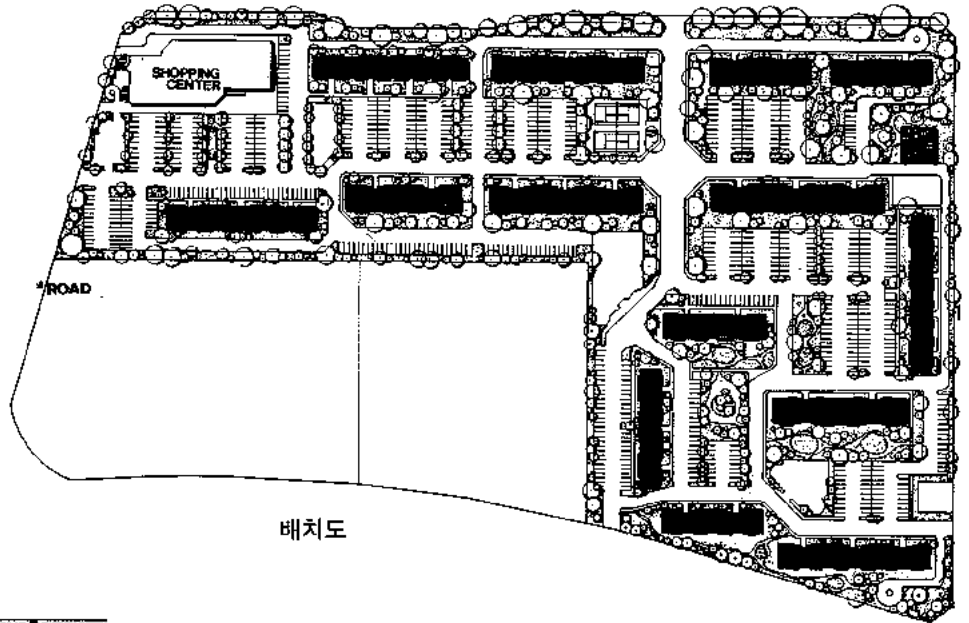
개포우성아파트타운

WOOSUNG APARTMENT TOWN IN GAEPO-DONG

윤태웅 / (주)동인건축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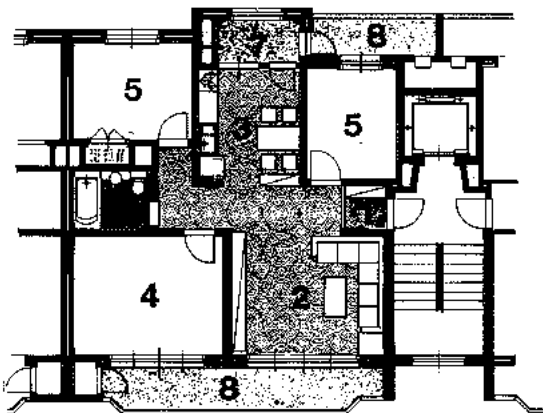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강남구 대치동 772번지
- 대지면적 : 88,905m²
- 건축면적 : 13,645m²
- 바닥면적 : 174,581m²
- 용적률 : 179.9%
- 승차인원 : 17.9%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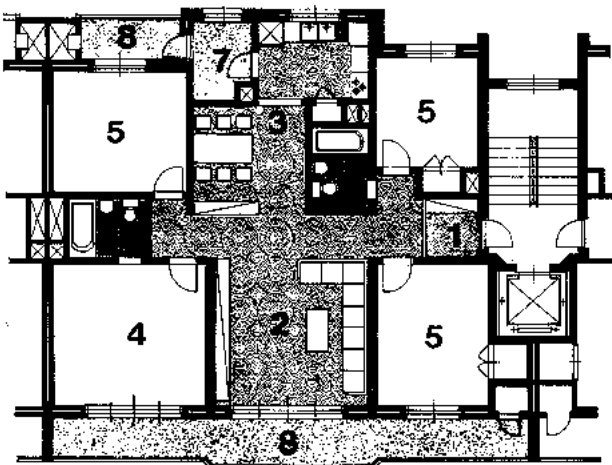
배치도

31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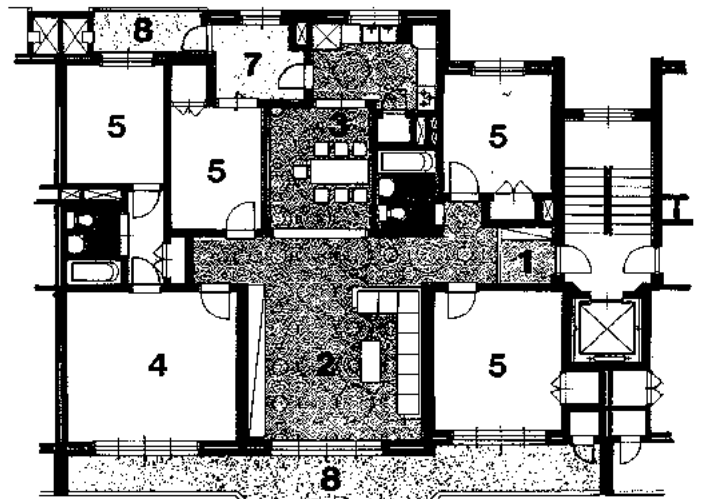


1. 현 관
2. 거 실
3. 주방및식당
4. 안 방
5. 침 실
6. 욕 실
7. 다용도실
8. 발코니

45평형



5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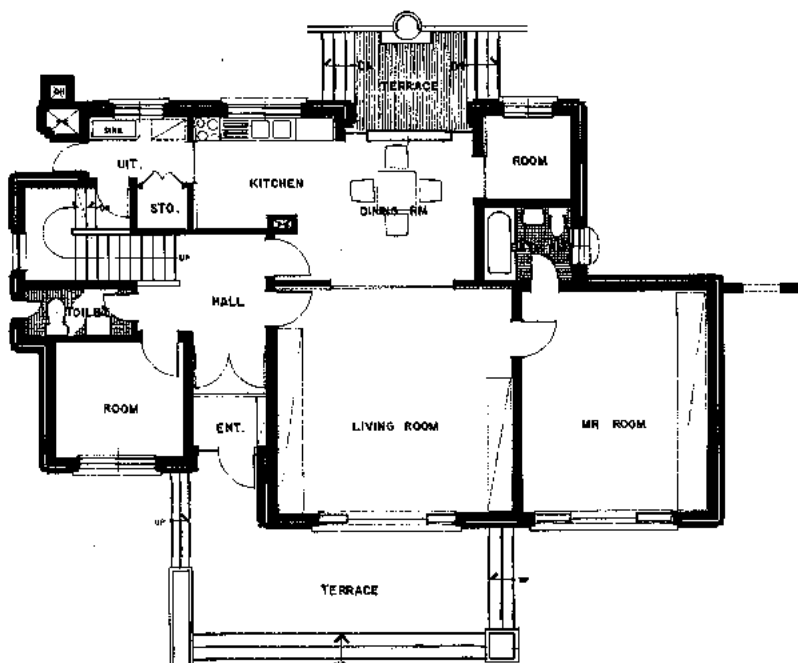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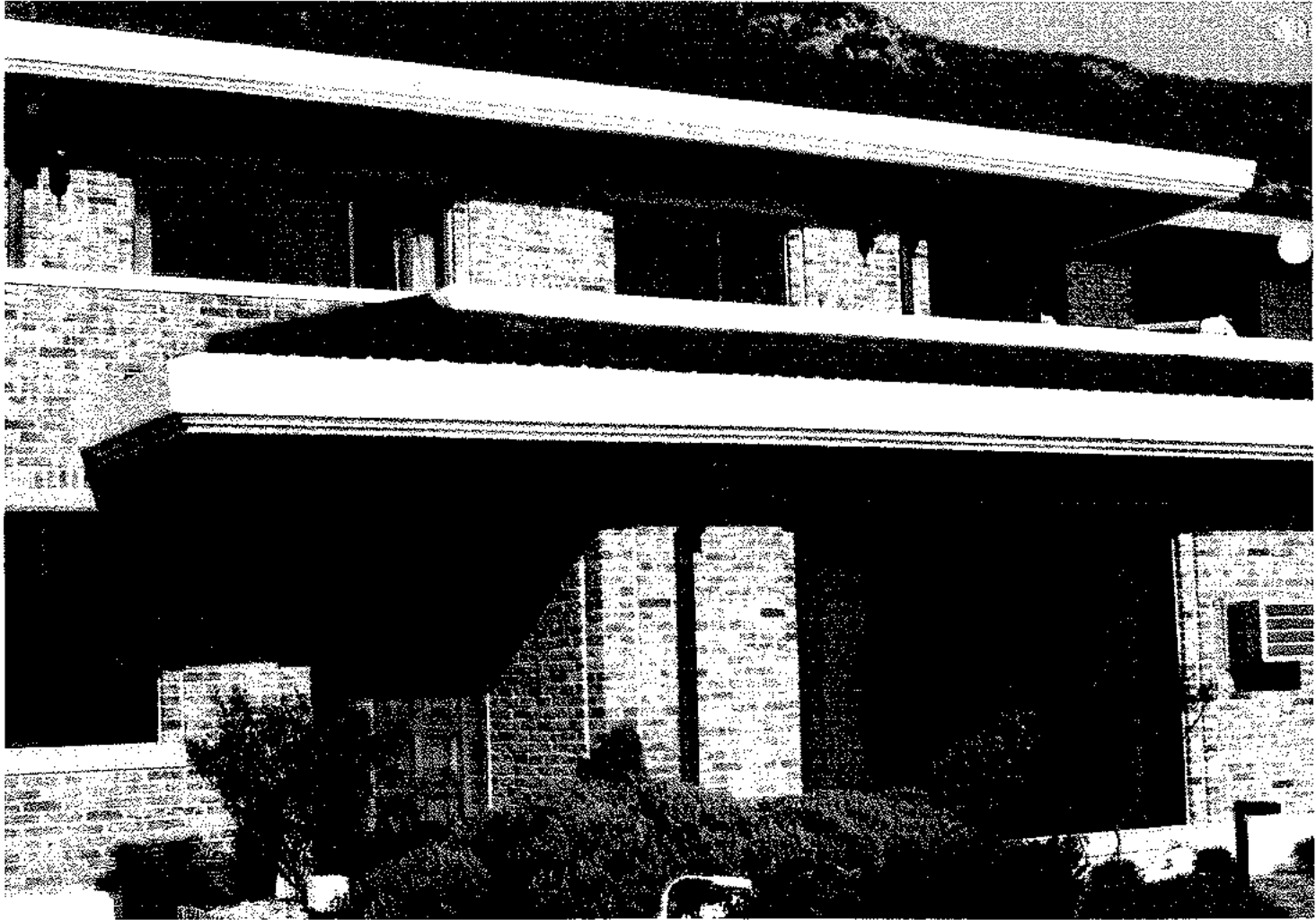


인천간석동 Y씨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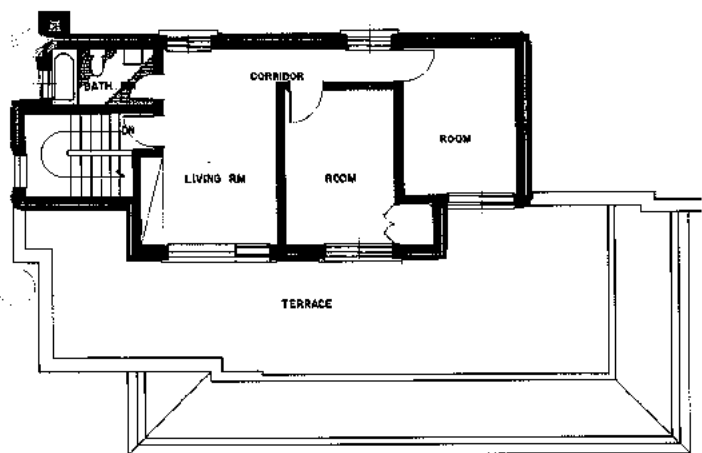
KANSUK-DONG Y'S RESIDENCE(INCHON)

임동윤 / 아진건축연구소

- 대지위치 : 인천 남구 간석동 85-11
- 대지면적 : 526.25㎡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 243.965㎡
- 건폐율 : 30%
- 용적률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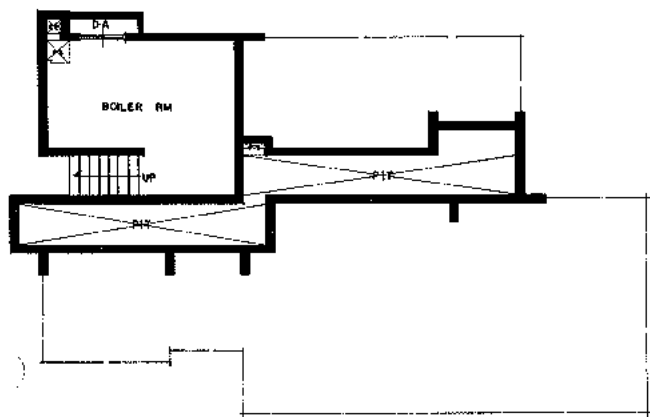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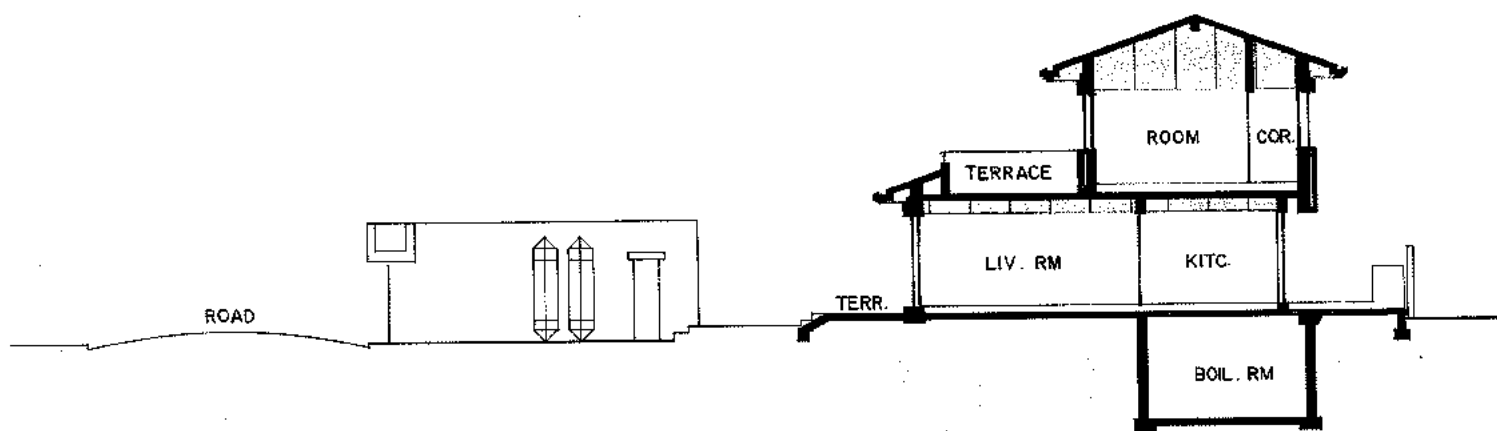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거실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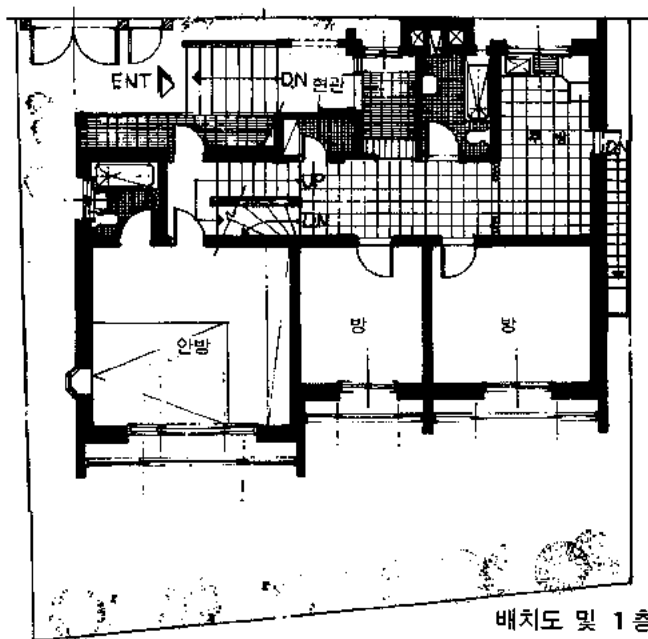
주단면도

응암동 L씨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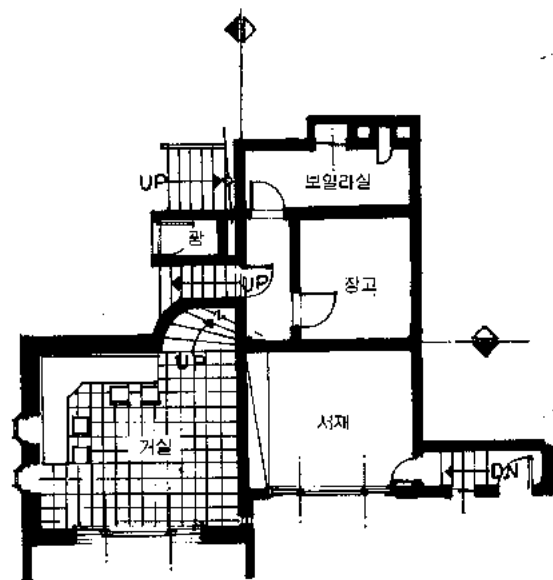
EUNGAM-DONG L'S RESIDENCE

박동희 / 동남아건축기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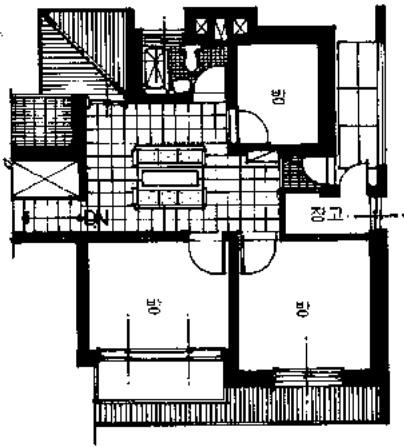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 대지면적 : 225㎡
- 건축면적 : 104.01㎡
- 연면적 : 216.40㎡
- 규모 : 지하 1층 · 지상 2층
- 구조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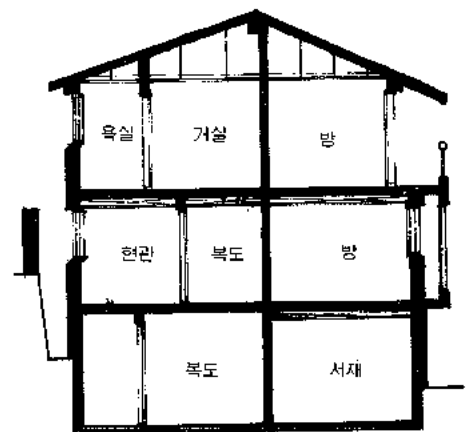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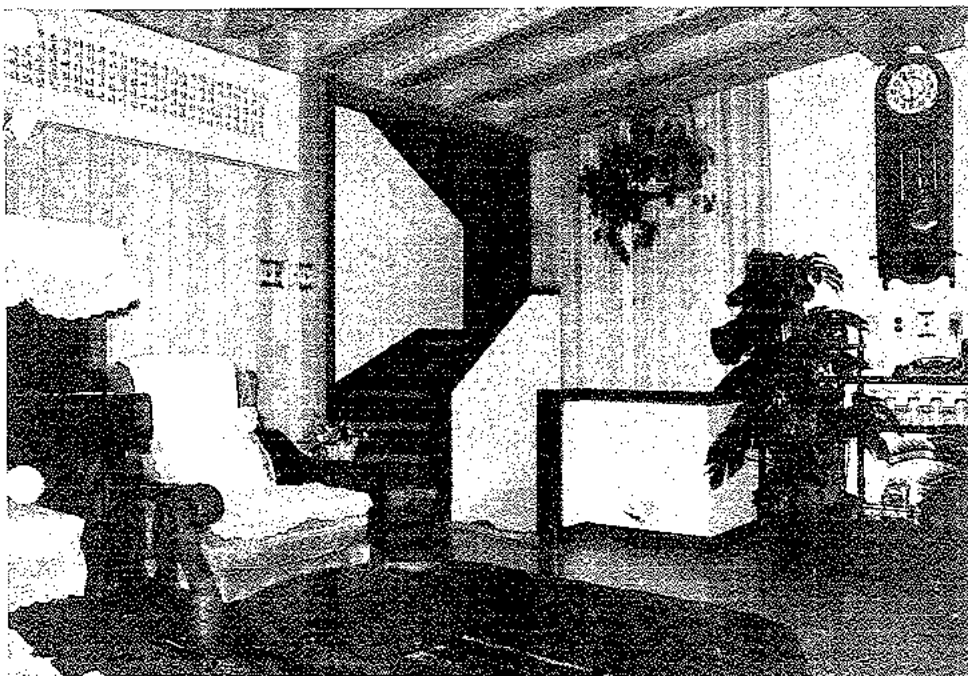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단면도

'84년도 귀속종합소득세 안내

세무사 김 기 찬
대한건축사협회 자문세무사
대한건축사협회 세무연구위원

돌아오는 5월달은 84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84년도 소득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결정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작년과 달리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건축사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살펴보면

1. 83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표준율

가. 기본율

- ①년간 총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 27%
- ②년간 총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29.7%

나. 낮은 차등율

타인 건물에 새 들어있는 사업자 기본율의 90% (10% 경감)

2. 84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표준율

가. 최저율

년간 총수입금액 450만원 이하 21.7%

나. 기본율

년간 총수입금액 560만원 이상 - 3,700만원 이하 27%

다. 최고율

년간 총수입금액 5,100만원 이상

37.2%

라. 낮은 차등율

사업장이 타가인자
기본율의 90% (10% 경감)

단, 기본율(27%)보다 높은 차등율(37.2%)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낮은 차등율 즉 타가 사업자에 대한 10% 경감을 해주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①년간 총수입금액이 (이하 외형이라 한다) 450만원 이하인 영세 회원에 대해서는 27%에서 21.7%로 소득표준율을 하향 조정되었고
- ②외형이 2,400만원 이하의 회원은 지난해와 같은 27%를 적용받으며
- ③외형이 2,400만원에서 3,700만원까지의 회원은 29.7%에서 27%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 ④외형이 5,100만원 이상의 회원은 지난해 29.7%에서 37.2%의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 받으면서 타가 사업자에 대한 10% 경감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득표준율을 다 단계로 조정한 국세청의 의도는 아주 영세한 사

업자에 대하여는 세금 부담을 낮게 해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높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인정과세) 하겠다는 적극적인 기장 유도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기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어떤 사업자든 장부에 의하여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신고 소득이 국세청에서 기대하는 일정율(성실신고율) 이상으로 신고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 하였을 때에는 종합 소득세를 실지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만 결정(서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의 성실 신고율은 장부에 의한 신고 소득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70% 이상이었으며 금년의 성실신고율도 70%에서 65%정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건축사 회원들께서는 가득이나 어려운 요즘 37.2%의 높은 소득표준율을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 다같이 성실한 세무 기장을 하므로써 현명하게 절제 하시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建築士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月刊建築士 1985年 4月 15日 発行

1985.4 NO. 193

目次

發行人 = 吳雄錫
編輯 = 出版事業部

編纂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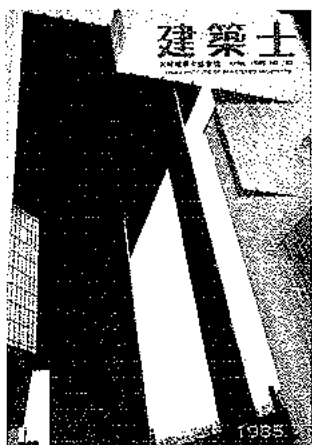
委員長 李永熙
副委員長 金 麟
委員 姜哲求
委員 金瑛碩
委員 徐千植
委員 金基雄
委員 呂鴻九

發行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江南區瑞草洞 山61-3
郵便番號 = 135
電話 - 서울(02)交 581-5711(代)
5712, 5713, 5714
登錄番號 - 第2 - 1251
登錄日字 =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 0612 (519)
印刷人 = 全允珪
(洙文精版社 / 712-2329)

建築士憲章

- 一 建築士는 建築環境을 善利人으로서 創造力을發揮하여 建築文化를 推進해 나아가는 職責을 負한다.
- 一 建築士는 國民의 快適한 生活空間과 環境의 美를 創造하여 建築士의 職責을 盡한다.
- 一 建築士는 技術的인 建築物의 質을 向上을 期하여 專業人으로서의 使命을 盡한다.
- 一 建築士는 約定과 信義를 基로 顧客과 相互關係에 協同하여 名譽와 品位를 保持한다.
- 一 建築士는 科學과 自覺心을 가지고 建築環境의 改善에 努力하여 國家나 社會에 獻身的으로 奉仕한다.

大韓建築士協會



표지설명: 건축사회관
설계: 송관섭

會員作品

- 평창동 L씨댁
김기석 / 아람건축연구소
- 방배동 B씨댁
황일인 / 종합환경연구소 일건
- 방배동 K씨댁
김영수 / 김영수건축연구소
- 한남동 K씨댁
박재환 / 도성건축연구소
- 노현동 H씨댁
김관욱 / 대호건축연구소
- 개포우성아파트타운
윤태웅 / (주) 동인건축그룹
- 인천간석동 Y씨댁
임동운 / 아진건축연구소
- 응암동 L씨주택
박동희 / 동남아건축연구소

會員 PLAZA

- 30 ● 제 1 회 임시총회 건설부장관 치사
- 28 ● 제 1 회 임시총회 개최사
- 48 ● 협회소식
- 50 ● 支部巡禮 ④ 仁川直轄市支部
- 56 ● 일하며 생각하며 / 김영덕 · 윤태수
- 72 ● 이렇게 생각한다 / 변진의 · 이두식
- 52 ● 1985年度 住宅建設綜合計劃 / 李東晟
- 71 ● 淨化칼럼 · 自我反省 / 엄태웅

研究論文

- 62 ● 인테리어 디자인 · 옥외생활공간 / 趙聖烈
- 58 ● 外部環境設計 · 바닥표면 / 崔起秀
- ✓ 74 ● 병원공기조화설비의 비용 / 孫章烈
- 66 ● 한국주택 오늘의 실태 / 朱鍾元
- ✓ 77 ●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 劉香山
- 82 ● 住宅의 工業化 / 장기홍

資料 其他

- 92 ● 예산회계법 시행령중 개정령
- 93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중 개정령
- 90 ● 건축계뉴스
- 94 ● 회원동정
- 96 ● 신입회원소개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193 호
구입년월일	19 . . .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1985年 第1回 臨時總會 開 會 辭

오늘 본협회 85년도 제 1회 임시총회를 新築된 우리들의 建築士會館에서 준공행사를 겸하여 갖게된 것을 전국의 회원과 더불어 경축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자리를 빛내어 주신 존경하는 金聖培 건설부장관님, 그리고 건축학회 金眞一 회장님, 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님과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며, 이웃나라 일본의 建築士會連合會에서 우리 협회와 親善交流覺書 交換次 내한하신 太田和夫 회장과 그일행께서 이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深甚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회관의 준공을 축하하기 위하여 遠路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전국의 회원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감사의 바입니다.

오늘 竣工한 우리 建築士會館은 20년에 걸쳐 우리회원 전원이 정성을 다하여 基金을 조성하여 이룩한 거대한 결실로서 이나라의 建築文化暢達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들 회원의 權益伸張과 친선을 도모하는 搖籃이 될것임을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동안 이 회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勞苦를 같이 하여주신 前任 會長任들과 前, 現任員, 建立委員會 委員, 設計者, 監理者, 施工者 그리고 資材를 贊助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전회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다같이 慶祝하여야할 사실로서 그동안 前任會長당시부터 추진해 오던 韓日親善交流는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될 3월 30일 11시에 본회관회의실에서 역대회장님들과 전 임원을 모신 자리에서 일본건축사회연합회의 太田和夫 회장과 본인이 交流覺書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들과 일본 사이에는 서로의 情報資料, 冊子를 교환하고 회원간의 방문을 도움고 친선을 도모하며 나가서는 共同權益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금년중으로는 아시아권에서 美國에 이르기까지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차는 전세계의 건축사와 호흡을 같이하는 國際的 位置에서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노력하여 나갈것입니다.

지금 우리협회는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 발전하기 위하여 總力化体制를 갖추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30개에 달하는 委員會에서 진지한 연구를 하며 하나 하나 事業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은 마음 든든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년 11대 국회말기에는 建築法과 建築士法의 일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多世帶 住宅의 개념현실화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법이 개정되기까지 수고하여 주신 建設部를 위시한 여러 관계부서의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협회는 관계당국과 협력하여 이러한 점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초에 들어서서 우리협회는 각 지부의 실정을 파악하고 본회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지방순회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좋은 건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거년 제19차 정기총회에서 본인이 회장으로 당선되어 10개 항에 이르는方針事項을 제시하였으며 그사항들은 하나 하나 해결되어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예년에 받아오던 보수교육은 이 회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建設部의 승인을 얻었으며 지금 구체적인 施行計劃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은 우리협회 창설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는 宿願이었던 會館도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뜻뜻하고 대견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회관을 이용해서 성년이된 우리들의 모습과 주장을 끊임 없이 사회에 매아리 치게하고 전파해 나갈것입니다.

20주년 紀念行事로서는 “協會20年史”를 발간하며 전 회원이 참여할수 있는 친선행사와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성대한 잔치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일면 건전한 建築界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職業倫理觀을 정립해 나가며 일부 似而非 회원들과 사회악을 과감하게 逐出하는 自律淨化事業을 적극 전개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造形藝術人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갖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사로서 맡은바 책임을 다하여 찬란한 이나라의 건축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회원상호간의 友愛와 信義로 協同團結하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보존하여 국가와 사회에 奉仕하는 건축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총회가 협회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협의의 광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3월 29일

會長 吳 雄 錫



大韓建築士協會
第1回臨時總會

建設部長官
致辭

오늘 大韓建築士協會 新築會館의 竣工式에 이어 開催하는 '85年度 第1回臨時總會에서 本人이 致辭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貴協會가 發足된 이래 그동안 任職員과 會員여러분들이 合心 協力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을 슬기롭게 克服하면서 이처럼 훌륭한 施設을 갖춘 會館을 竣工시키신데 대하여 그 勞苦를 眞心으로 致賀하며 深甚한 慰勞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70年代의 高度成長을 발판으로 安定的 基調 위에서 持續的成長을 着實히 다져가면서 先進祖國과 福祉社會建設에 政府와 온 國民이 團合된 모습으로 힘차게 邁進하고 있습니다.

各國이 다투어 自國의 利益을 위해 資源을 武器化하면서 保護貿易障壁을 더욱 높여가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賦存資源이 不足한 우리나라가 이처럼 安定基盤 위에서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政府와 國民 모두가 하면 된다는 굳은意志로 發展意志를 불태우면서 땀흘린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합니다.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한 나라에 構築된 建築物이나 施設物은 그 國家, 그 時代 그社會의 文化水準을 나타내는 尺度가 되며 歷史的文化遺産으로 後世에 길이 傳承된다는 點을 堪案할 때 여러분의 獨創的 努力이 民族文化發展에 寄與하는 重要度에 대하여는 贅言을 要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86아시아게임과 88올림픽의 開催國으로서 우리의 國力과 文化를 世界萬那에 誇示할 歷史的大祭典이 펼쳐질날을 앞두고 必要한 競技場및 選手村等 各種施設들을 計劃대

로 하나하나 着實하게 建設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施設들은 여기 모이신 建築士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建築士 여러분의 役割과 責任이 그 어느때 보다도 莫重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想起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親愛하는 會員 여러분!

그동안 高度의 經濟成長을 追求하는 過程에서 一部國民間에는 物質萬能의 風調가 漫然되었던 事實을 우리는 看過할 수 없습니다.

第5共和國의 出凡以後 이와 같은 弊端을 一掃하고 正義社會具現을 위해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各分野에서 社會淨化運動이 活發하게 推進되고 있는 가운데 建築行政의 總責任을 맡고 있는 本人도 萬一에 建築分野에 非理와 無秩序 등의 社會惡이 지금도 尚存하고 있다면 이를 根絶하여 맑고 깨끗한 建築行政風土가 이룩될 수 있도록 하고자 建築行政에 대한 各種制度改善·補完에 注力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課業이 政府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建築士 여러분의 確固한 淨化意志와 責任感 그리고 不斷한 意識改革이 同伴될 때 비로소 明朗하고 健全한 建築行政이 造成될 수 있다는 點을 強調하면서 여러분의 奮發을 加一層 促求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그리고 協會任職員 여러분!

돌이켜보면 貴協會도 어언 스무들의 年輪을 헤아리는 成長期에 들어섰습니다. 그 어려웠던 時期에 創立되어 이처럼 成長發展할 수 있었던 建築士 여러분과 任職員 여러분의 刻苦의 努力에 다시한번 敬意를 表하며 新築會館建立을 契機로 하여 우리나라의 建築文化에 歷史의 場이 열리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致辭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1985. 3. 29

建設部長官 金 聖 培

建築士會

〔사진上〕 준공축하 프라카드로 장식된 건축사회관

〔사진中〕 네이프 커팅(왼쪽에서부터) 구윤희 전회장, 김형래 국회의원, 오응서 회장, 이관영 건설부차관, 김지터 전회장, 강봉진 전회장, 김두섭 전회장, 이춘상 서울지부장

〔사진下〕 건축사회관 광장에 운집한 5백여 축하 인사들

3월29일 오전11시, 金聖培 건설부장관을 대리한 李寬永 차관, 국회건설위원회 김형래 의원(강남구 출신), 천영성 국회의원, 최종성 주택사업협회장, 대한건축학회 金眞一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 역대회장단, 관련부서 및 유관단체 인사, 전국시도지부장, 대의원 등 5백여 저명인사가 운집한 가운데 회관 앞 광장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 갈채속에 오색 테이프가 커팅 되며 약 2시간에 걸친 건축사회관 준공기념식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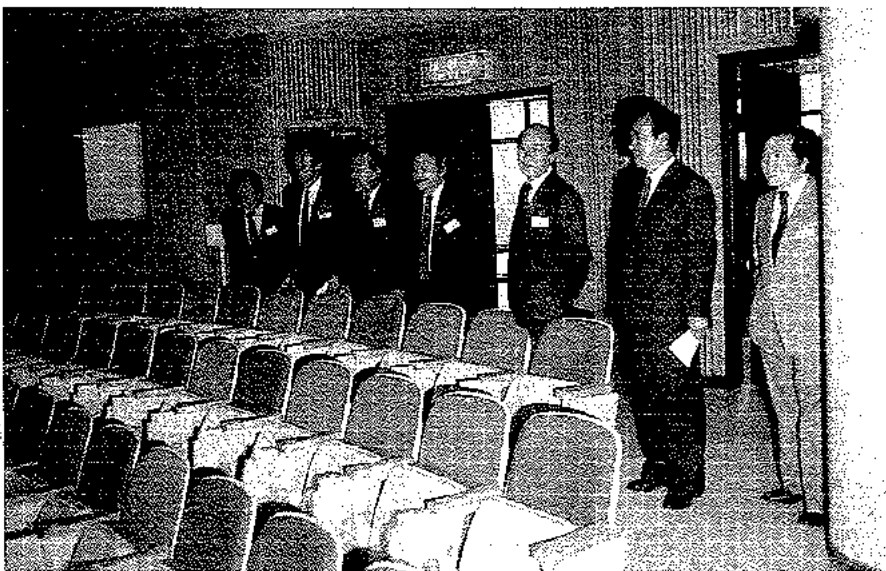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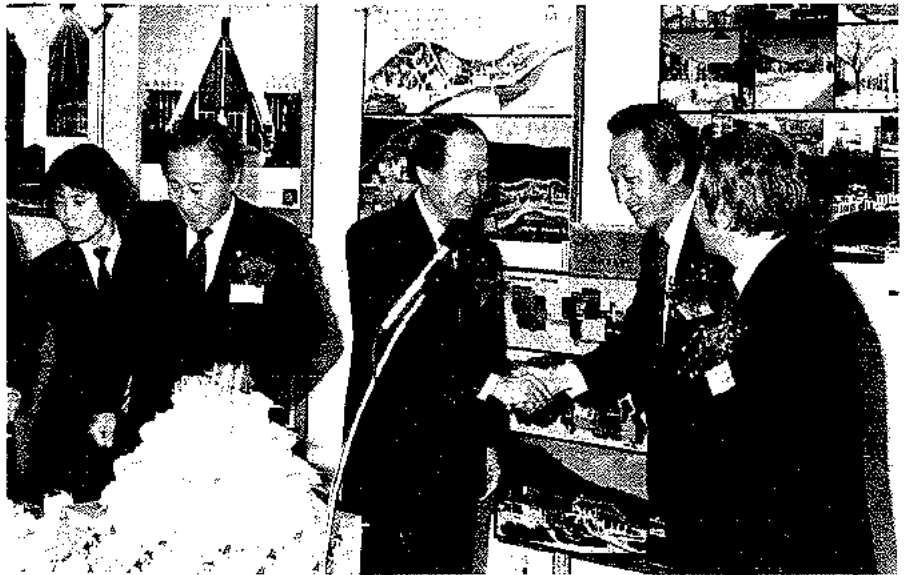
건축사회관은 81년 제15회 정기총회에서 회관건립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는데 83년12월22일 착공한 이래 1년3개월여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된 것.

이날 吳雄錫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 회관은 20년간에 걸쳐 회원들이 정성 들여 모은 기금으로 이룩한 결실」이라고 밝히고「이 회관은 우리나라 건축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李寬永 건설부차관의 치사가 있었는데「20년동안 정성어린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회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데 대해서 축하해 마지 않으며 또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치하한 다음「건축사회회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건축문화 창달에



館 竣工

(사진上) 축하 악수를 나누는 이
관영 건설부차관과 오웅석 회장
(사진中) 축하케이크를 자르는
(왼쪽에서부터) 장기인 전회장,
천영성 국회의원, 오웅석 회장,
김형래 국회의원
(사진下) 회관내부를 둘러보는 이
관영 건설부차관(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귀빈 일행



이바지 해야 할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오늘 개관된 이 회관이 이러한 점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고 또 부강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축하 하였다.

국회건설위원회 김형래 의원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그 선두 기관차 역할을 해온 것은 건설쪽」이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건설분야의 그 초석은 바로 건축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당회관의 개관은 그만큼 뜻이 깊은 것」이라고 준공의 뜻을 새겼다.

천영성 의원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국력을 과시하는, 여러 국민들이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발상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축사를 했다.

내빈의 축사가 끝난 다음 삼폐인 축배가 높이 올랐고 이어서 오찬을 겸한 자축연이 벌어졌다.

建築士會館 建物特徵 (건축개요)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산61의3

대 지 면 적 : 1885㎡

건축연면적 : 4418.43㎡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 축 규 모 : 지하2층, 지상4층

건 축 설 비 : 공기조화 및 냉난방시설



吳雄錫會長 紀念辭

오늘 건축사회관 준공을 전국의 회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축하여 마지 않는바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어 주신 존경하는 이관영 건설부차관님 그리고 김형래 의원님, 천영성 의원님, 최종성 주택사업협회 회장님, 건축학회 김진일 회장님, 건축가협회 나상기회장님과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준공한 우리 건축사회관은 20년에 걸쳐 우리 회원 전원이 정성을 다하여 모은 기금으로 이룩한 거대한 결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뜻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성년이 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주장을 거론하고 전파하며 이나라의 건축문화창달을 위하여 활용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나가서는 우리들 회원의 권익신장과 친선을 도모하는 터전으로 사용될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특히 460석을 갖춘 대강당과 전시장은 일반 문화용도로 공개하여 건축예술문화발전을 위하여 이바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 회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고를 같이 하여주신 전임회장님들과 전·현임원, 건립위원회위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그리고 자재를 찬조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오늘의 준공을 전 회원과 더불어 경축하오며 이 회관을 아끼고 활용되도록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오웅석 회장 紀念辭

김형래 의원, 천영성 의원, 최종성 주택사업협회 회장, 강봉진 전회장이 경청하고 있다.

〈특 징〉

• 전면에 폭 30미터의 도로와 접해 있으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약 20미터 후퇴한 개방된 공간에 본건물이 위치하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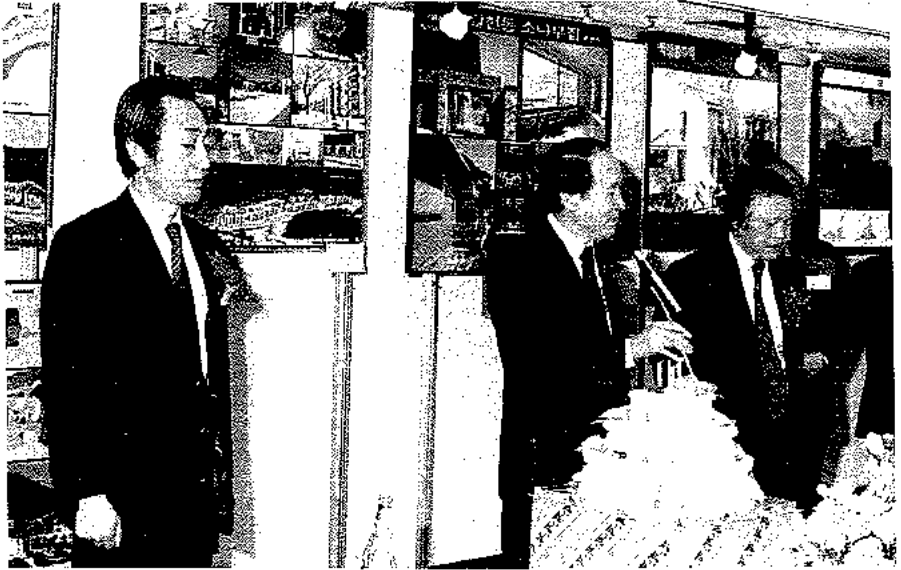
• 지하1층의 출입구는 전면의 도로와 연결되도록 통로가 설치되었고 통로 양측에 제1전시실(155제곱미터), 제2전시실(140제곱미터)을 두어 관람객이 전시실에 자연스럽게 유도되도록 하였다. 전시실은 건축 설계작품 및 건축자재, 기타 예술작품 전시장으로 이능하고 아담하다. 양측의 전시실을 지나 통로를 지나면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를 가른 내부 선큰 가든으로 이르게 된다. 이곳 정면에 강당 입구가 있어 선큰 가든은 전시실이나 강당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서비스 된다.

• 강당은 음향시설, 조명시설, 냉난방시설을 고루 갖추었다. 중앙 무대를 향해 부채꼴로 4백60석의 안락한 극장식 의자가 제단식으로 배치되었으며 영사실과 영사막을 비롯한 부대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어 대회의, 강연회, 세미나, 결혼식, 연극, 음악회 등에 적격이다.

• 지상4층 건물부분은 전면과 후면으로 양분되며 중간부분에 오픈 스페이스를 두고 각층 바닥은 스윙 플로어의 다양한 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 1층 정면에는 좌우 양측에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를 두었으며 중앙부분을 데

이관영 건설부차관 치사
오웅석 회장(왼쪽)과 김형래 의
원(오른쪽)이 경청하고 있다.



크 플라자로 처리하여 개방된 공간을 확
보하였다.

- 건물 중앙부분인 데크 플라자는 상부
를 개방하여 자연채광이 건물 상부로 부
터 각종 사무공간에 깊숙히 인입되도록
하였다.

- 차량은 도로와 연결된 지하2층 주차
장 입구로 출입할 수도 있고, 본건물 지
상1층 데크 프라자 전면의 주차장으로
통하는 도로와의 연결 도로를 이용할 수
도 있도록 배려되었다. 주차 능력은 지하
주차장 20대, 지상주차장 20대, 총 40대
이다.

- 건물의 외장은 습식타일로 마감하였고
그 표면처리가 우수하여 장중하고 섬세
한 느낌을 갖게 하였다.

- 건물옥상은 조경으로 처리하여 휴식공
간을 마련하였다.

竣工紀念 祝盆30점, 祝品16점

3월29일 강남구서초동산 61의3 일대
는 건축사회관의 준공을 축하하는 하객
과 승용차가 밀려 뜻밖의 교통체증 현상
을 보여 4명의 교통경찰이 특별 정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

준공기념식에는 축분과 축품도 다수
접수되었는데 축분이 29점, 축품이 16점
에 이르렀다.

축분과 축품을 보내주신 분들은 다음
과 같다.

李寬永 建設部次官 致辭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 지역 출신이신 김형래 의원님과 천영성 의원님이
참석을 해주신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나와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
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오웅석 회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1백28
명의 회원으로 발족되어 오늘날엔 2천3백여명의 회원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20년동안 조그만 회관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기금을 만들어 이렇게 훌륭한 회
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우선 축하하여 마지 않으며 또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쁜 날을 맞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건설협회도 회관을 건립중에 있습니다만 건축사협
회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건축사협회의 역할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
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동안 건축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믿으며 또
앞으로도 그 책임이 중차대 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개관 된 건축사회관이 이처럼 국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중심 터전
이 되고 또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형래 의원 축하
천영성 의원, 최종성 주택사업
협회 회장, 강봉진 전회장, 나상
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경칭
하고 있다.

〈축 분〉

- 김성배 건설부장관
- 안경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 박영수 주택공사 사장
- 안병옥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 허 각 서울시 건축사복지회 회장
- 유돈우 한국주택은행장
- 신무성 서울공대건축과동문회
- 최종성 한국주택사업협회 회장
- 이재준 대한건설협회 회장
- 이승윤 해외건설협회 회장
- 김진일 대한건축학회 회장
- 나상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한국유리
- 한남화학
- 민정당서울 제11지구당 허청일 의원
- 국회의원 천영성
- 삼영요업
- 선진엔지니어링
- 건축문화
- 대정토건
- 한국진카드
- 한양공대건축동문회
- 광문정판사
- 로얄 ToTo
- 각시(도) 지부장

〈축 품〉

- (주) 금 강.....대형시계 1개
- 캐논세라믹스.....대형시계 1개
- 서울지부.....대형시계 1개

김형래 의원 축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이 계절에 건축인의 꿈이요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건축사회관이 개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본인은 첫째 이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둘째 지난 4년동안 국회쪽에서 건설 행정을 맡아 보았다는 입장에서, 셋째 오응석 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과의 지면관계 등 이런 세가지 인연으로 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의 기본은 의식주인데 건축의 기초이며 기둥역할을 해왔던 우리 건축사회관이 없었던 것은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해 왔는데 그 선두 기관차 역할을 해 온 것은 단연 건설쪽이라고 해도 의심할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관차 역할을 해왔던 건설분야의 그 초석은 바로 건축사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건축사회관의 준공은 그만큼 뜻이 깊은 것입니다.

건축인의 전당이 바로 강남 땅에 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영광일뿐 아니라 강남에서 바람이 불어야만 봄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에 세워진 이 건축사의 집은 이 나라 건설 전반에 분명히 활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전당은 건축사 여러분의 광장이면서 이 나라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 보다 넘치는 활력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동력의 센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영성 의원 축하

반갑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대단히 훌륭한 건물을 갖게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마다 갖는 소감입니다만 역시 건물은 국민이 갈망하는 의식주의 기초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독특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족의식과 국력을 과시하는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느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와같이 우리나라 국력을 과시하는, 여러 국민들이 생활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좋은 발원지가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남화학.....대형거울 1개
- 김기찬세무사.....대형거울 1개
- 동부건축사동호.....대형거울 1개
- 제주도지부.....돌하루방 1기
- 경기지부 안양분소.....응접세트(소파) 1세트
- 금강산면옥.....소형액자 1개
- 전남지부.....대형액자 1점
- 강원지부.....대형액자 1점
- 충남지부.....중형액자 1점
- 부산지부.....중형액자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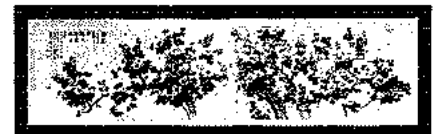
- 부천분소.....중형액자 1점
- 금강산면옥.....소형액자 2점
(축 금) (비품구입성금)
- 인천직할시지부.....200,000원
- 경상남도지부.....300,000원
- 전라북도지부.....300,000원
- 경기도지부.....300,000원
- 충청남도지부.....200,000원
- 대구직할시지부.....300,000원
- 경상북도지부.....300,000원
- 충청북도지부.....300,000원

천영성 의원 축하
오웅석 회장, 이관영 건설부차관, 김형래 의원이 경칭하고 있다.

• 돌하루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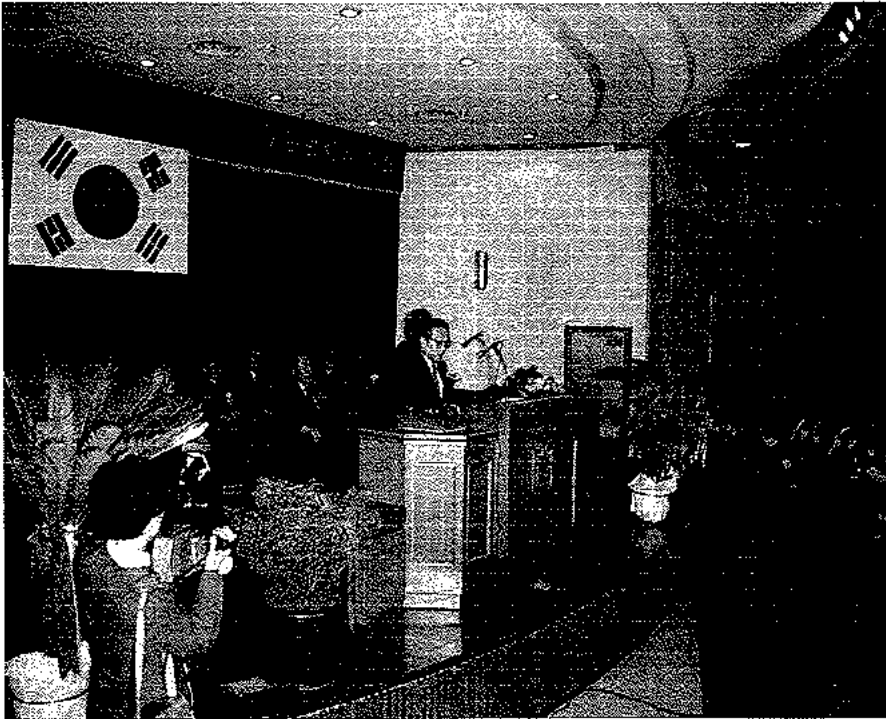
건축사회관준공을 기념하여 제주도지부에서 선물한 돌하루방은 현재 제주도 내에 45기가 있고 경복궁내 한국민속박물관에 2기가 있다. 偶石木, 翁仲石, 돌하루방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크기는 일정치 않으나 제주시의 것이 제일 커서 평균신장 181.6cm.

이조 영조30년 牧使 金夢奎가 처음 만들어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나 확실치 않으며 장승의 기능과 유사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제주지부 사무국장 洪鎭豪 濟州道誌에서>



• 전남지부에서 선물한 대형액자는 前현대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 원봉 조동희씨가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지금은 다른 업에 종사하는 조동희씨는 건축사회관준공을 기념하여 약 1주일간 정성을 다해 작품을 제작해 기증하여 주었다.

'85第1回臨時總會開催



〈사진上〉 김성배 건설부장관의 치사, 유상일 건설부 주택국장이 대독하고 있다

〈사진下〉 오웅석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본회 85년도 제1회 임시총회가 3월 29일 오후 2시 재적대의원 1백33명중 1백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吳雄錫 회장의 개회로 시작된 임시총회는 金聖培 건설부장관의 치사(柳常悅 주택국장 대독)를 비롯, 일본건축사회연

합회 太田和夫 회장의 축사와 한국건축가협회 羅相紀 회장의 축사로 서막이 장식되었으며 추대회원 추대, 건축사회관 건립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수여, 회관건립지제 한조업체에 대한 감사패 수여의 하이라이트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서 제19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柳根洵 감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와 李康植 감사의 회계감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전상정이 있는 다음 오후 4시18분 정회하였다.

오후 4시35분 속개된 회의에서는 부의안전에 대한 심의가 있었는데 〈제2호

太田和夫 會長 祝辭

오늘 아침 동경나리다공항을 떠나 2시간만에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오는 동안 도시계획 쪽의 큰 발전에 시선을 놓을 수 없었고 또 여러 건축사 회원들이 많은 작품을 남기고 활발히 활동하시는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약 50년전 서울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잘 기억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의 건축사 여러분이 이렇게 작품전시회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고 대단히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건축사회는 수는 상당히 많지만 이렇게 단합적이 아니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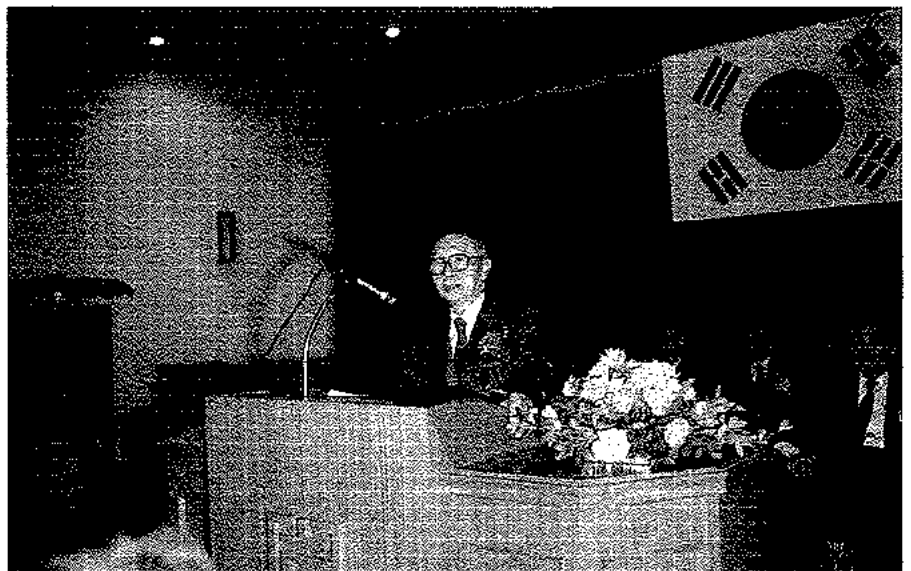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향해서 건축제도나 여러가지 문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 한국은 우리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건축제도를 바꾸어서 일본건축사 자격제도를 민간주도하에 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은 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건축계 전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한-일간의 교류를 애기했었지만 10여년만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내일 조인식을 갖고 올림픽 시설도 구경하고 여러가지 많은 것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日本建築士會聯合會 太田和夫 會長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의안 정관개정(안) 승인)의 일부 수정의 결을 제외하고는 <제1호 의안 1984년도 수지결산 승인>, <제3호 의안 윤리위원회규정개정(안) 승인>, <제4호 의안 1985년도 일반회계개정수지예산(안) 승인>, <제5호 의안 1985년도 제1차 특별회계추가개정수지예산(안) 승인>이모

두 원안대로 의결 승인되었다.

부의안건 처리에 뒤이어 기타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오후 6시50분, 만세삼창을 끝으로 85년도 제1회 임시총회의 막이 내렸다.

한편 이번 제1회 임시총회 석상에서

추대된 추대회원과 건축사회관의 준공과 관련하여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은 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上〉 낙상기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사진 下〉 김지태 전회장 (오른쪽)
이 오웅석 회장으로로부터 감사패
를 받고 있다.



推戴會員

- 제133호 宋寬植 서울·삼미종합건축
사무소
- 제134호 李伯吉 서울·피아종합기술
공사
- 제135호 宋啟求 서울·도성건축연구소
- 제136호 林級周 서울·임금주건축
사무소
- 제137호 金枝泰 서울·삼아건축연구소
- 제138호 崔聖德 대구·도심거림건축
설계사무소
- 제139호 金鳳善 안양·유일종합건축
사무소
- 제140호 金載源 수원·한도건축연구소
- 제141호 曹正煥 대전·조정환·강우식
건축연구소
- 제142호 申在益 순천·성주건축설계
사무소
- 제143호 李文靄 상주·남일건축설계
사무소
- 제144호 金再炫 진주·삼성건축설계
사무소

羅相紀 會長 祝辭

건설부장관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상열 주택국장님, 오웅석 회장님, 멀리 일본에서 오신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오다 회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본인은 이제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업적이 하나 하나 역사속에 기록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길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파도기 40여년전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언제 우리가 이런 회관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2천3백명이 넘는 건축사들이 한국 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1백여명도 안되는 서울의 건축사들이 6.25 동란의 폐허를 복구함으로써 건축경기가 활발해 지도록 부상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앞으로도 그만큼 건축사들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고 하

功勞牌 및 感謝牌

〈공로패〉

- 제671호 金枝泰 삼아건축연구소
- 제14대 회장, 건축사회관 추진
에 대한 공로
- 제672호 金亨仁 세한종합건축사무소
- 공사 감리에 대한 공로
- 제673호 金一榮 동신건축설계사무소
-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얘기할 때 흔히 경제전문가들은 하물자동차의 수를 비교합니다. 대략 일본과 서독같은 경제대국들의 비교수치는 50대 5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하물자동차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경제부문이 다 함께 발전했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특히 건축방면에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는 1급 건축사가 18만명이나 있다 합니다. 2급까지 합하면 6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 10만명에서 18만명 미만이 개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이 생활을 영위하기조차도 급급한 처지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2천3백명이 넘는 오늘의 우리 건축사들은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 가진 노력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주변여건을 고려하면서 끊임없이 배출되고 있는 수 많은 젊은 건축가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과제에 대해 심각한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출신의 건축과 학도만 해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고 전문대학 학도까지 합치면 만여명이 넘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건축과 출신 인재들의 진로를 우리가 개척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폭이 지금에 비해서 더욱 커져야 되겠고 우리 건축인도 스스로 자질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질을 높인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자질을 높이는 힘들겠고 협회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5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자질을 높일 수가 있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고급주택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계 건축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UIA 총회에서 알게된 일입니다만, 40개 회원국 중에서 19위라는 상당한 수준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여러 나라 있지만 건축사 30명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는 나라가 수십개국에 달합니다.

19위라는 놀라운 수준의 선진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그만큼 어깨가 무거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서로 협조하고 도움은 정신을 길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 여건이 이 땅에 찬란한 건축문화를 꽃피워 내려는 창작활동에 알맞게 구성되어 있지는 못합니다만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건축문화 창달의 선구자가 되어 건축문화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창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사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전투와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674호 尹鳳源 건축연구소 원건사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5호 李永熙 화림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6호 李用夏 신건축기술연구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7호 朴容漢 성아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8호 李春相 동화신양건축연구소
건축사회관 건립 전담위원
- 제679호 任仁赫 본회 사무처장
건축사회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
- 제680호 이재선 신축공사 현장감독관
- 제681호 李鍾永 본회 총무부 관리주임

〈감 사 패〉

- 제682호 宋光燮 환전축연구소
건축사회관 설계
- 제683호 尹玟老 (株) 三湖 대표이사
건축사회관 건립공사
- 제684호 張命天 (주) 삼호
신축공사 현장소장
- 제685호 최영중 한국유리공업(주) 대표
이사·자재찬조
- 제686호 박가경 (주) 금강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87호 金正鉉 (주) 한국텍스코트
대표이사·자재찬조
- 제688호 金永錄 삼영요업(주)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89호 李永觀 동서산업(주) 대표이사
자재찬조
- 제690호 宋基頂 제일산업 대표
자재찬조

韓 · 日建築士交



〈사진 上〉 오웅석 회장과 太田和夫 회장에 의해 한·일건축사교류촉진각서가 서명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

〈사진 下〉 양국 건축사간의 우의를 다지는 뜻에서 정성을 다한 선물이 교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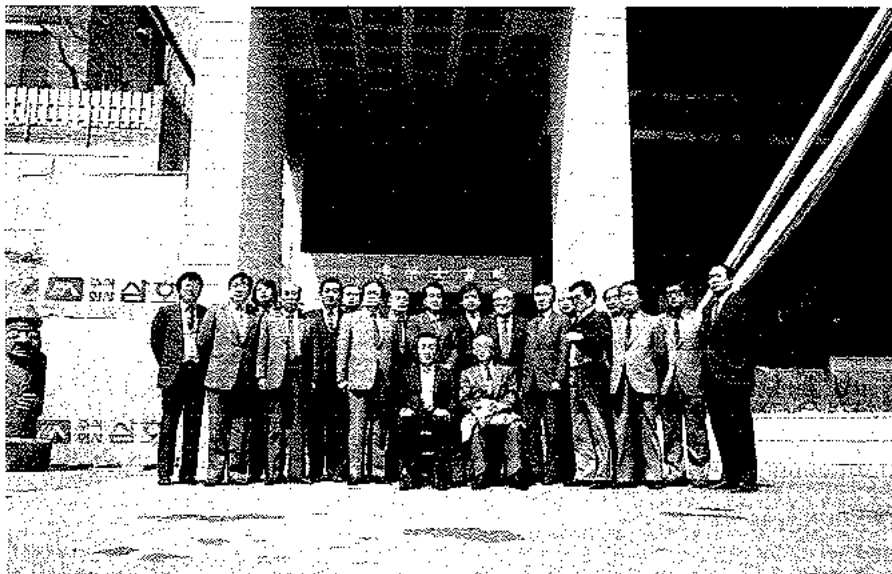
본회는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 회의실에서 일본건축사회연합회와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우의증진 및 기술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회 吳雄錫 회장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和夫 회장이 서명한 「한·일건축사교류촉진에 관한 각서」에 의하여 양

회는 앞으로 「① 상호방문 시찰과 의견교환 ② 기술의 교류 및 간행물등 정보자료의 교환 ③ 제외국의 제도·시책및 기타의 자료 교환 ④ 학술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 참여및 공동개최 ⑤ 기타 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이날 조인식에서 吳雄錫 회장은 인사

流促進覺書署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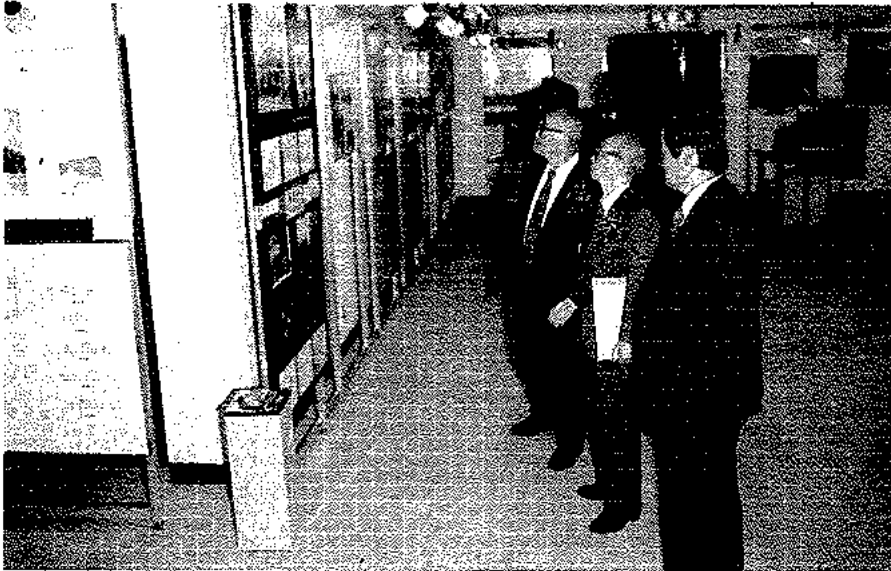
〈사진 上〉각서 서명후 축배를 드는 장면. (왼쪽끝에서부터) 김기수 분회 부회장, 한 사람 건너 오웅석 회장, 太田和夫 회장, 小野重光明 부회장, 町田幸一 사무국장.

〈사진 下〉조인식을 마치고 건축사회관 앞에서 기념촬영

말을 통하여 「현대건축은 국경을 초월해서 널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들이 서로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현대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들의 상호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일건축사교류의 뜻을 새겼다.

이에 대해 太田和夫 회장은 「오늘 회의에 역대 회장까지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국과 일본 건축사간의 교류를 깊게 해서 상호 문화발전에 기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양국간 건축사의 교류에 적극 협조해나갈 뜻을



〈사진〉 본회 전시실에 마련된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일본건축사협회합회 (왼쪽에서부터) 小野里 부회장, 太田 회장, 町田 사무국장

吳雄錫 會長 人事

어제 있었던 우리들의 건축사회관공식에 이어 오늘 한·일건축사교류 촉진 각서서명식을 존경하는 일본건축사협회합회 太田和夫 회장님과 그 일행을 모시고 갖게된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전회원과 더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경축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오늘의 한·일교류각서교환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불가분의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동양문화권 내에서 긴 세월을 걸쳐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부분적으로는 한·일 두 나라는 서로가 특성을 가진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룩하여 나왔습니다.

한국은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건축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급격한 국제건축양식의 발전으로 잠시 자취를 멀리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그 전통건축을 우리들은 되찾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일본 여러 곳을 방문, 여행하였을 때 지금도 계속하여 많은 가옥들이 일본 고유의 양식으로 지어지고 있음을 보고 느낀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축은 국경을 초월해서 널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들이 서로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현대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들의 상호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일상호간에 책자와 자료를 교환하며 세미나 강연회등에 서로 초청할 것이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건축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고유의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현대건축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太田和夫 회장님과 그 일행이 멀리 한국에까지 방문하여 이 자리에 동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제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밝혔다.

조인식은 양국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양국참석인사 소개, 선불교환, 각서서명, 양국 상호관심사 협의의 순으로 진행되어 약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한편 각서서명차 내한한 太田和夫 회

〈사진〉 본회 회장실을 예방한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太田 회장 일행



太田和夫 会長 人事

제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 회장입니다.

이런에 한국의 건축사협회 건물이 새로 준공되어 초청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동안 수년 전부터 한국의 여러 회장님을 비롯해서 건축사 회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셨는데 작년 1월에는 김지태 전 회장님과 현재 회장님이신 吳雄錫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 때 일본 건축사의 여러 임원들과 건축문화를 교류하던 어퍼나는 제안을 받아 그런 일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로 찬성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조인을 갖게된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전임 회장님들께 그동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吳雄錫 회장님께서 한국문화와 일본문화는 동일체통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이 문화가 각각의 지역 여건과 환경에 흡수되어 특성있게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금일 회의에 吳雄錫 회장님이 나오시고 그 외에 임원만 나오시는 줄알았는데 역대 회장님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도 전통문화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다 보니 국민 전반적 현상으로 고유문화를 아주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인식을 저는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이 문화를 서로 교류하게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후 한국과 일본 건축사간에 서로 교류를 깊게 해서 문화를 발전시킬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 小野里 光明 부회장, 町田幸一 사무국장 일행은 3월 29일부터 3월31일까지 2박3일간 체재하는 동안 양국 건축계 전반의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경복궁, 잠실올림픽 경기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고건축과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本協會 歴代会長団, 太田 会長一行

懇 談 會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한·일양국건축사회 임원들은 한·일건축사교류촉진각서 서명을 끝

낸 자리에서 상호 관심사를 놓고 간담을 했다.

간담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간담회 참석자

韓 國
회 장 吳雄錫
부회장 金基壽
이 사 金圭泰 金奉勲 金在佑 金享仁 申貞桓 俞景哲 李永熙 林在植
감 사 李康植
전임회장 張起仁 韓昌鎭 李圭福 金萬盛 金斗燮 具琬會 金枝泰
서울지부장 李春相

전임이사 金一榮
국제위원회위원장 宋基德
서울지부장사 趙炳瑄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金正澈
중앙대교수 申鉉植
한양대교수 李利衡

日 本
会 長 太田和夫
부 회 장 小野里 光明
사무국장 町田幸一

日本에 1.2급 건축사 50만명

太田会長: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실례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건축사에 대한것은 여러가지 질문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오히려 건축사법에 관한 책자를 갖고 싶습니다.

조만간에는 한국의 건축사들이 일본에 많이 방문해주시고 일본의 건축사들이 한국의 건축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현재 일본에 건축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있고 1급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만명이고 2

급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사람을 합하면 50만명이 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는 등록을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는 약 11만곳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설계사무소는 일이 없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건축사의 큰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건축사의 질을 높여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로 인해서 건축문화에 힘을써야할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한국에서의 여러가지 제도를 검토해서 그와 같은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어떤식의 제도를 장치하고있는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설계가 하나의 영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런점이 20년 30년 거처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공사를 입찰하는데 입찰같은것은 설계자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입찰하지 않으면 좋은데 입찰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별로 좋은현상이 아닙니다.

일본의 현재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이런 문제는 83, 84년도 보다도 심해져서 큰 결론이 나지않을것 같아서 한국의 실상을 조사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규복: 일본의 대학에서는 몇명의 건축과 학생이 배출되는지요.

건축사시험합격률 12%

太田会長: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수는 1만천명 정도이고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2만명입니다. 그중에서 매년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7만2천명 정도 되는데 합격률은 12% 정도입니다.

일본의 전설청이 주관이 돼서 대개 대학 선생님이나 같은학과, 그 외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분 4~12명 정도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시험을 위해서 건축기술교육국이 생긴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체로 교육센타가 생긴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결국 민간센타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제도까지 넣어서 한 80명 정도의 선생님이 동원되었습니다.

각 시험은 각 도지부에서도 실시하는데 경쟁률은 40대 1 정도 됩니다.

단지 시험장소나 감독하는것은 건축사협회에서 하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성: 현재 일본건축사의 회원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町田事務局長: 실질적으로 하고있는 것

은 단체보험이라든지 장해보험을 각 회원들이 들게끔 해준것하고 또 그외에도 여러가지 복지 관제는 현재 검토중이며 각 지방의 현재 예산은 스포츠및 기타 여러가지를 건축사 연합회에서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회에 대한 질문은 전체회원에 대한 어떤 건축사연합회에서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냐 하는 것일텐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복지를 할 만큼의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것도 모든 회원이 드는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분만 들고 건축사연합회에서는 권고만하고 있습니다.

구유회: 일본 건축사연합회의 회원수와 체제및 그밖에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太田会長: 일본건축사연합회의 회원은 약 15만명으로 47개 일본의 도에 회원이 있으며 실무적인 지방의 힘은 없습니다. 건축사연합회 회원이 15만명 밖에 안되고 그외의 회원은 여기 들어있지 않기에문에 희망자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부담을 하고 자체내에서 복지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그외에 건축설계사무소에 2~3명의 건축사가 있는 적은회사에 있어서는 연합회 보험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크게 다섯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학회, 건축사회, 건축가협회, 건축설계감리협회 그리고 일본건축사무소 연합회가 있습니다.

일본건축사협회의 문제점

그 외에도 큰 단체를 제외하고 조그만 단체가 또 있습니다.

건축사회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회원들이 연합회를 만들어서 일종의 건축사연합회가 주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협회를 만들 수 있는곳은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협회입니다.

이것 외에도 설계감리협회, 건축사사무소협회도 있지만 이것은 세계적으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여러곳에도 있습니다. 일본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약 1천 여명

支部別 會員懇談會소식

전남지부 회원 간담회 모습

본회는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할 회원의 의견과,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할 회원의 의견등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1월 18일 이래 계속 지부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거니와 3월 5일엔 전라북도지부에서, 3월 11일엔 전라남도 지부에서, 4월 13일엔 제주도 지부에서 각각 순회 간담회를 함으로써 순회 간담회계획을 모두 마쳤다.

다음은 지부별 순회간담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全羅北道支部

일시: 85년 3월 5일 14:00~17:00
참석: 회장, 이사2명, 全炳直 전북지부장,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외 15명

간담내용요약:

- 회원에 대한 이종차별규정 폐지요망
- 행정상 업무정지와 정관규정 제11조규정의 배울성 시정.
- 남원, 정주분소 설치 건의
- 행정의 능률화 건의
- 본부 사무기기 현대화및 보고문서의 일원화
- 사무실 관리비의 예산반영

全羅南道支部

일시: 85년 3월 6일 10:00~12:30
참석: 회장, 이사2명, 전북지부장, 趙春元 전남지부장, 사무처장 외 25명

간담내용요약:

- 84전남회원 작품전시회 협조요망

(다음 페이지로 이어짐)

정도 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자칭 에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가협회에 입회하게 되는데 열사람 이상 입회추천이 있어야 되며 또 그곳은 입회판정위원회가 있어 판정을 받아야 정식회원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자기들은 건축에 대해선 전문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0%는 사업을 했거나 또는 어떤 재벌과 연결이되어서 어떤 일을 신

사적으로 파내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건축사 협회에 서 있는 회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축가협회회원이나 건축사협회 회원은 양쪽에 다 가입한 회원이 많습니다. 두 협회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있지만 이해관계부족으로 서로 맞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건축사협회의 나쁜얘기만 한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회원 해외시찰안내 협조 요망
- 건축사 특별전형시험 완화 건의
- 타지역 회원의 지역내 업무수주제한 건의
- 분소직원 양성화 건의

濟州道支部

일시: 85년 4월 13일 11:00~12:30
참석: 회장, 梁昌完 제주도지부장, 사무처장 외 21명

간담내용요약:

- 건축심의 대상지역 및 건축물의 범위를 법령으로 정하여 시행되도록 추진요망
- 소규모 건축시공자를 시장 군수에게 등록토록하여 관리가능하도록 추진요망

建築士會館竣工紀念

會員建築設計作品서울地域展示會 개최

건축사회관 준공기념행사의 하나로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가 본회 주최, 건설부 후원아래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 마련되어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회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본회 연간사업계획의 하나이기도 한데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84년도 작품으로 경기 강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지부 별로 작년에 이미 순회전시를 마쳤던 것.

서울에서의 전시는 건축사회관의 준공과 때를 같이하여 열기로 하였던 것으로 당초 전시계획은 4월 16일까지 였으나 연장요청이 다수 있어 5월 31일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종합건축사 사무소 등록기준 중 건축사 수를 2인 이상으로 조정 요망
- 건설부 공고에 의한 건축사 업무및 보수기준은 모든 행정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 요망

• 대형 건축물 준공 처리시 허가면적 10% 미만이 단순증감인 경우 설계변경 없이 건축사 조사보고로서 처리 되도록 추진 요망

- 세무업무의 효율화 추진 요망
- 지부사환정원 부활 요망
- 제주지부와 같이 원거리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2차 지방순회교육을 생략하고 중앙에서 1차 교육시 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망
- 건설부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을 순회하면서 건축직 지방공무원에게 건축법교육을 실시해 주도록 추진 요망

이번 전시가 끝나면 6월부터는 강원도 춘천시청의 요청에 따라 도청앞 시립문화회관 전시실로 옮겨져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작품은 모두 70점인데 작품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27점
- 캠퍼스 및 부속건물...13점
- 교회 및 성당...5점
- 업무용빌딩...4점
- 병원...4점
- 사옥...3점
- 위락시설...3점
- 호텔...2점
- 은행...2점
- 기타...7점

김보근 민정당 건설전문위원, 민정당 정책국제 2부장, 해외건설협회장, 건설공제조합이사장, 한국주택사업협회장, 건설협회상근부회장, 전문건설협회회장이 참석하였다.

建設部 礼訪

3월 27일, 건축사회관준공기념 행사와 8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협회 현안에 대한 협의차 건설부를 방문, 金聖培 장관과 李寬永차관을 예방하였다.

建設技術研究院 理事会 參席

4월 4일 건설기술연구원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弘報案内文 新開掲載

본회는 신축회관 준공기념식을 앞두고 동아일보(3. 26. 자) 서울신문(3. 24 자) 경향신문(3. 23. 자)의 3개 일간지에 건축사회관 준공식과 회원건축행정 상담실 운영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였다.

建築關係言論 人々懇談會

본회 임원진은 4월 11일 건설부 출입신문 방송 기자단 일행과 회동하고 「건축사의 사회참여도향상을 위한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협회의 홍보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85년도 건축사보수교육 本協會에서 主管

건축사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축사 보수교육이 85년도 부터는 본협회가 주관, 실시하게 되었다.

그간 건축사 보수교육은 건설부의 시행방침에 의거 본협회 지원하에 건설기술교육원에 위탁 시행해 왔었으나 3월 29일 건축사회관이 준공되어 4백 60석의 좌석을 갖춘 대강당이 마련되게 됨에 따라 본협회가 주관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

교육대상은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용역업체 신고자 포함)로서 85. 1.31

吳雄錫 會長動靜

民正黨 懇談會 참석

4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만 동안 민정당에서 주관한 건설부 산하 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와

회원건축사의 애로점을 개진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는 민정당 정책위 의장, 정책조정실장, 박익주 제12대 건설위원장,

현재 2천2백64명 전원이 이에 포함되며 1차, 2차로 나누어 교육을 하되 1차교육은 본회 대강당에서 2일간 15시간, 2차교육은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1일간 6시간 도합 21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기간은 제1차교육이 85.5.13~6.18까지인데 6기로 나누어 1기에 4백명 내외의 인원을 편성, 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제2차교육은 85.7.8~7.18까지 5개지역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자는 교육계획에 따라 각사무소별로 균등히 배분차출할 예정인데 84년도 불참자는 1기에 포함하여 실시키

로 하였다.

교육내용은 2일간의 중앙집체 교육시 전공교육 3시간, 교양교육 6시간, 정신교육 4시간 기타 2시간이고 지역순회교육은 전공교육 4시간 기타 2시간이다.

건설부 교육지침에 따라 교육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 중앙집체교육미이수자...업무정지 20일
- 지방순회교육미이수자...업무정지 10일
- 지방및지방교육미이수자...업무정지 30일

한편 지부별교육(제2차교육)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교육진행부	교육참가지부	교육일정예정	대상인원
대전	충남지부	충남·충북	85. 7. 8	170
광주	전남지부	전남·전북	85. 7. 9	189
부산	부산지부	부산·경남	85. 7. 11	393
대구	대구지부	대구·경북	85. 7. 12	229
서울	서울지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제주	85.7. 15~18	1283
계				2,264

2級建築士 教育実施

본회는 85년 6월16일 시행 예정으로 있는 건축사 특별전형시험에 대비 2급 건축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계획하고 있다.

교육일정: 85.5.6.~11(6일간)

장 소: 건축사회관 강당

교육방법: 집체교육

교육과목및 시간

시험과목	내 용	시간	시험과목	교육내용	시 간
건축구조 (15시간)	일반구조	5	건축계획 (15시간)	계획원론	5
	구조역학	5		계획각론	5
	철근콘크리트구조	5		건축설비	5

서울特別市支部에 회원휴게실용 찬조금품 담지

3월 29일 건축사회관 준공과 매를 같이하여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李春相)에는 회원 휴게실에 비치할 회원 찬조품과 찬조금이 담지하고 있다.

李春相 지부장은 이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찬조를 하여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회원 휴게실 비품및 사무집기 비품과 찬조금을 보내주신분에게 더욱 감사」 드린다고 말하고 「이 뜻을

깊이 빛내도록 더욱 지부발전에 매진」 하겠다고 감사한 뜻을 밝혔다.

찬조품과 찬조금을 보내주신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찬조품〉

- 강동건축사 일동...금성칼라TV(20") 1대
- 민경진 정용찬(삼우종합건축)...금성칼

라TV(20") 1대

- 도봉건축사 일동...대형자물 1개
- 은평지구 감리반 일동...V.T.R. 1대
- 정재용(서일합동건축)...냉장고(180ℓ) 1대
- 이상수 신국범 김방부((주) 선진엔지니어링)...4단 화일박스 4개
- 정성교((주) 신원건축)...장식장 1조
- 황용주(대구직할시지부장)...대형폐종 시계 1개

〈찬조금〉

- 강남건축사 일동
- 이문우(한국환경건축)
- 김인석(건축연구소 일진)
- 나은택(세원건축)
- 강태석((주) 한전합동건축)
- 한종언(금성건축)
- 이경호(재일건축)
- 이영일(삼송건축)
- 정구은(삼애건축)
- 박재호(한영건축)
- 석덕재(건축연구소 중앙)
- 이성일(대흥건축)
- 박성규(합성건축)
- 오봉근(범미건축)

釜山直轄市支部

건축사 소방실무교육 실시

부산직할시지부(지부장 黃在澤)는 3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부산은행 회의실에서 97명의 회원에게 소방공무원 간부 2인을 강사로 초빙하고 건축사 소방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全羅南道支部

건축사보조원교육 실시

전라남도지부(지부장 趙春元)는 3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회원사무소 주임건축사보 1백3명에게 보조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도지부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전라남도 주택행정계장 오만영씨와 광주시 건축계장 진경선씨가 강의를 맡았다.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인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1985년을 맞이하여 각지부순례단을 신설하여 인천직할시지부를 소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본인은 인천직할시지부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하여 동분서주 하다 보니 벌써 임기말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앞으로 1년간 運營方針을 말씀드리다면 지난 1년과 같이 올해에도 회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우호를 돈독히 함은 물론 상호화합 단결하는 기반조성에 더욱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간 우리 건축사 여러분들이 일부 물지각한 업자나 인식부족한 건축주에 휘말리어 우리에게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건축사로서 성실의 의무와 전문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면서 상호간에 협동한다면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부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은 울축년 소의 해입니다. 능률한 소의 발걸음과 같이 쉬지않고 힘차게 지부발전을 위하여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성장과정

본 대한건축사협회 인천직할시지부가 설립되기 이전의 仁川은 京畿支部의 仁川分所였다. 인천개항 100주년 이전의 조그마한 포구와 같았던 바와 같이 인천분소는 몇사람 안되는 회원이 뭉쳐져 인천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다. 1965년도에 경기지부가 설립되면서 인천에 지부사무소를 두게 되었으며 1970년에는 지부사무소를 경기도청이 소재해 있는 수원으로 옮겨가게 되어 동년에 인천분소가 설치되게 되었으며 당시 朴昌俊(現第一建築) 회원이 初代分所長을 始發로해서 지금은 故人이 된 몇분의 회원이 인천건축문화의 맥을 이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인천이 인천직할시로 승격(1982. 1. 1 일) 됨에 따라 본회정관개정이 총회에서 승인되어 故 劉南烈 회원의 16명 회원의 명의로 총회소집요구를 하여 본회로부터 승인통보를 받고 1981년 11월 23일 40명의 회원이 성원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초대 지부장에는 金晶洙(現 時代建築) 회원 간사 李秉武 간사 金榮培 3명의 지부임원을 선출하게 되었고, 高昌永, 高宗旭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본회 임원승인신청을 하여 1981년 12월 18일자로 승인통보를 받아 1982년 1월 1일 건설부장관의 정관개정승인하에 본 인천직할시지부로서의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소 사업소였던 인천시 남구 송의동 161의 15에서 지부사무소로서는 대외적인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창고와 같은 사무실이었으며 비가 오는 날이면 사무소 벽체에 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흥건히 젖으리 만큼 어려운 점이 있었다. 회원이래봐야 근 40여명이었지만 회의를 개최할시는 지부사무소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금에 말하는 반상회식으로 회의를 여는 등 불미스러운 점이 많아서 인천시 남구 주안동 989-2인 현 사무소에 작으막하게나마 지부장실 및 회의실을 마련하여 1982년 1월 23일 이전해 왔다.

지부의 운영방향

현 高昌永 지부장은 전대에 못다한 일들을 이어받아 이 지역회원을 위한 사명감을 충실히 이룩하고자 크게 4가지의 방침을 세워 실천에 옮겨가고 있다.

첫째: 회원상호간의 일치단결

둘째: 대외적인 유대를 평소에 강화하여 협회의 "Image" 부각 및 회원의 권익옹호

셋째: 회원의 복리 증진 사업의 지적.

넷째: 지역사회 발전의 적극적인 참여.

사업실적

이후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인



支部長 高昌永

천직할시 청사현상 설계응모가 있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일부 회원이 설계방향 및 추진계획을 밤새 수립하여 당선은 못하였으나 우리 회원이 참여하였다는 點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인천시로 부터 정화교육 및 건축행정 실무교육 등 다수의 회와 및 교육에 참여한 실적, 건축기술향상을 위한 책자발간 전국지부에서는 최초로 건축보조원·보조사 신분증 발급 및 교관관리제도 실시, 군부대 위문을 통한 국군장병 위로, 설계도서의 질적향상과 권익옹호 및 장기적 측면에서 행정청의 심의과정을 생략키 위하여 설계도서검사제 실시 건축분야 부조리철폐대책의 일환으로 관청에서의 기초조사실시 이전의 지부 자체적 실시, 회원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여 주는 의미에서 각 회원에게 기념품 증정, 건축사보수교육에 따른 전국회원 인천방문기념품 제작, '84전국 건축설계작품전을 인천에 유치한 사항,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각급학교 건축과에 재학중인 학생중 가정이 빈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등의 사업을 역경속에 펼치었다. 동사업을 투자하기까지는 총 57,472,340원이 소요되어 이중 내용을 보면 지부집행이 17,894,410원 이 지역회원의 성금이 39,577,930원으로서 작은수의 회원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한 결과의 소산이라고 보아야겠다. 이를 인정받아 인천직할시 金鑾會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기 이르렀음은 실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지역회원으로서는 高지부장의 노고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자에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인천에서의 특이할 사항으로서는 현재 건축사법까지 입법화가 된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와 관리를 각각 달리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는 전국에서는 최초로 1983년 3월 2일부터 제도마련을 하여 시작하게 되어 전국에 확산된 밑거름이 되도록 한 업적은 인천지부의 자랑거리로 더 나아가 회원 전체의 자랑거리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인천직할시는 수도권내라는 특

수성이 있어 인천지역회원이 단합하여 정상적인 건축사의 보수를 취득하려고 온갖 뽀름을 쳐도 잘 성과가 나지 않는다. 인천은 특히 서울지부 및 경기지부가 인접되어 있어 설계비 "Dumping"의 침해가 극심하다. 매년 도서신고현황의 면적을 분석한 결과 2개 지부에서 이룩한 실적의 20%나 된다. 이중 3%정도는 서울회원에게 연고가 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잔여 17%는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Dumping"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설계비 정상화를 이룩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인천지부회원의 여망은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역불가침 제도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문제를 분협회에서 연구검토하여 제도마련의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제 인천직할시지부는 탄생한지 4돛째 접어들었다. 타지부는 청년기로 접어들었다면 인천지부는 유아기로 표현할 수 있겠다. 회원수만 살펴보다도 당시 인천직할시 인구가 120만명에 대한 39명의 회원이었고, 현재인구는 10만명이 증가한 130만명에 대한 회원수는 16명이 늘어난 55명에 이르렀다.

기타주요업무

전자에 언급한 내용의 사업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천지역 발전을 위한 성금 기탁
2. 설계도서 검사제 실시
3. 전국에서는 최초로 교체감리 실시
4. 보조원, 보조사 수첩제작
5. 건축기술 향상을 위한 책자발간
6. 연말연시 국군장병 위문
7. 거리 질서 캠페인 실시
8.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운동 전개
9. 각급학교(고교, 전문대, 대학교) 건축공학도에 대한 장학금 지급.
10. 건축사보에 대한 정화교육 및 건축행정 실무교육 실시.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2건.

12. 회원 및 건축사보간의 친목체육대회 개최

13. 회원 상호친목단합대회 개최.

14. 회원상호 친목단합을 위한 바둑·장기대회 개최

15. 건축행정 민원상담실 운영.

16. 일간지를 통한 홍보

17. 자율정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회원사무소 정비 강화

지부의 미래상

인천지부는 무언가 창의력으로 제반문제점 등을 연구개발하고자 적극적으로 약동하는 지부라 느끼게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연륜이 짧은 인천직할시지부의 그간에 이룩한 주요사업실적은 대단하다.

지부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성장속도를 본다면 타지부의 오랜세월에 비하여 급성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바로 지금부터는 성장단계의 시발점으로 서해의 관문인 인천항을 두고 연천가 국제적인 교역의 문이될 인천항도를 위하여 손색이 없는 국제적인 도시의 면모로 가꾸어 가야할 막대한 사명감을 지니고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高昌永 지부장을 위시한 전회원과 직원이 호흡을 같이하는 가슴속의 고동이 컷가에 울려 내일의 발전으로 발돋움치고 있는 생동력에 가득찬 인천지부의 영원함을 빌면서…….

현황

○위 치 :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989-2(사무실, 전세, 면적 : 50평)

支部長 高昌永

○회 원 : 55名(從前 規程에 依한 2級 建築士 9人)

○임 원 : 지부장 1명
간사 3명
감사 2명

○대의원 : 4명

○정화위원 : 5명

○직 원 : 사무국장 1명
총무과장 1명
경리 1명
서무 1명

1985年度 住宅建設綜合計劃

李 東 晟

建設部 住宅政策課長

1. 序 言

1985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부서인 건설부 및 내부부, 재무부등 관계부처의 장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주택은행 등 유관기관장 및 제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5. 2. 28.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민간주택건설사업자등이 15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이 계획은 주택현황에 대한 설명, 작년도 주택건설실적에 대한 분석 및 금년도 주요시책방향과 주택건설계획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순서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2. 住宅現況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의 핵심은 한마디로 주택의 량적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량을 나타내는 주택복지지표인 주택보급율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인구 및 주택센서스가 실시된 1980년의 71.2%에서 1984년에는 66.6%로 무려 4.6%나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매년 20만호 이상의 주택을 새로이 건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수가 매년 30만가구가상이나 늘어나는데다 노후불량주택이 많아 자연멸실되거나 도로개발, 도시정비사업시행, 주택개량 등으로 인공멸실되는 주택수도 연간 10만호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의 량적 부족

에도 불구하고 평균 주택규모는 1970년의 45m²에서 1980년에는 68m²로 증가하였고 1인당주거면적도 늘어나는 등 주거수준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주거면적에 관한 지표는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3. '84 住宅建設実績

'84년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총 222,047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상의 목표인 27만호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나 주택경기의 부진이라는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이 비교적 활발하였다는 '83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 최초로 공공주택건설목표인 11만호를 4천호 초과한 11만 4천호의 실

〈표 1〉 주택보급현상

구 분	'70	'75	'80	'84(추정)
인 구(천 인)	30,882	34,707	37,436	40,578
가 구(천가구)	5,576	6,367	7,470	8,571
주 택 수(천 호)	4,360	4,734	5,319	5,709
주 택 보 급 율(%)	78.2	74.4	71.2	66.6
도 시	55.8	56.9	56.6	
농 촌	92.6	91.8	91.7	
평균주택규모 (m ²)	45	58	68	
1인당주거면적 (m ²)	7	8	10	

주) 1. '70, '75, '80 총인구 및 주택센서스 기준

2. 84년은 추정치임.

〈표 2〉 '84 주택건설 실적

(단위: 호)

구 분		계 획	실 적	비고(%)
합 계		270,000	222,047	82.2
소 계		110,000	114,081	103.7
공공	○ 지방자치단체	50,000	45,489	91.0
	— 임대주택	2,000	1,304	65.2
	— 분양주택	17,000	13,024	76.6
	— 조합주택	22,000	20,955	95.3
	— 농촌주택	5,000	5,072	101.4
	— 재개발주택	3,000	4,062	135.4
	— 재해주택	1,000	1,072	107.2
공부	○ 주택공사	35,000	35,099	100.3
	— 임대주택	8,000	8,000	100.0
	— 분양주택	27,000	27,099	100.4
민간	○ 민간업체	25,000	24,747	99.0
	— 임대주택	5,000	2,625	52.5
	— 분양주택	20,000	22,122	110.6
	○ 기타(국가기관 등)		8,746	-
	— 임대주택	-	626	-
	— 분양주택	-	8,120	-
민간부문		160,000	107,966	67.5

적을 보였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의 주택건설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자금지원규모에 있어 '83년의 5,008억원에서 '84년에는 6,681 억원으로 30% 이상이 늘어났으며, 호당용 자금액도 '83년의 400~730 만원에서 600~750만원으로 크게 인상되었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을 일괄접수한 후 순위에 따라 용자대상자로 선정하던 것을 수시로 접수하여 요건만 맞으면 즉시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주요하여 민간주택건설사업자의 공공주택 건설실적이 '83년의 9,085호에서 26,066호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건설의 주종을 이루는 조합주택 건설이 2 만

호를 초과하였으며 서울시의 신정·목동지구개발과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도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비교적 부진하여 16만호 계획에 10만 8천호를 건설하는데 그쳤는데 그 이유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고, 택지비와 건축비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분양가격은 '81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익성이 점차 감퇴되어가고 있으며, 행정지도가격의 규모별 차등제로 85 m² 이하의 소형주택의 건설을 가피하여 주택의 대형화경향을 시험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도시에서는 여전히 구매력이 부족하여 미분양주택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교적 분양이 잘 되고 있는 주택공사와 지정업자의 경우에도 '84년 12월말 현재 1만 2천호가 미분양상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4. '85 住宅建設計劃

1983년에 수정된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금년에 공공부문에서 15만호, 민간부문에서 18만호, 도합 33만호의 주택건설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85 주택건설종합계획은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시책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공주택 건설확대

'85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주택건설물량을 '84년의 11만 4천호에서 15만호로 대폭 늘렸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래의 주택건설은 민간부문에 크게 의존하여 경기변동에 크게 좌우되었던 경향이 있었다. 즉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쓰면 부동산투기같은 사회적 병폐가 고개를 들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조치를 취하면, 주택건

〈표 3〉 주체별 건설계획

(단위: 호)

구 분	'85 계 획	'84 실 적	비교(%)
합 계	330,000	222,047	148.6
공 공 부 문	150,000	114,081	131.5
국 민 주 택	142,000	105,335	134.8
지방자치단체	52,000	45,489	114.3
대한주택공사	45,000	35,099	128.2
민 간 업 체	45,000	24,747	181.8
기 타 (국가기관등)	8,000	8,746	91.5
민 간 부 문	180,000	107,966	166.7

〈표 4〉 유형별 건설계획(공공부문)

(단위: 호)

구 분	'85 계 획	'84 실 적	비교(%)
합 계	150,000	114,081	131.5
국 민 주 택	142,000	105,335	134.8
임 대 주 택	21,000	11,929	176.0
분 양 주 택	86,000	62,245	138.2
조 합 주 택	19,000	20,955	90.7
농 촌 주 택	7,000	5,072	138.0
재 개 발 주 택	7,000	4,062	172.3
재 해 주 택	2,000	1,072	186.6
기 타	8,000	8,746	91.5
임 대 주 택	-	626	-
분 양 주 택	-	8,120	-

〈표 5〉 지역별 건설계획(공공부문)

(단위: 호)

구 분	'85 계 획	'84 실 적	비교(%)
합 계	150,000	114,081	
서울	23,000	27,671	83.1
부산	11,000	8,400	130.9
대구	8,000	5,405	148.0
인천	13,000	8,387	155.0
경기	48,000	28,820	166.5
강원	9,000	4,635	194.2
충북	5,000	3,928	127.3
충남	7,000	5,595	125.1
전북	5,000	3,298	151.6
전남	6,000	4,771	125.8
경북	5,000	4,155	120.3
경남	9,000	8,238	109.2
제주	1,000	778	128.5

설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기변동과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량의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공공부분의 주택건설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85년 주택건설계획을 사업주체별, 유형별,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표3>, <표4> 및 <표5>와 같다.

나. 국민주택기금의 확대운동

공공주택 건설물량이 11만 4천호에서 15만호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지원규모를 '84년의 6,700억원에서 '85년에는 7,520억원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를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건설사업에 7,200억원이 지원되고 대지조성사업에 300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이 중 주택건설자금은 지방자치단체에 5만 2천호분 2,830억원, 대한주택공사에 4만 5천호분 2,510억원, 그리고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4만 5천호분 1,880억원이 지원되고 가타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8천호분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리고 호당용자기준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호당용자기준은 평균액에 있어서는 대체로 작년과 비슷하나 소형주택건설수대원칙에 입각하여 55m²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한 용자금은 늘어난 반면에 56m² 이상의 중형주택에 대한 용자금은 줄어들었다.

임대주택에 대한 용자금은 임대주택건설촉진시책에 따라 '84년에 평균 68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용자한도액도 '84년의 75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다. 소형주택 중점건설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택지확보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는 더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정된 국토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우

리가 처하고 있는 심각한 주택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주택규모의 적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부문에서는 50m² 이하의 무주택서민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주택규모별 건설계획을 작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55m² 이하의 주택이 28.9%에 해당하는 30,652호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66.5%에 해당하는 94,500호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66m² 이상의

<표6> 국민주택기금 용자기준

구 분	호당용자액(천원)		이율 (년, %)	상환기간	비 고
	'85계획	'84실적			
○임 대 주 택			5	5년거치 15년 상환	(용자금한도) · 지방 - 8,500천원 - 8,500천 원 - 주택가의 75%이내
-지 자 체	7,500	6,700			
-주 공	5,500	7,500			
-민 간 업 체	7,500	6,800			
○분양및조합주택			10	1년거치 19년 상환	· 주택가의 75%이내
-23~ 45m ²	6,500	5,680			
-46~ 55m ²	6,000	5,860			
-56~ 66m ²	5,500	7,500			
-67~ 80m ²	5,000	6,000			
○재 개 발 주 택	분양주택과 동일	5,000	10	"	
○농 촌 주 택	2,500	2,112	10	5년거치 15년 상환	
○대 양 열 주 택	3,000+규모 ×250	3,000+규모 ×200	10	1년거치 19년 상환	
○원 호 주 택	(분양주택과 동일)		4	"	
○재 해 주 택	(재해복구 부담기준에 의함)		10	"	
○대 지 조 성	총사업비범위에 서 건설부장관 이 별도로 정함.	"좌등"	10	기금운용 상황 을 감안, 건설 부장관이 정함	

<표7> 규모별 건설계획(공공부문)

(단위: 호)

구 분	'85 계 획		'84 실 적		비 고 (%)
합 계	150,000		114,081		131.5
국 민 주 택	142,000	100.0	105,335	100.0	134.8
23 - 45m ² (10 평 형)	43,500	30.6	7,607	7.2	571.8
46 - 55m ² (15 평 형)	51,000	35.9	23,045	21.9	221.3
56 - 66m ² (18 평 형)	33,000	23.3	50,601	48.0	65.2
67 - 80m ² (22 평 형)	14,500	10.2	24,082	22.9	60.2
※ 평균규모(평)	14.88		18.50		
기 타 (국 가 기 관)	8,000		8,746		91.5

주택은 가급적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5m² 이하의 소형주택의 용자금액은 인상되고 55m²를 초과하는 중형주택에 대한 용자금은 하향조정되었는데 규모별 용자기준은<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라. 임대주택제도의 정착화

1980년대에 들어 무주택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택에 대한 관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제도는 그간 각종 지원책이 마련되고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건설물량도 '82년에는 3,917호에 불과하던 것이, '83년에는 6,709호로, '84년에는 12,555호로 크게 증가하였다.

금년에도 임대주택건설은 주택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중시될 것이며, 건설호수에 있어서도

<표 8> 임대주택건설실적 및 계획

구 분	'84	'85계획	대 비
계	12,555호	21,000	167%
지 자 체	1,304	6,000	460
주 공	8,000	10,000	125
민 간	3,251	5,000	154

<표 9> '85 임대주택지 공급계획
단위: 평

지 구 명	토 지 구 분	공급계획 면 적
계	-	174,200
부산 대대 1	테라스하우스용지	20,000
부산 화명	공동주택지	6,000
울산 옥동	아파트용지	11,000
송탄 서정	"	21,000
태백 황지	연립및 단독주택용지	6,000
청주 운천	아파트용지	15,000
대전 내동	공동주택지	1,700
대전 중촌	"	9,100
대전 중리	"	8,900
전주 효자	아파트용지	12,800
광주 두암	"	1,800
광주 우산	공동주택지	6,000
광주 봉선, 방림	"	6,900
대구 월배	"	16,000
진주 가좌	연립주택용지	4,000
김해 내동	아파트용지	28,00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5 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목표인 1만 7천호보다 4천호를 늘린 2만 1천호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세출예산에 120억원을 계상하여 주택공사의 임대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년리 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의 국민주택기금 용자한도액도 호당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임대주택건설용지로 174,200평을<표 9>와 같이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임대기간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의 건설호수도 '84년의 1,000호에서 4,000호로 늘리기로 하였다.

마. 민간주택건설촉진

무주택서민용 소형공공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우선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요택지를 가급적 자체개발하여 충당하도록 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하는 택지는 민간주택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불량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용자액을 '84년의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재개발지역주민과 민간건설업체의 합동개발방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주거지의 이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찻투리 땅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에 건축법을 개정하여 지하충설치요건과 이격거리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금년에는 그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개정을 통하여 자연녹지지역과 주거전용지역에도 건축을 허용하고 외부계단 설치시 그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전폐울산정방법을 달리하며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1970년대 이후 공동주택 건설이 증

가함에 따라 1984년말현재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은 전체의 16%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지역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34%를 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한 대책이 당면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부는 노후시설을 적기에 대체함으로써 항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공동생활의식을 계고시키기 위하여 작년에「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이를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및 질향상

에너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는 시급한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사무실, 목욕탕, 병원 등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배치계획, 단열성, 냉난방, 폐열회수장치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였고, 온돌시공방법을 개선하여 열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태양열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당 용자액을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고 전폐울산정에 있어 가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자재의 국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자재의 보급을 확대하고 규격자재의 사용의무화대상품목을 65종에서 75종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리고 도시중산층용 설계지침도의 작성·보급에 있어서도 '84년에는 단독주택을 위주로 하던 것을 '85년에는 다세대주택을 위주로 하였다.

그 외에도 표준시방서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공건물 이외에 공동주택도 추가시켰으며 주공의 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축기술개발을 촉진하는등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忙中閑의 空想

김영덕
(주)한진합동건축



건축사법이 개정되어 곧 실시될 시행령에는 '3인 이상의 소속 건축사를 책임건축사로 정하여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여야만 모든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행할 수 있다' 한다. 몇몇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2인으로 하라, 이젠 또 3인으로 하라, 이거 숫자맞추기 하는거냐?"

"왜 이렇게 건축사들을 덜덜 복는지 모르겠다." C선배의 말씀이다. "이젠 면허 따도 아무도 같이 하겠다는 사람없으면 종합으로 개업도 못하겠구먼" 심지어 "힘들게 학교다니며 계획원론, 각종 배움 필요없어, 건축법규만 제대로 배우면 다 나와 있어, 법규가 최소한의 규정이라지만, 이걸 최대한의 규정 아니야?" 이거 막 나가시는게 아닌가? 좌우간 우선 반발이다.

새로운 PROJECT를 수주 받고 몇날 몇일을 고민에 쌓여 계획안을 작성해 나가다 보면 꼭 건축법규에 걸려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을 것이다. '500m² 이상에서 1,000m² 미만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문구는 왜 그렇게 아리송한지? 주차대수는 꼭 1대가 많겠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주차대수 5.9는 5대로 간주하더니 올해에는 5.1이라도 6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리저리 당(?)하고 경륜이 쌓여가면 자연히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묘법도 터득하게 되나보다.

누구나 고심하여 꿈게 다듬었던 제 나름대로의 작품이 단 몇분동안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분노를 느낄 것이고, 그 판결이 졸속으로 인한 오판이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숨쉬고 행동하는 살아 있는 건축이

경직된 법규해석으로 싸늘하게 식어갈 때에는 허탈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건축법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짤 수 없나? 각 구청마다 한대씩 비치하여 허가서를 집어만 넣으면 허가여부가 판단되게..." 이래저래 그런 경험으로 건축사들은 법규라면 두드러기가 생기고, 규제라면 가부를 논하기 전에 거부감부터 생겨 화를내나보다.

건축사법이 시행된지도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시대의 자율의 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타율과 규제속에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가?

종합 사무소로 체제를 갖추라고 하면 그렇게들 싫어하는것은 우리의 업무활동에서 건축법이 창작의 방해요소(?)라는 어불성설의 비굴한 콤플렉스 때문만은 아닐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대중의 인식 속에 '종이장사'나 '설계업자'로 비쳐져 항변 한마디 못하고 쓴 웃음만 지어야만 하는가?

그동안 슬하게 많은 건축인들의 離合集散을 보아왔다. 잘해보자고 개업식을 하고는 얼마안가 헤어지는 辨은 '예술감각이 맞지 않아서'이지만, 수주해오는 일량의 감소와 적음에 따른 불화때문은 아닌지? 같이 밀고 당기고 끌어내야 하는 체제속에서 누구는 열심히하는데 누구는 논다는 식의 성실성의 결여때문은 아닌가?

특혜를 받은 건축사를 포함하여 1년에 몇백명씩의 건축사가 배출되고 있다.

몇달씩이나 업무전폐하고 산에 들어간다, 학원에 다닌다하여 공부하여 시험을 치고, 면허를 땀다하면 서둘

러 개업을 한다. 면허라고 개업하고 큼직한 재개발빌딩이나 아파트 설계한件하면 今時發福하는가? 사용자및 입주자들은 그렇게 지어진 구획 속에서 생활을 맞추는 불편을 겪지는 않는지?

건축사 면허는 취득하기만 하면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만능면허인지? 건축사誌 개업회원들의 사진을 보면서 축하의 넘보다, 막막한 기분이 드는것은 경쟁자가 많아진다는 불안 때문만은 아닐것이다.

'어차피 십년후 쯤이면 헐려질지도 모를 건물인데 무얼 그렇게 고심하나?'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지 않은가?

'땅 가진 사람은 빨리 지어야지 이익이다. 날이 갈수록 모든 규제는 까다로와 지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주를 설득하는것은 잘못된인가?

이제 바쁘게 하던 걸음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않을까?

"우리 아예 마음맞는 건축사 10명쯤 묶어서 종합사무실 차리면 어떨까?"

"그래 도심지는 시끄럽고 임대료도 비싼데 조용한 변두리로 나가서 각자 조금씩 보태서 빌딩하나 짓지..."

"10명 이 보태면 하나 지을수있지. 각자 독립채산체로 직원 6~7명 정도의 사무실로 구획하여 쓰지. 사무실도 크게 벌려놓으니깐 경영, 관리하느라고 작품에는 손도못대"

"1층은 가구점이나 건축자재 전시장으로 임대놓아 임대료로 관리비나 보태고"

"지하실에는 일마치고 술한잔 해야하니깐 분위기 좋은 카페나 할사람 있으면 세놓고"

"청사진, 복사가게 하나 따로 떼어주면 할사람 있을거야"

“그럼, 위생, 난방 전기 사무실, 구조계산하는 사무실도 있어야지”

“컴퓨터 한대 들여놓아야하지?”

“10개 사무실 공동으로 상해도, 일 위대가표, 시방서 등을 표준으로 작성해 놓으면 실시설계시 부담도 줄게되고”

“자료실도 공동운영하면 도서관 입도 줄게될거고”

“모형실도 구비하고, 비데오도 설치하여 현장출장하여 대지분석하여

주면, 건축주도 신빙성 있어 할거야”

“이렇게 자려놓으면 또 무슨일이 생겨 티격태격 하지 않을까?”

“어차피 사람사는세상 말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 의논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지”

“그래 어차피 한세상 나와서 건축하게 됐으니 작품 하나는 남겨야지?”

“제도판 위에서 죽을 각오는 해

야지”

건축인의 집/영세성의 원인이되는 제반요소를 최대한 줄여 부담없이 재기넘치는 직원들과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만 있다면... 주위의 동료 건축사와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작품을 평가하면서 한잔 기울일 수 있는집. 반드시 공상만의 세계일까?

이정도 단체면 건축허가서쯤은 공문으로 발송해도 처리 되겠지?

현상 설계를 하면서...

윤 태 수
남부합동건축



일간지를 펼쳐든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것이 직업외식에서 이겠지만 부동산 광고란으로 눈길이 간다. 분양광고, 부동산매각광고, 공사입찰광고, 한 구석에 게재된 현상 설계광고...가위로 상륙 자른다.

스크랩북에 첩하면서 응모 충동을 느낀다. 광고를 보는 순간부터 입시생의 응시절차를 연상케 할 정도로 흥분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을 대충잡고 기초 조사를 하면서 책상앞에 선다. 참고 서적을 들춰이면서도 건축대가(?) 입신을 위해 희생할 줄리리 건축사가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머리속에 낙선후 고개 떨구고 후회하는 많은 건축사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남나들기 때문이다.

응모등록을 마치고 현장설명장소에 도달한다. 꼭 매워찬 자가용 대열을 보고 그래도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는다. 이제 건축사들도 부유해졌음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현장설명을 경청하는 응모자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공사입찰 현장 설명시 역군들처럼... 하지만 설명서와 기초자료는 당연히

무료제공 되어야 할터이지만 자료대부터 건축사들의 주머니를 텅다.

현장사진을 찍고, 목록을 하고, 주위현황 조사를 마치면서 건축사의 긍지보다는 서글픔이 또 한번 든다. 조형공간 창조 예술인 이라고 자처하는 건축사가 입선내지는 현상금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과연 국전에도 이처럼 많은 응모자가 모일런지? 직업이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겠지만...하지만 서글픈 생각은 잠시뿐 기대를 걸고 노력해 보자고 결심한다.

응모준비 과정으로 건축사보들의 실력을 배양시키는 훈련자료로서는 충분한 사안이기에 때문이다. 도서관으로, 관계부처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에게 자문을 받기 위하여, 동문서주 하다보면 지칠대로 지친다. 제도판의 전등을 점등하고 다가 앉아 구상을 하다 구기기를 몇번이고 하고나면 기본안이 정리된다. 현대적인 감각과 적정 공간으로서 예술적 입면을 구상한다고 법석을 떨다보면 납품기일에 쫓기게 된다. 인쇄작업이 완료된 후에 납품준비를 하면서부터 이제에는 어떤 선

배분들의 도마위에 올려져 심판을 받을 것인가 부터 궁금해진다.

통상 답답하게 공고되는 것이 “심사위원 추후발표와 결과는 개별통지함”이란 대목이다. 확실한 입선보장도 없이 작품을 출품하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어떤 경우엔 심사위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심사날자도 지연되는데 과연 한개의 하찮은 작품 일망정 성의를 갖고 평가에 임하느라 지연되는 것인지...충분한 시간, 평가 기준등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 감각적으로 하는것은 아닐까? 사전에 입선자가 정해진 것은 아닐까? 명예와 부를 함께 얻으려는 우리 건축사들의 욕심으로 현상응모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현 사회에서 과연 건축사를 예술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일까? 의심스럽다.

몇날이 지난후 성의없게 타이핑한 공문에 협조 해주고 관심을 주어 고맙다는 절박한 결과 통지서와 당선자 없음이란 내용을 받고보면 기대는 산산조각이나고 어깨는 축 늘어진다. 연례행사가 한번 끝난 것이다. 예정된 결과를 가지고 설계용역 계약의 합리성을 객관화 하고자 현상공모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길 애써바라면서 둘러리가 아니고 내 작품이 진실하고 공정하게 평가 받았으리라 믿으니 그래도 건축사의 긍지를 꺾버리지 않은상 싶다.



外部環境設計

—바닥표면—

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 造景學科教授

실내의 공간구성은 벽과 천정이라는 요소에 의해 한정되며, 그 공간의 이용이 대부분 살아 움직이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설계되어지지만, 외부공간의 바닥은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면서 다양한 이용과 주변의 환경을 연관지어 경험할 수 있게한다. 예로 부터 도시민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이거나 도시민이 보행하는 공간은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바닥으로부터 직접적인 감흥을 느껴왔다. 인간은 습한 곳보다는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요즈음은 바닥의 재료 뿐 만 아니라 처리에 있어 기능적인 역할은 물론 시각적인 질 뿐 만 아니라 촉각적인 감흥까지 주려고 노력하는것 같다. 같은 폭으로 조성된 공간도 바닥의 패턴·재료·색과 질감등의 다양성으로 이용인의 느낌을 변화시킬수도 있다(그림-1).

1. 바닥포장의 기능

바닥재료나 높이의 변화는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지만, 다양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제공되어진다. 그러나 다양성은 이용의 어떤 요소나 이용에 대해 상호 보완되어야만 한다. 표면이 바닥포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하는 보행인이나 차량등이 요구되는 하중에 견딜수 있는 재료와 시공, 미끄럼으로 부터 방지와 위험 장소의 인식을 위해 재료의 선택과 마감의 처리로 안전을 유지시킬수 있어야 한다. 바닥포장의 패턴이나 재료의 색등의 변화를 줌으로써 도시민의 공간이용에 따라 휴식할 수 있거나 방향을 지시하고, 활동을 발생시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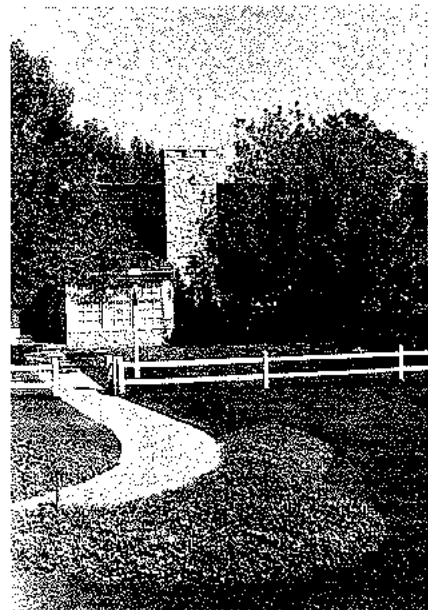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에 사용되는 재료가 경질인가 연질인가에 따라 그 장소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제한시킬수도 있다. 연질표면의 장소에서는 사람의 이용률 제한에 따른 위락적인 기능 부여가 이루어져야하며, 경질의 장소에서는 이용률이 빈번한 행태가 일어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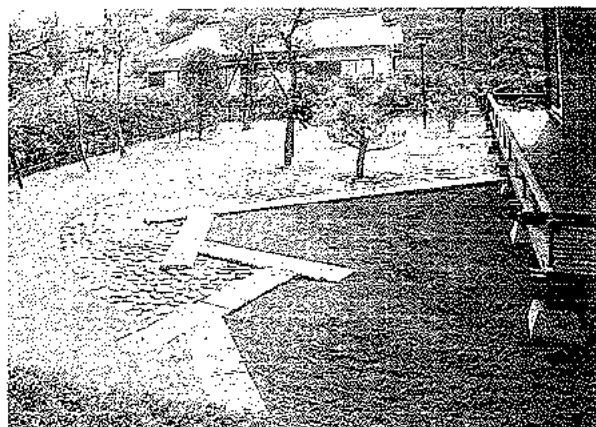
도시개발에 의해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재료·패턴·색 및 고저하에 의해 건물의 소유의식을 도로에 나타냄과 아울러, 건물과의 연결을 강조하고, 도시의 다른 건물과 하나의 통일체를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 재료의 선택

외부공간의 기능이 결정되면 유용한 재료중에서 이용자의 빈도나 상태에 따라 견고성·내구성이나 보수 유

(그림-1) 같은 폭의 경질의 포장면





(그림 - 2) 다양한 재료로 처리된 외부공간

지면에서 저렴하며 시설했을 당시보다 시일이 경과된 후에 풍화나 색적으로 색이나 질감의 변화에 대한 고려와 소음의 발생과 빛의 반사로 이용인에게 공간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시각적인 질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그림-2).

가장 일반적이고, 저렴한 경질의 포장재료는 아스팔트일 것이다. 이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및 좁은 공간까지 포장할 수 있으며, 액체성 재료이기 때문에 쉽사리 어떤 형태도 만들 수 있다. 액성재료로서 자갈도 비교적 저렴한 재료이지만, 사람이 이동하기에는 적합한 재료가 되지 못한다. 이것은 강자갈부터 롱자갈까지 크기가 다양하며, 시공방법에 따라 밀실되고 경질의 표면을 만들 수 있다. 가장 좋은 이용은 이동하는 물체가 없는 지역에 사용하면 강우를 표면에서 쉽게 처리시킬 수 있으며, 지표면을 정리

하는데 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어떤 형태로 든지 만들수 있는 다른 액성의 재료는 아스팔트보다 많은 비용이 들지만 질에 있어서 우수한 재료는 콘크리트이다. 온도의 변화, 포장 두께나 시공시에 보강되어지는 시공방법에 따라 신축줄눈(expansion joint)의 조절에 의해 시각적인 패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이 신축줄눈에 다른 재료를 삽입시키므로 다른 시각적인 경험을 줄 수 있다. 또 다른 재료와 섞어 표면을 마감하는 상태와 표면 처리에 따라 질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성제품을 이용하면 질감이나 패턴·색등의 변화성을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 지표처리할 수 있는 식물을 이용하면 자연과 조화된 표면을 만들 수 있다. 주차장과 같은 넓은 장소는 격자형태의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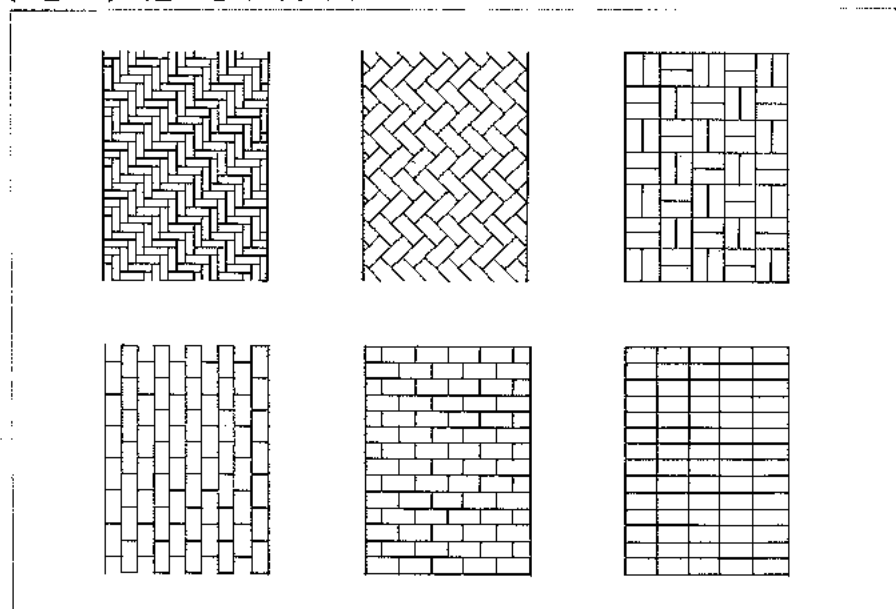
하여 격자사이에 잔디를 심으면, 잔디의 답압에 약한 점을 보완해 주면서, 많은 주차공간이 비어있을때에 공허함을 시각적인 감흥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러한 기성제품의 사용은 포장 면적의 형태와 단(端)의 처리에 영향을 받게 된다.

벽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전통적인 패턴의 조합에 따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그림-3). 시공도 모래다짐을 한 후에 까는 방법과 몰탈의 사용에 의하여 갈아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표면은 재료나 시공면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패턴에 따라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휴식의 장소를 지정하는데 좋은 느낌을 주는 대신에 추운 겨울에 벽돌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보수하는 일이 자주 생기지 않도록 시공에 주의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벽돌과 유사한 크기에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것이 많이 생산되어 기능과 시각적인 변화를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자연석의 절단에 의한 포장은 가장 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나 특수한 장소에서 사용되지만, 다른 재료에 비해 수명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높은 도시광장이나 도로와 같이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많이 사용된다. 표면처리, 크기 조절 및 돌의 선택에 따른 색 조절에 의하여 다양성을 창조할 수 있다.

목재는 돌과 같이 정원적인 분위기를 만들수 있는 재료이다. 목재의 사용은 선박의 갑판에서 기능적인 용도가 나와 테라스의 설치와 같이 다른 물질과 접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목재는 다른 재료와의 연결부분에 주의를 해야하고, 외부에서는 썩

(그림 - 3) 벽돌 포장의 각양각색



을 염려때문에 방부처리를 잘 하여야 한다. 목재 토막은 벽돌과 같은 기성 제품의 사용 대응으로 질감과 무늬의 미묘함으로 이용되며, 효과는 질감이 부드러워 매력적이지만 수명이 한정되어있는 것이 단점이다. 쓰다버린 칩목은 방부처리가 잘 되어있으므로 미국에서는 바닥재료로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잔다도 표면재료가 될 수 있지만, 시공하기 위한 지반 조성과 정규적인 관리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반면에, 자연적인 지면을 조성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질감을 제공하므로, 가끔 이용하는 장소나 위락적인 공간에 사용된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한정시키기 위해 경질의 다른 재료와 면하는 곳에 자파식물을 이용하여 질감의 변화와 형태의 다양성을 줄 수도 있다.

모래도 또 하나의 재료로서 사용되지만 특수하게 어린이의 위락적인 요소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이나, 모래를 한 곳에 담아두어야 하기때문에 단(端)처리가 문제가 된다.

3. 바닥의 설계

바닥을 설계하기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은 수직적인 요소에 대해 연속적인 분위기를 이끌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수평적인 재료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일이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물과 구조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재료에 의한 통일체를 조성할 것인지, 혹은 구조물과 아주 상이한 재료와 색에 의해 공간의 일체감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직적인 구조물과 접하는 곳에 자연적인 재료와 연결시

킬 경우에 정돈된 처리를 위해서는 관리의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잔디와 콘크리트 벽면이 접하는 곳에는 손에 의한 관리를 하던 별문제가 없겠지만 장비를 사용하는 종류를 생각해서 그 능력을 고려해야한다.

바닥표면의 재료에 따른 형태와 재료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단(端)처리도 선적인 요소를 강조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정한 규격의 포장재료를 사용할 때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나 스스로 형태를 갖추수 없는 재료는 마무리를 잘하여 재료가 서로 연결되는 곳에 상호 어울리게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적인 재료와 규격을 가진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자연적인 재료가 경질의 재료로 넘쳐오게 함으로 연결의 재료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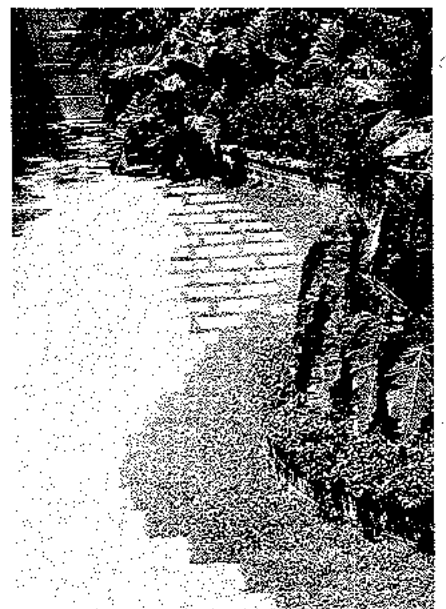
질감이나 색깔에 따른 재료의 변화로 위험에 대한 경고와 영역성을 지시할 수 있다. 보행교차로나 교통수단이 상충되는 지역은 표면의 색이나 질감으로 시각이나 촉각으로 주의를 요하게 할 수 있으며, 재료의 선택 즉 경질의 재료는 속도를 빠르게 하고 연결의 재료는 보다 유연하게 걸을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영역을 구분시켜 줄 수 있다. 높이의 변화로 보행 경험을 다양하게 시키기 위한 계단도 답면은 어두운 색으로 측면은 밝은 색으로 처리한다면 물리적인 형태를 강조함과 동시에 시각적인 모호성을 배제시켜 주의를 환기시킬수 있다.

재료의 크기에 따른 축척관계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작고 동일한 크기로 구성된 바닥은 인간축척과 관계를

갖으므로 섬세한 감을 주게된다. 인간이 인식하는 패턴은 크다거나 작거나 혹은 단순하다거나 섬세하다는 것으로 표현되므로, 인식된 모양이 주위의 건물과 관련지어 크면 클수록 패턴안의 단위 크기는 인간의 경험과 관련되어 더 작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액성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포장두께와 보강하는 상태에 따르지만 단위 크기를 조정하여 주위환경과 어울리게 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공간의 바닥에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검사·출입을 할 수 있는 시설물과 배수를 위한 집수장치나 지하상가나 지하철의 공기 순환을 위한 환기 시설등이 바닥에 설치된다. 이러한 시설물도 공간의 표정을 결정하므로 위치와 형태에 주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비가 온 다음에 물이 포장면에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할 경우는 문제가 없겠으

(그림-4) 상호 이질적인 재료의 사용



나, 전성시공법 즉 모래다짐 위에 규격화된 포장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모래층을 두텁게하여 배수를 고려해야 한다. 경질의 재료나 습식시공법에 의해 포장을 할 때는 집수장치를 위해 경사면을 일정하게 하여 정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닥 높이의 변화는 보행인의 경험에 새로운 질을 줄 수 있다. 높이 차이를 구획지우는 것은 웅벽이나 웅벽 대신에 미를 증진시키기 위한 식수대를 조성하는 일이 많다. 웅벽은 뒷면에 수압이나 토압에 견딜수있는 기초와 재료사용 그리고 배수를 위한 시설을 하면 되지만, 웅벽역할을 겸한 식수대 설치의 식재를 하여야 하므로 수목의 생육을 고려한 깊이나 폭(수목재료에서 토양의 생육 깊이에 관해 참조)과 배수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높이의 차이를 연결하는 시설물로는 계단과 경사로가 있다.

교차로에서 자동차와의 분리를 주기

위한 지하계단이나 육교는 단순히 이동이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계단함에서는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건물 전면에 설치되는 계단은 건물에 대한 품위를 높여주는가 하면, 건물의 내부공간과 도시공간과의 전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계단은 수직적인 이동이 주요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앉아서 도시민의 이동하는 표정을 관찰 할 수 있는 곳이며, 담화를 나눌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며, 하나의 공개된 무대가 될 수도 있으며, 계단을 오르 내리면서 주위 환경과의 새로운 연출을 구사할 수 있는 장소이다.

육내계단의 설치와는 달리 육외계단은 담면(tread)과 측면(riser)에 높이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측면의 두배와 담면의 합이 60~65cm로 하여 측면과 담면의 비례를 정하며, 측면은 육내계단보다 낮은 12~15cm를 정하는 것이 보행인에게 무리가 없다. 경사면이 긴 경우에는 담면을 넓게하여야 하는데 사람의 보폭을 고려하여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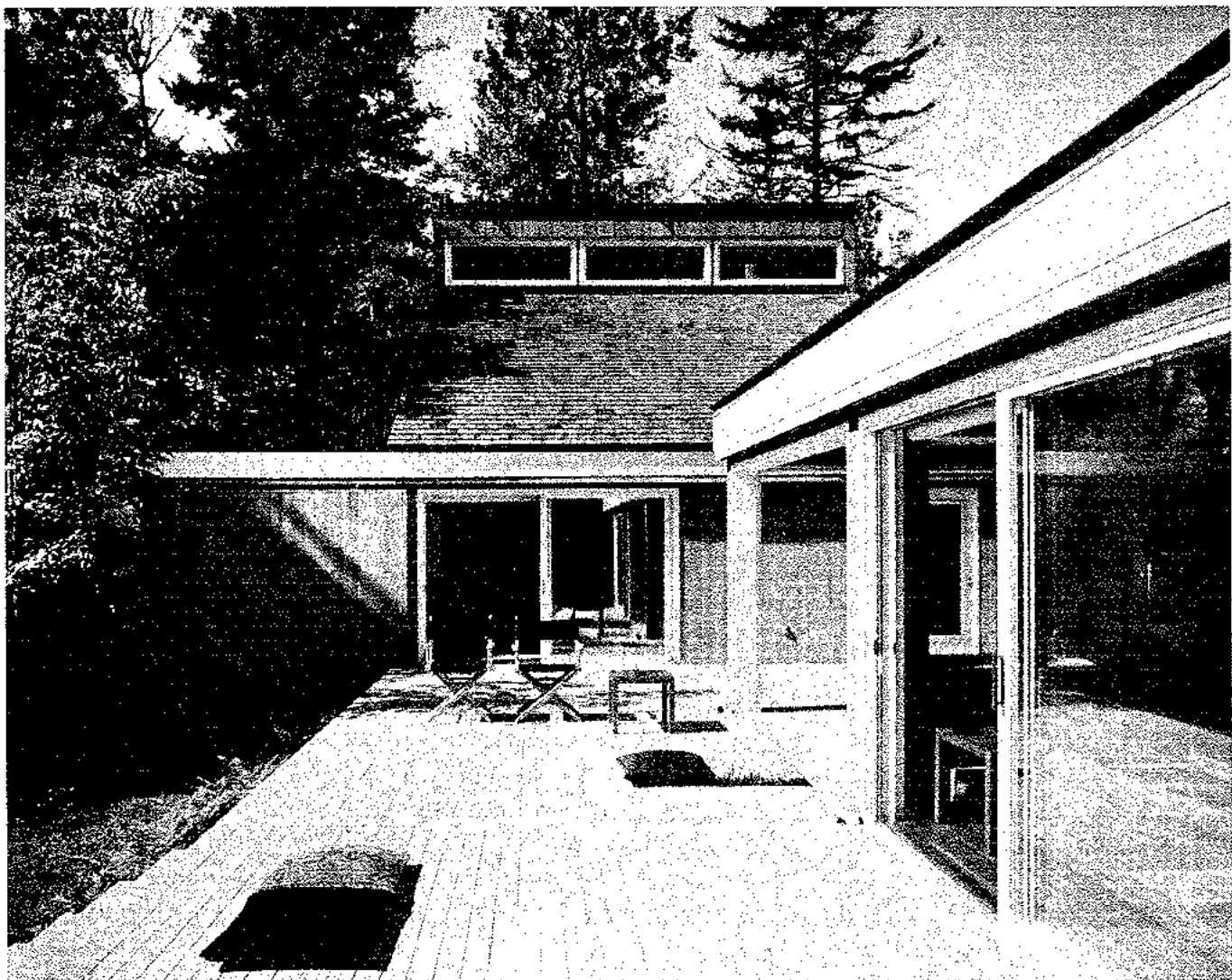
은 발이 계속 측면을 밟고 올라가면 계단을 오르는 감흥을 잃기가 쉽다. 또 높이의 차이가 적어 두개의 측면만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면 보행인에게 잘 인식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3개의 측면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외부공간은 정상인만의 전용물이 아니므로 보차도의 분리를 위한 연석의 설치를 할때도 고려를 하여야한다. 수직적인 이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는 면적을 더 필요로 하지만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자를 위한 경사로의 구배는 장애가 스스로 바뀌달린 의자(wheelchair)를 사용할 경우에 최대 경사는 1:20(5%)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1:12(8.3%)이다. 경사면이 길 경우는 적어도 9m 마다 참을 두어야하며, 경사의 방향이 바뀌는 곳에 최소 1.2m의 참을 설치하여야한다.

우리 주위에 시각의 감흥을 고려하고 기능을 위주로 자연석을 배석(配石)하는 것에 디딤돌이 있다. 연결의 재료인 잔디등을 사용할 때 잔디의 답압에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람의 이용이 많은 통로에 발걸음 폭으로 배치하는 방법으로 통나무를 커서 재료로 이용하는 수도 있다. 배석하는 방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을 그리며 놓는 수법인 직선타(直線打)는 수법이 단조롭고, 이용면에서 불안한 균형을 갖게하지만, 새가 걸어진 발자국 모양으로 어긋나게 배석하는 천조타(千鳥打)수법과 놓는 돌의 수에 따라 이연타(二連打)·삼연타(三連打)·이삼연타(二·三連打)·사삼연타(四·三連打)등이 있어 자연미를 돋우는 수법으로 배석하면 되겠다(그림-5).

[그림 - 5] 디딤돌의 이용으로 시각의 만족과 기능을 충족시킨 일본정원





주택의 옥외생활공간

趙 聖 烈

큐빅디자인연구소 대표

주택의 발코니는 실내공간의 연장 부분으로서 준 실내로 간주된다. 실내와 근접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옥외공간인 발코니는 인테리어적 개념의 범주 안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건축에서 발코니를 설치하게 되는 목적은 실내주거의 옥외연결을 위해서이다.

실내공간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대기권과 접하게 되는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기능적이면서도 정서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나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현대건축이 내세울 수 있는 것중의 하나는 실내와 옥외의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게 계획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축의 개방계획으로 생활영역의 확장을 의미한다.

발코니나 테라스는 정원내의 하나의 구축물인 동시에 실내의 연장으로서 정원을 연결하는 간접생활 시설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이용범위는 비교적 넓은 것이다. 실내의 생활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를 접하며 외부의 풍경을 관찰할 뿐 아니라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나 손님들과 환담을 하는 장소로 이용될 수 있다. 또 거실과 식당 등의 기능을 테라스에 연장시키기도 하여 테라스는 실로 보전과 실용을 겸한 주택의 옥외 생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발코니의 위치는 반드시 실내공간과 근접된 공간이어야 한다.

발코니는 대개의 경우 2층 이상의 다층건축에 설치하게 된다. 1층의 경우에는 지면과 격리되어 실내바닥에 가깝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대기와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발코니는 2층 이상의 주택에서는 휴식 공간으로, 병원이나 호텔같은 공 건물에서는 비업무용 공간으로 계획, 설치되고 있다. 주택의 발코니는 옥외생활이 시작되는 곳, 조망이 좋은 실내

의 창, 뜰로 연결되는 작업공간 등에 설치한다. 발코니는 캔틸레버로 지지되어 있는 바닥부분과 난간, 치마로 구성된다. 그것은 건축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옥외공간의 기능과 정서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장독대, 빨래 너는곳, 옥외창고로서의 기능과 함께 산책공간, 화초가 있는 뜰로서의 역할도 하는 곳이다. 발코니의 정서생활 공간의 가치가 함께 현대적 공간기능의 의미를 잘 적용시켜야 한다. 집합주택의 경우 발코니의 기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도시주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는 유일한 옥외공간 역할을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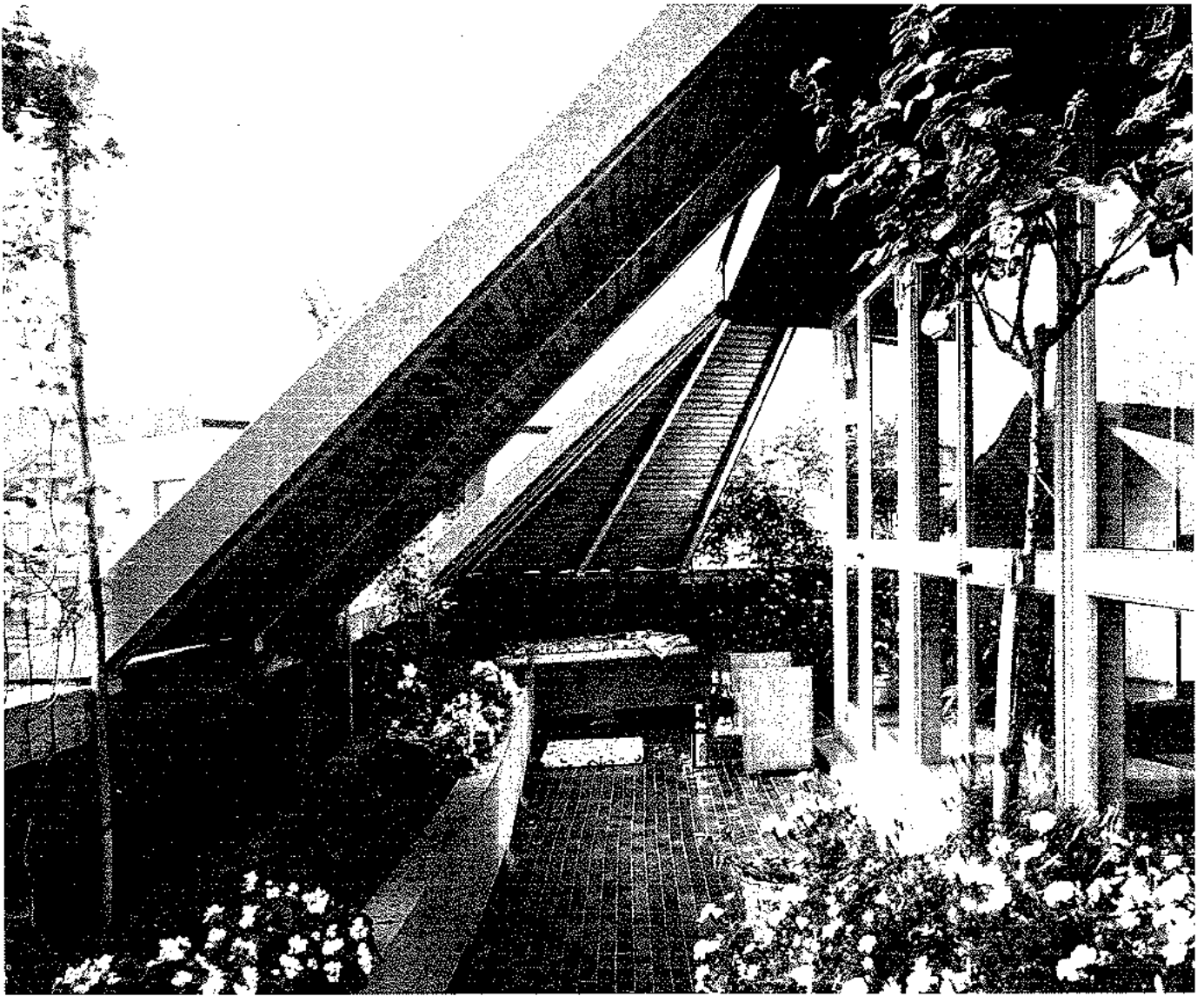
아파트 발코니의 조경은 전체 단지의 경관이자 단위 아파트의 자연환경 조성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발코니의 조경은 발코니 영공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연립주택의 발코니는 아파트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합주택 중에서도 연립주택은 가구의 독립성이 더 생기며 옥외공간도 넓게 책정되는 경향이다. 집합주택에서 옥외생활을 위한 발코니나 테라스가 넓게 책정되는 것은 큰 매력 아닐 수 없다. 연립주택은 그런 점에 착안하여 계단형으로 독립가구 형성이 되게 배치하고 있으며 그것은 양면으로 대칭시키기도 하고 사방으로 교차배치를 시키기도 한다. 연립주택의 발코니에서 항상 따르는 문제는 나란히 배치되는 발코니의 가구별 독립성의 유지이다. 그것을 위해서 흔히 높은 간막이 담을 돌출시켜 양쪽으로 막힌 절벽을 보며 옥외생활을 하게 한다. 발코니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며 그것을 보기 좋은 경관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발코니의 경계부분은 조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건축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나온 선이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따라 막히지않는 반개방형 조정공간이 생기면 더욱 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도시주택의 옥상에 조성되는 뜰은 훌륭한 기능을 발휘한다. 주택의 상층부나 옥상에 휴식기능의 설치는 다음 몇가지에 착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첫째 윤곽선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한다. 실내공간과 이어진 실외의 휴식 공간에의 지나친 치장과 구조물의 설치의 오히려 짜증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는것이다. 옥상의 뜰 바닥은 기본적으로 딱딱한 재료를 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로 촉감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타일 종류나 목재, 벽돌, 고무, 인조잔디 등이 쓰이게된다.

둘째 방수와 급배수 설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 조경관리와 청결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간단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세제는 옥상정원 연출이다. 키가 큰 수목은 가리개와 병풍의 역할이 될 수 있게 배치하고 낮은 수목은 무리를 이루게 배치하여 실내공간과 연관된 전망이 될 수 있게 구성한다. 옥외공간 생활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휴식일 것이다. 따라서 옥외가구의 필수적인 요소는 안락이다.

옥외공간에 가구를 설치할때 유의할 점은 가구로 인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점이다.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가구는 가벼워야 한다. 내습, 내구력이 있는 청결관리가 용이하며 이동이 편리한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있어서 옥외 휴식공간의 규모는 표준치를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테라스나 발코니, 데크, 등의 기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소면적에서 부터 규모가 설정되어질 근거를 갖게 될 것이다.

테라스의 평면구성을 살펴보면 실내와의 출입구,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 난간의 형성, 바닥의 형성으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지며 테이블과 거기에 의자등 간단한 가구가 자리하게 된다.

평면구성에 따른 테라스의 최소면적은 6㎡ (2m × 3m) 에서 12㎡ (4m ×

3m) 사이는 되어야 하며 적정크기는 24㎡ (4m × 6m) 에서 40.5㎡ (4.5m × 9m) 는 되어야 한다.

실내에서 조망되는 옥외공간은 어떠한 분위기가 있어야한다.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테에 방치되어 흐트러진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거환경에서는 전망, 경관, 비율을 중요시하고 있다. 인간이 환경에서 체험하는 시각적 경험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발전된다. 우리의 눈에 비치는 시각적 환경은 늘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므로 그것은 조형적으로 뛰어난 경관이어야 한다.

기능적인 실내공간과 무한적인 것 자연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자연 환경 공간과의 연계성, 실내의 옥외공간 개념의 특성을 띤 휴식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창조와 향유를 지향함은 더없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생활의정취를 느끼게하는 것이다.



한국주택 오늘의 실태

朱 鍾 元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1. 서 론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주택이 공존하고 있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단독주택도 목조로 된 한옥, 벽돌이나 돌로 지어진 현대식주택(양옥)이 있으며 아직도 읍지로나 충무로 등의 지역에 남아 있는 일본식주택이 있고, 연립주택도 그 종류가 고급스러운 것은 “빌라”로 불리우고 있으며, 아래 윗층을 별개의 가구가 거주하며 뜰을 공유하는것, 아래 윗층을 한 가구가 사용하며 각기의 정원을 소유하는것 등이 있다. 또한 아파트도 고층아파트, 중층아파트, 저층아파트로 구분하기도 하고 맨션이라고 부르는 호화아파트와 서민아파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필자가 주택의 실태를 보고 느낀바대로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나누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2. 단독주택

많은 사람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기를 바라고 있고 고래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주택의 형태는 “고래 같은 청기와 집으로 동쪽 때문에 남향”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아직도 극소수의 부호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형태의 주택을 짓기 위하여 훌륭한 건축가에게 의뢰하여 비교적 합당한 집을 짓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주택규모가 그 가족수나 용도와 무관하게 가구의 위신을 위하여 커

지는일이 없도록 각방의 용도와 기능을 생각하며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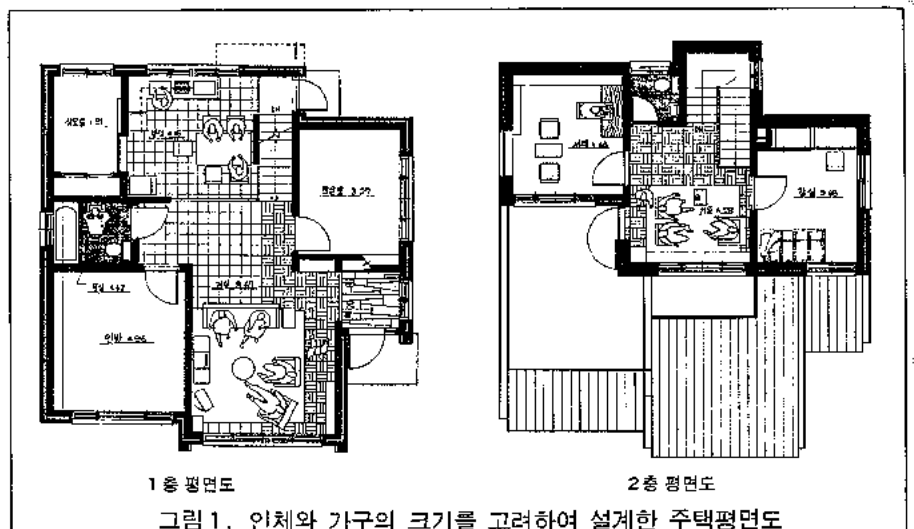
근래에 와서는 아들이나 딸중에서 부모와 같이 살기 위하여 아래 윗층을 따로 사용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가구중에는 2층이나 기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는 소위 다세대 거주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도 적극 권장하여야 된다고 본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첫째로 미니 2층이라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실과 앞뜰과의 높이 차이가 생겨서 공간 분리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다.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주택에서는 뜰과 대청과는 높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 공간이 직접 연결되며 창대 높이도 낮아서 뜰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나 근래의 경향은 창틀이 높아져서 앉아서는 뜰을 내다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그림 2, 그림 3 참조)

그리고 근래 세워진 주택중에 지붕 형태를 프랑스식 또는 스페인식이라고 하며 이상한 모양을 한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 전해진 것이라 생각되며 그와 같은 유행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지붕모양이 처마 부분에서 꺾어지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림4, 그림5 참조)

또한 대문이 주택에 비해서 유난히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론 주택규모가 작음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요란스러운 장식으로 주택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은 유감이다. (그림6 참조)

그림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한옥에서는 그 모양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문이 주택의 일부로 취급된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식 주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한옥에서도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림8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택에 여러가지의 다른 재료로서 일면을 복잡하게 처리하므로써 같은 집이라도 적게 보이며 조잡해보이는데 비해 작은 집이라도 적은 재료로 잘 처리하면 집의 모양이 커보이고 아름답게 되는 것은 그림9에서 보는바와 같다.

3. 연립주택

단독주택은 공동관리를 하기가 어렵

고 아파트에서는 가구마다 소유하는 정원이 없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립주택의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각기의 정원이 있으면서도 주택을 공동 관리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가 연립주택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연립주택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규모가 작은 서민을 위하여 마련되는 것이라는 인상이 너무도 깊게 우리의 머리 속에 새겨졌다. 그래서 연립주택의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요새 와서는 저층아파트가 연립주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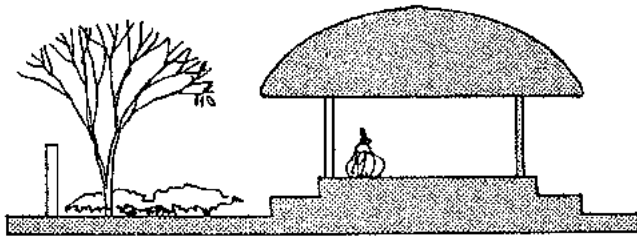


그림 2 전통적인 한옥(한옥에서는 뜰과 대청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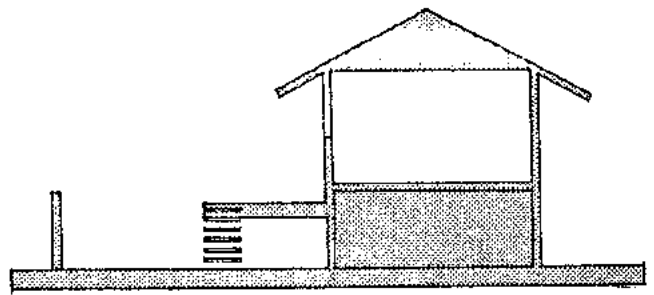


그림 3 근래 지어지고 있는 주택(뜰과 거실을 미니 2층이라는 이름으로 격리시키고 있다)



그림 4 근래 지어진 주택의 지붕-1



그림 5 근래 지어진 주택의 지붕-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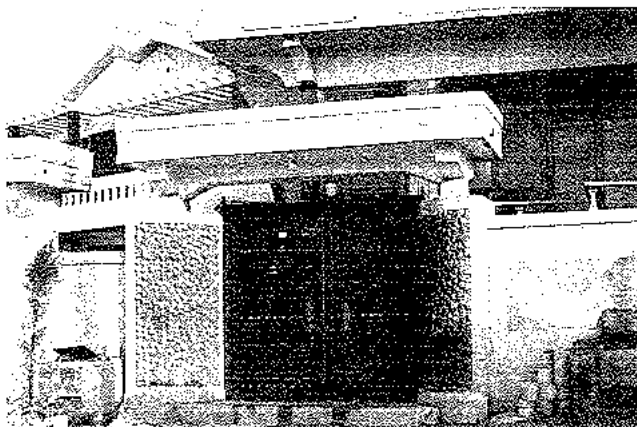


그림 6 유난히 크고 이상하게 장식된 주택



그림 7 전통한옥의 아름다운 모습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연립주택의 인식을 좋게하기 위하여 “빌라”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기도 하는데 비교적 바람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것은 다행한 일이다(그림 10 참조)

그러나 아직도 인동간격이 좁고 주택 평면에서도 거실이 좁아서 통로의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연립주택을 흔히 볼수 있다. 즉, 아직도 연립주택이라고하면 저소득층이 사는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주거환경이라고할 수 없는 것이 세워지는

것은 유감스럽다.

연립주택은 저질의 주택도 아니고 부호들이 사는 “빌라”의 유형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다만 각기의 정원을 가지면서도 공동관리하며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거형태인 것이다.

이제는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를 구별하여 연립주택 본연의 모습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기존주택단지 주변에는 아직도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대지가 있는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곳에 기존

주택과 잘 어울리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기존환경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동주택

우리나라의 토지가 넓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라고 생각된다. 즉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주택문제를 완화해 보고자하던 1960년대까지와는 다르게 1970년대에 와



그림 8 복잡한 입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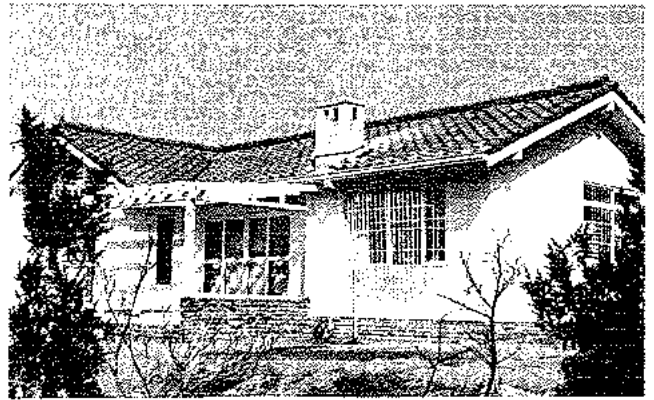


그림 9 단순한 입면처리



그림 10 바람직한 연립주택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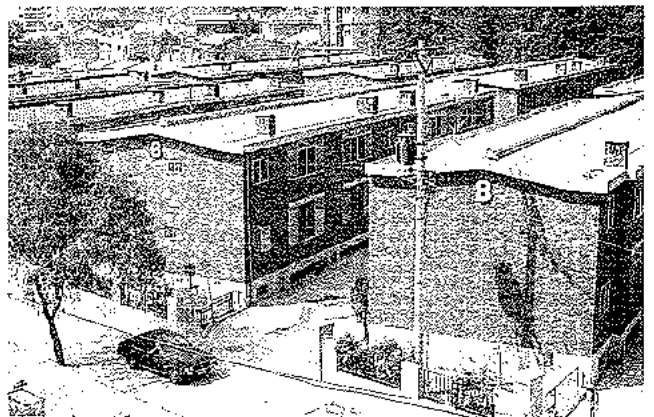


그림 11 바람직하지 못한 연립주택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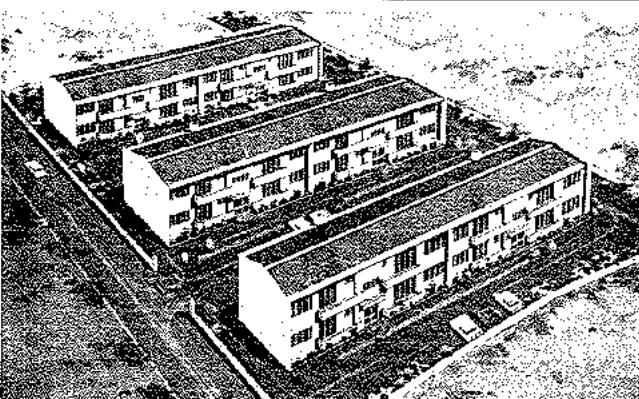


그림 12 바람직하지 못한 단지(이것은 연립주택이 아니라 저층아파트임)



그림 13 인간적 척도를 지닌 연립주택



그림14 5층아파트(인간적 척도를 느낄 수 있고 주민의 활동이 활발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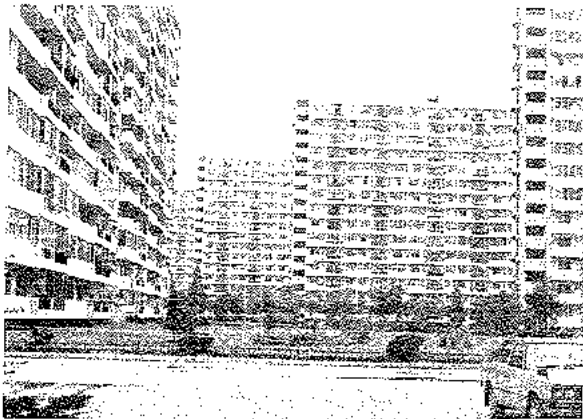


그림15 10층 이상의 아파트(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을 실감할 수 있고 주민들의 옥외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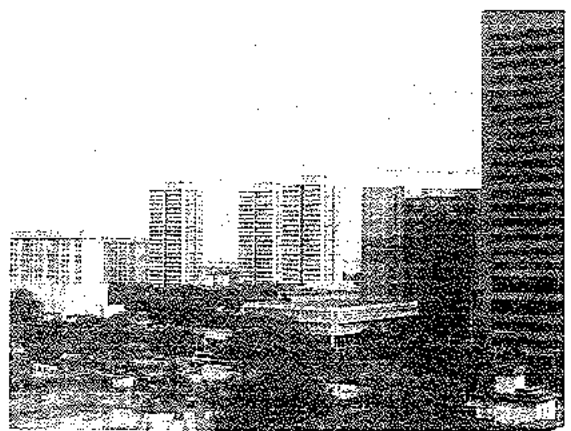


그림16 저층과 고층이 조화된 단지(싱가포르의 예)



그림17 고층아파트로 메워진 단지

서는 아파트 건축이 성행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가정부를 고용하기 힘들게 되고 주부들의 활동이 활발해진 데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것 같다.

1970년대초에는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적척도의 범위인 5층 정도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나 그 후 반부터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목표아래 그림1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고층아파트 일색의 단지가 형성되면서 비인간적인 주택환경이 조성되었다.

앞으로는 20층 내지 25층 정도로 초고층화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불쾌 비인간적인 주거환경이 확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층과 저층아파트를 서로 상충되지 않은 범위에서 혼합배치함으로써 비인간화되어 가는 환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폴에서는 고층아파트가 지어지

고 있으나 그림16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층으로 건축할 지역과 저층으로 지을지역을 구분하여 고층화로 인하여 비인간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단지가 고층아파트로 채워질때 숨이 막히는듯한 비인간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아파트설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국적인 정취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림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층아파트 지붕을 콘크리트로 하면서도 기와지붕 모양으로 한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비례감이나 재질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콘크리트에 푸른색이나 붉은색의 페인트를 칠한 것은 더욱 보기가 역겹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설계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그 아파트에 어울리는 형태가 연구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근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단독주택의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데 부주택자나 새로 가정을 꾸미

는 가구는 단독주택의 전세방으로 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독주택의 수는 낮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도 전세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두 가구가 실림하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경우가 많다. 앞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설계하는데 있어서는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원수가 변화함에 따라 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와 같은 것은 적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도 내벽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주택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파트에는 각기의 들이 없는 것이 단점인데 가능한 한 발코니의 폭을 넓혀서 미니정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극복할수 있고 지하실은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는 장소나 청소년들이 간단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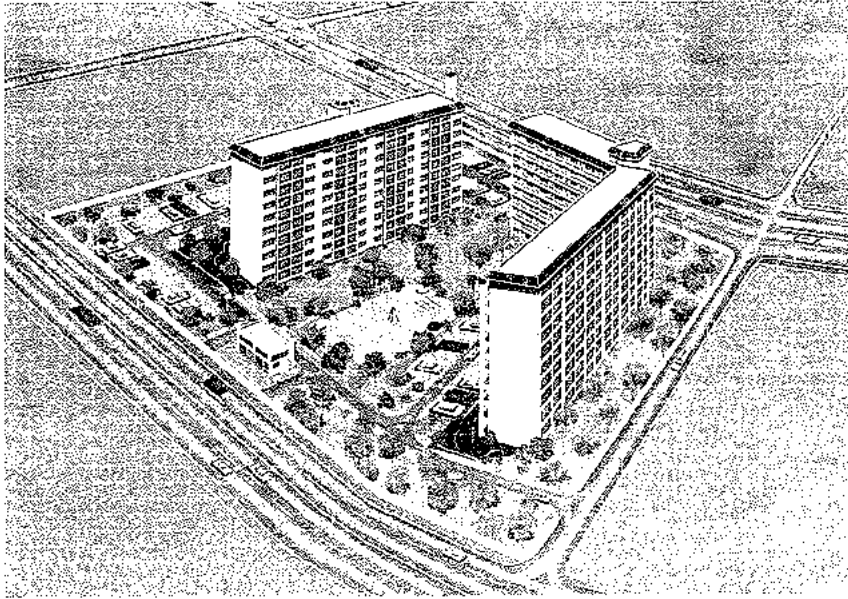


그림18 아파트의 지붕처리(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 시해 했으나 그것은 받아 들여지기 힘든 천한것이 되는수가 일수이다)

圖 蔣東燦 APT. 1차 33평형 (전용 24.984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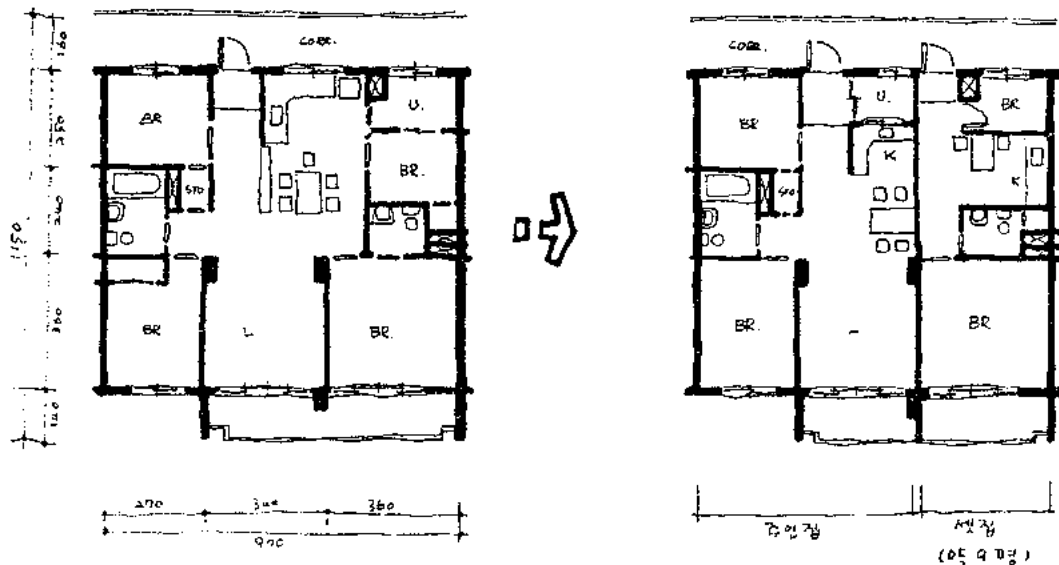


그림19 내벽의 변경이 가능한 아파트

한다고 생각된다.

그외에 아파트의 소음문제, 쓰레기의 악취문제, 주차장문제, 난방, 상하수도관및 엘리베이터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와 같은 사항도 건축가가 설계할때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필자가 우리나라 주택의 실태에 대하여 보고 느낀대로 적어 보았는데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견해에 의한 것

이다.

주택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어서 각기의 견해가 다를 수 있겠으나 어느 공감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때 국민의 문화에 바탕을 둔 건전한 주택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의식구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주택의 모습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것을 관찰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건축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解法 構造力學
蔣東燦 著

技文堂 發行
743-2421~2423
값 8,500 원

自我反省

엄태웅

京逸建築研究所(水原)代表

자아반성이란 말 자체의 뉘앙스(Nuance)가 어두움에서 밝을 것이라는 기대와 전망이고 좀 현대적 감각이 아닌 용어이니 자칫 뉘그러나 푸념으로 이어질듯 싶어 망설여 진다.

지난 2월 20일 경인가 밤 황금시간에 코미디 출동인가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가 비록 코메디 프로일 망정 한숨이 저절로 나와 스윗치를 꺼 버린 적이 있다.

내용은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이 친척인데 찾아가 복수일은 자기를 서켜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고 창유리에는 건축 설계 시공감리라고 써 있었다.

스윗치를 끄면서 속으로 작가를 무식한 친구 저 보고 고물 텔레비전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필적 뛰겠지 하고 쓴 웃음을 지었다.

물론 부탁하는 목수의 잘못된 인식과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의 실수도 있겠으나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수공이 가는 점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남만 탓 할수도 없겠다.

현실적으로 볼 때 150 평 이하는 직영할 수도 있고 건축사 직영공사도 간혹 있고 감리업무도 있으니 그러한 망발이 노출될 수도 있겠다고 하겠으나 이번 기회에 많지는 않지만 建築設計事務所 창에 붙어 있는 건축 설계 시공 관리 심지어는 허가 수속이라는 文句까지 자세하게 分類 廣告하는데 이것도 잘 傳達이 되지 않음에 해서인지 짙은 색 바탕에 백발로

視覺的인 效果까지 돌우고 있어 자아반성을 하여야겠다.

우리가 資本主義社會이고 自由競爭體裁에서 고객에 대하여 自身의 力量을 과시하고 고객에 說得의 效果가 있는지 몰라도 알맹이 없는 겉데기만의 商品陳列이 아닌지 너털웃음이 나오고 만다.

창유리나 입구에 시공이라는 單語가 심지어 許可手續이라는 파잉 친절 서비스의 애교스런(흥물스럽고 배알이 없는) 美辭薦句도 아닌 自己專下의 용어를 얼굴에 붙여야만 하느니 自省해 보고 싶다.

또 그러한 文句들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그렇게 찾아온 建築主가 어떠한 인물일 것인지 명약관화 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건축주 일수록 그 횡포가 울화를 돌올 것이며 채시장의 배추금보듯이 이사무실 저 사무실 둘러 점점 싸게 하는 식으로 설계료를 깎으려 할 것이며 중간 중간 다방에 둘러 종업원들에 적은 선심쯤 쓰고 사장님 소리 몇번 듣고 만면의 자만의 웃음을 띄우고 개선장군처럼 둘러 본 건축주가 아닌 “건축呪”일 것이니 이렇게 건축을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친절해야 하며(?) 이러한 것은 건축 문화暢達이 아닌 건축문화 瘡達이 될 것이다.

드라마 작가가 철저한 코메디 작가이기 때문에 건축설계사무소의 치부

를 꼬집어 깊이 있게 웃기려는 의도였다면 그는 천부적인 희극 작가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할 자도 모른다.

또 다양한 간판을 걸은 事務所가 일괄수주방식의 專門業體라면 그렇게 표방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더욱 사무소 간판보다도 더 큰 글씨로 表記하는 것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제발하는 기원하는 자세로 서게 된다.

이번 建築士法 改定에 ○○○ 建築設計事務所라고 현판하게 되어 있다니 변호사도 그렇고 변리사도 그렇게 표기하니 건축사도 그렇게 해야한다는 單純한 追從이 아닌 내 이름 걸고 땀땀이 本分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併行되어야겠다.

옛말에 “家足以庇雨, 衣足以蔽身, 食足以充腸”(집은 비를 막으면 되고 옷은 몸을 가리면 되고 음식은 배를 채우면 된다)라고 했듯이 過慾이 없고 本分을 지키면 Dumping도 분쟁도 없을 것이며 윗글대로 옛선비의 世事超克의 精神은 아니더라도 체면을 유지하고 동료 사회의 潮流에 同參하는 자세를 갖추면 지위는 고양되고 正常的의 風土는 造成될 것이다.

先進國처럼 1년의 3~4개 Project로 생활의 곤혹을 느끼지 않은 風土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해야겠다.

청탁 한번 불신받고 청탁 두번 파멸온다



卞 珍 義

서양화가 한양대학교 강사

아파트 구조에 대한 助言

상 파울로는 참으로 거대한 도시다. 언뜻 보기에 어수선한 감이 있지만 유럽에서처럼 문화적 우월성으로 소박한 동양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아 살기에 마음이 편한 도시다.

주소만 보여주면 어느곳이 됐든 택시 운전사가 집을 찾아 줄 수 있는 도시의 구조라든가 슈퍼마켓이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동네마다 대규모 시장(오전장)이 서서 싱싱하고 찬 야채와 과일, 생선등을 구입할수 있는 점, 지하철 역마다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힘없는 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상당히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곳이다.

더구나 대도시임에도 아파트구하기가 쉽고 임대료도 싸며, 그 내부 구조와 관리가 잘되어 있어서 사소한 불만과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혼후 줄곧 개인주택에서만 살다가 일년 반 정도 상 파울로에 가 있게 되어서야 처음으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돌아 와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그곳과 이곳의 아파트들을 비교하게 되는 바, 이곳의 아파트들의 형태와 재료의 획일성은 지나친 감이 들며, 정말 얼마큼 주민을 위해 설계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건설회사나 건설주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해 근시안적인 설계를 유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건축가들의 발랄한 창의성이 부족한 때문이었을까? 대개의 아파트들은 그 입구부터 답답하고 조잡한 인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비좁고 어둡하며 건조한 분위기의 입구는 사람을 정답게 맞이하고 보내는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상 파울로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 다녀 보았는데 한결같이 입구에서 기분 좋게, 밝게 사람

을 맞아 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아파트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이처럼 상반된 느낌을 갖게될까 생각해 보았다.

아파트의 일층은 살기에 여러모로 불리하고 적합치 못한 공간이라고 생각된다. 그 일층을 주민 전체를 위한 모임의 장소, 간편한 실내운동, 휴식 장소로 설계되고 제공할 수는 왜 없었을까?

구획지고 단조로운 아파트 생활이기에 더욱 누구나, 주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 오픈 스페이스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피곤한 기분으로 돌아와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 집으로 쫓 올라가 버리는 것보다 아파트 일층이 공동의 거실로 잘 꾸며져 있다면, 엘리베이터 옆에 폭신한 의자가 있고 카펫이 깔려 있다면 아마 누구든 잠시 쉬었다 올라갈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간에 자연스럽게 얼굴도 익히게 되고 서먹한 이웃은 없어짐은 물론 공동체의 유대감도 생길 것이다.

브라질에는 어떤 아파트이거나 일층의 공간은 화초를 드리우고 그림을 걸고 안락한 쇼파를 배치한 주민전체를 위한 응접실로 아늑하게 꾸며져있다. 그래서 밖에서 돌아올때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쉬며 얘기도 서로하고 또 집에까지 모실 필요가 없는 낯선 방문객도 만나며 유용하게 모두가 이용한다. 일층 공간이 응접실을 꾸미고도 남는 곳은 주민이 모여 파티를 열수있는 방이며, 탁구대가 있는 아이들 놀이방도 있고 작으나마 마당 한구석에 수영장도 있어서 주민마다 내집이라고 이름지은 공간외에도 우리 모두의 공간이 있어서 아파트 생활의 답답함을 덜어 준은 물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을 갖게 해준다 하

겠다.

도시의 인심이 사납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각박하게 사는 것은 대도시 공통의 현상이다.

한지붕 아래 살면서 좀처럼 이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람을 쉽게 사귀지 못하는 성격나름의 탓도 있겠지만, 마음을 터 놓고 만나 웃고 애가할 공동의 모임도, 모임 장소도 없는 환경탓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장소가 있으면 사람은 모인다. 모이면 대화가 이어지고 자연히 이웃간의 보이지 않는 담이 허물어 질 것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인사도 없게 될 것이다.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만은 아니라 생각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것이 없지 않은가 살아 있는 사람들은 꿈을 갖는다.

건축가의 크나큰 꿈과 이상이 예술을 이끌어 나갔었다. 꿈과 이상을 실현시킨 도시, 우리는 거기에 살고 싶다.

언제나 예술사를 통해 새로운 이념으로 다른 조형예술의 선봉에 섰던 건축, 비좁은 현대 도시공간에서 수직의 위용으로 대지와 인간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 내부 공간에서만은 인간을 위한, 인간을 풀어주는 자세로 임했으면 싶다.

거의 브라질 전역을 돌아 보면서 건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느꼈지만 대지와 인간과 화합한 브라질리아 카테드랄성당은 경이로왔다.

투명하고 해맑은, 단순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창출해 낸 그 효과는 내게 있어서는 천상적 신비를 지상에 구현시킨 고딕적 이념을 뛰어 넘은 것이라 생각되었다.

삶을 위한 도시공간이 되었으면...

이 두 식

홍익대학교수(서양화)



우리가 흔히 건물이라 함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그밖의 다른 목적으로 지어 놓은 집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먼 옛날 동굴에서 부터 시작되어 온 우리의 거주지는 오늘에 와서 몇 십층이 넘는 높은 빌딩으로까지 발전되어 왔다.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을 찾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결국 오늘의 과학문명을 만들었고 오늘의 즐비한 고층 빌딩까지 세우게 되었다. 물론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외관만이 아닌 실내 공간까지 세밀하고도 과학적이고 역학적인 측면까지 신경을 써서 설계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기에 건축가가 있고 대학에서도 건축과가 있어 전문인을 양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에 노력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편안함과 편리함 만이 우리네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매일을 보낸 회색빛 건물에서 검은 아스팔트로 이어지는 생활환경을 쉽게 벗어 날 수가 없다. 높다 높은 빌딩 사이에 갇혀진 기분을 결코 떨치지 못한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젖혀야 하늘이 겨우 보이고 검은빛 아니면 회색빛이 주로된 빌딩의 벽에 우리의 시선은 갈곳이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녹색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더욱 더 도시의 색깔은 무채색일 수 밖에 없다. 좁은 땅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하늘과 가까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라도서도 아니요, 주차시설도 못갖출 정도의 협소한 공간에 녹색의 꽃나무를 심을 수는 없지않냐는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몇가지 아쉬운 것은 몇몇 지역에서 라도 스카이라인을 의무적으로 낮춘다든가, 도심 한가운데 침잠되고 있는 대기업 빌딩과 호텔등을 그대로

인가해 주는 도시행정애의 불만이다. 그에 따른 교통체증과 매연의 문제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테니까 말이다.

요즘은 건축법이 다소 바뀌어 건물 설계비의 몇 퍼센트인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조각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진것이 무척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 역시 형식적인 눈가림이 되어선 안될 것이다. 전문적인 미술가를 통하지 않고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여러가지 편법이 무척 성해질 우려가 있어 좁은 공간에서나마 우리의 슬통을 뿔출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까 두렵다. 도시 마관에 있어 또 하나의 큰 아쉬움은 색채의 빈곤이랄 수 있겠다. 옛부터 우리의 눈은 몇몇 제한된 색상에만 익숙해져 밝고 호화로운 색깔에는 왠지 모르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년에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도시벽을 아름다운 색깔로 장식하는 슈퍼·그래피가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 표징 없는 도시에 생기가 더해감은 물론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우리를 무척 편하게 하며 편한것은 참 좋은 것이라 믿고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고 또 늘 대하는 건축물도 이렇듯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우리 눈에 와 닿을 수는 없는것일까? 검은 회색빛으로 일관된 건물의 그 거대한 몸체가 우리 눈을 위협하는 청포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인가? 떠오르는 해와 지는 해를 볼 수 없을 자라도 밝은 하늘만이라도 볼 수 없을까? 가장 합리적인 건축물은 어떠한 것일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축행정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인간」에 대한 고려가 더욱 더 있길 바랄 뿐이

다. 인간을 위한 공간이 인간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것이 과도기적 발전을 해왔기에 이제 정말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위한 일을 해야 할 때 인것 같다. 우리의 거주 공간이나 건물도 이제는 단지 의, 식, 주의 해결 공간이 아닌 가치있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간이길 바래 본다.

建築計劃名論
鄭求榮 共著
崔榮培

建友社發行
값 15,000 원

병원 공기조화 설비의 비용

孫 章 烈

漢陽大學校 建築工學科, 工學博士

1. 개 설

오늘날의 병원건축에서 설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상당한 건설공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병원의 경비지출에서도 건축 설비에 관계되는 비용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건축 설비에 관계되는 비용을 유효하게 사용하는 것은 병원의 합리적인 경영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일반적인 건축 설비의 기본적인 목표는 궁극적으로 쾌적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며 무리하게 비용절감에만 중점을 두다보면 기본적인 목표의 하나인 쾌적환경의 도달이 어려워 지게 되므로 병원건축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설비계획에 역점을 두어 환경유지와 비용절감이라는 양면성을 지닌 목표를 합리적인 설계 및 시공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병원 건축설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공기조화설비의 비용에 관하여 서술하고 병실의 공조방식에 따른 비용을 시산 검토한다.

2. 병원의 공기조화설비

건축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건물 내·외부의 물리적 요소와 미적 요소 즉 외단·구조·설비·재료·시공등의 각 분야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한다.

공기조화설비는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 공간의 열과 공기에 관한 물리적 요소를 취급하여 환경공학적인 입장에서 실내를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공기조화의 역사는 그다지 오래지 않으나 현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과 환경오염, 건축의 밀집·고층화로 쾌적한 인공환경의 창출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시대의 건축시설에서 공기조화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는 건축에서 소극적으로 취급되었던 쾌적환경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사회적인 여러가지 여건의 변

화를 감안하면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특히 병원은 기능상 가장 위생적이어야 하는 건물이므로 공기조화설비의 요구도가 높은 건물이다. 병원 공기조화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병원내의 공기를 깨끗이 하여 건물내에서의 감염을 감소시킨다.

② 쾌적한 공기조건(온·습도, 기류)을 만들어 의사, 간호원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환자에게도 쾌적한 치료환경을 형성한다.

③ 수술실, 신생아실, 미열아실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알맞는 온·습도 조건을 제공한다.

④ 전자현미경, 전자계산기 그밖의 고급의료기기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알맞는 온·습도 조건을 제공한다.

⑤ 검사실등에서는 그곳에서 발생하는 악성가스를 없애고 또한 악성 미생물로부터 관계인원을 보호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기청정이 필요하며 공기청정을 위해서는 고급필터(Filter)와 다량의 풍량을 필요로 하므로 재래설비에 비하여 초기투자가 증가한다. 따라서 예산제한을 받는 일반 병원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 공조설비의 비용

공조설비의 비용은 고정비(Annual fixed charges)와 운전비(Annual operating costs)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 비용은 설비등급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병원공조설비 등급은 병원의 위치, 운영방식, 환자의 요구도, 전망등을 고려하여 건물계획시에 최적의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설비 고정비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경비를 경상비라 하며 따라서 설비비는 일반적으로 건축시에 일괄하여 지출되는 것이므로 경상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설비를 무시하고 공조설비의 경제성을 논할 수는 없다. 설비비도 상각년수를 정하면 매년의 비용을 환산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설비 고정비라고 하

며 여기에는 냉동기나 펌프등과 같은 주체설비의 상각비외에 이것의 설치에 필요한 공간의 건축비도 포함된다. 설비 고정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 ① 설비비와 열부하는 상관성이 있다.
- ② 설비기기의 내구년수에 관계한다(표 2).
- ③ 상각법, 잔존가액의 산정방법을 확립한다.
- ④ 물가지수를 고려한다.

공조기기의 내구년수

1. 보일러	15년
2. 방열기	10년
3. 강 관	10년
4. 동 관	20년
5. 밸브류	5년
6. 송풍기	15년
7. 자동권취구 휠타	8년
8. 공기선정기	10년
9. 냉각코일-동관	10년
10. 전기동기-교류	15년
- 직류	12년
11. 패키지 공조기	10년
12. 공기압식자동제어기기	10년
13. 전기식자동제어기기	8년
14. 아연철판 덕트	20년
15. 덕트 보온	10년
16. 도 장	2년
17. 냉동기(터보, 급수식)	15년
18. 왕복식 냉동기	10년
19. 냉각탑	10년
20. 증발식 냉각탑	10년

2) 운영경비의 절감

공조설비의 운전경비 절감방안으로 에너지 절약대책과 운전관리의 능률화로 나눌수 있다.

운전관리의 능률화의 면에서는 병원의 증개수, 설비기능의 Grade up 등 시설면의 복잡 고도화와 함께 관리업무도 양적, 질적으로 증대되고 필요인원과 배치의 합리화, 직장내 교육훈련 등에 의한 관리의 능률화, 성력화는 병원 운영 관리상의 큰 과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그 해결은 병원 경영자의 자세와 시설 기술 담당책임자의 방침이나 대응실행력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인 운전관리 사이클을 예시

하면 그림 1 과 같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장분석으로부터 문제점의 파악과 문제 개선책의 입안방법이며 얼마나 성력화가 가능한가를 검토하여 해결의 방안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림 2는 관리 방법에 따라 설비기기의 효율과 시스템의 수명이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4. 병실 공조방식의 비교

병실 공조를 다음 a. b 두 종류의 대표적인 공조방식에 대하여 설비비, 건축비, 운전비를 사산을 통하여 비교검토한다.

- a. 사변풍량방식(VAV 방식)이며 전열교환기를 사용하는 전외기방식채용.
- b. 펜 코일 유닛(Fan coil unit) + 외기조절방식에 의한 실내 유닛방식(F.C+OA방식).

공조방식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용과 관계가 되는 ④, ⑤, ⑥ 항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 ① 각실별 온습도제어.
- ② 청정도
- ③ 보수 관리
- ④ 설비비 · 건축비
- ⑤ 운전비
- ⑥ 설비 공간

1) 설비비 · 건축비

a. VAV방식에 의한 설비비

공조기기류

공조기	5 대
롤 휠타	5 대
백 휠타	5 대
전열교환기	5 대
배기 펜	5 대

소계 59,800,000원

덕트 공사

취출구	60개
흡입구	60개
덕 트	2,265m ²
VAV 장치	60대
소계	45,200,000원

배관공사

배관류	285m
제어밸브장치	10조
소계	4,007,500원

자동제어 소계 11,525,000원

센트럴 클리너(프리휠타

청소용) 5 구

소계 120,532,500원

건축공사(공조기 실면적)

240m²

소계 60,000,000원

합계 180,53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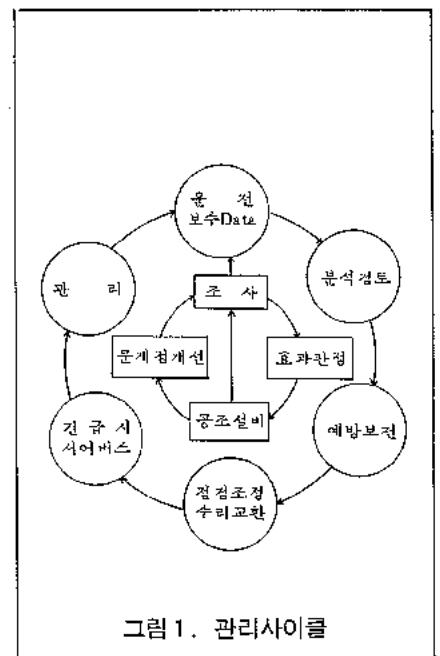


그림 1. 관리사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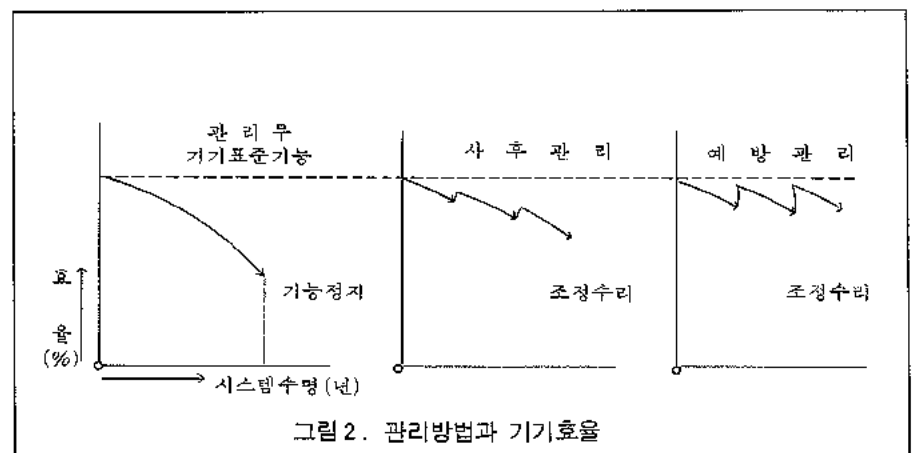


그림 2. 관리방법과 기기효율

b. F.C+OA 방식에 의한 설비비

공조기류	
외조기	1 대
팬코일	60대
물휠타	1 대
백휠타	1 대
카세트 휠타(F.C휠)	60대
배기 팬	5 대

소계 18,840,000원

덕트 공사(OA용)

취출구	60개
흡입구	60개
덕트	1,165m ²

소계 16,850,000원

배관공사

배관류	2,250m
F.C용 소형제어밸브장치	60조

외조기용제어밸브장치 2조
소계 21,935,000원

자동제어 소계 8,495,000원

센트럴 클리너(외조기

프리휠타 청소용) 1구
소계 66,120,000원

건축공사(공조기실 및

F.C설치면적) 174m²
소계 43,500,000원
합계 109,620,000원

a.b 두 가지 방식의 설비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 VAV 방식	100%
b. F.C+OA 방식	60.7%

2) 운전비

초기투자(공조설비비 및 건축공사비 등)의 자본회수비에 대한 식

$$P = \frac{i(1+i)^n}{(1+i)^n - 1}$$

여기서, P:자본회수계수

i:년금리(%), 본항에서는 8%로 한다.

n:상각 또는 내용년수, 본항에서는 설비기기 15년, 건축물 45년으로 한다.

이상으로 부터

$P_{15} = 0.1168 (n=15년) \cdots 설비$

$P_{45} = 0.0826 (n=45년) \cdots 건축$

운전비의 수정계수(M)에 대한 식

$$M = \frac{(1+h)^n - (1+i)^n}{(h-i)(1+i)^{n-1}} \times \frac{i(1+i)^n}{(1+i)^n - 1}$$

여기서,

h:물가, 연료, 인건비등의 상승율(%), 본항에서는 5%로 한다.

i:금리

n:상각 또는 내용년수

이상으로 부터

$M_{15} = 2.142 (n=15년) \cdots 설비$

$M_{45} = 0.828 (n=45년) \cdots 건축$

a. VAV 방식의 운전경상비

운전비:팬 동력의 계 70.5Kw

$70.5Kw \times 2,628h \times 100$

원/Kwh = 18,527,400원

경상비:휠타의 경상비

소계:2,875,000원

자동재생 휠타:1회/4년×5대

백 휠타: 1회/2년×5대

운전경상비 소계 21,402,400원

자본회수비 및 변동비(운전비, 경상비)의 수정

$P_{15} = 0.1168 \times 120,532,500원$
= 14,078,196원

:설비의 자본회수비

$P_{45} = 0.0826 \times 60,000,000원$
= 4,956,000원

:건물의 자본회수비

$M_{15} = 2.142 \times 21,402,400원$
= 45,843,940원

:운전비의 구성계수

운전경상비의 수정후

합계:64,878,137원/년

b. F.C+OA방식의 운전경상비

운전비:팬 동력의 계 31.9Kw

$31.9Kw \times 2,628h \times 100$

원/Kwh = 8,383,320원

경상비:팬코일과 외조기 휠타의 경상비

팬코일 휠타의 청소:

60대×12개월/0.5월

팬코일 휠타 교체비:

60대×1회/2년

외조기자동재생휠타:

1회/4년×1대

백휠타: 1회/2년×1대

소계 6,075,000원

운전경상비 합계 14,458,320원

자본회수비 및 변동비의 수정

$P_{15} = 0.1168 \times 66,120,000원$
= 7,722,816원

$P_{45} = 0.0826 \times 43,500,000원$

= 3,593,100원

$M_{15} = 2.142 \times 14,458,320원$

= 30,969,721원

운전경상비의 수정후

합계:42,285,637원/년

a.b의 두가지 방식의 운전경상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VAV 방식	100%
b. F.C+OA 방식	65.2%

3) 설비공간

a. VAV 방식

천장속에 공기조화용 급배기 덕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F.C+OA 방식에 비교해서 큰 덕트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또 공조기 및 전열교환기와 덕트 설비를 위해 기계실은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본 케이스 스테디에서는 약 240m²이다.

b. F.C+OA 방식

천장속에서 외기공급용 덕트(VAV 방식의 약 1/3정도) 배기덕트 및 팬코일용 냉온수, 드레인 배관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공조기는 외기처리용 뿐이기 때문에 작다. 본 케이스 스테디에서의 기계실면적은 약 36m²로 VAV 방식의 약 15% 정도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실내에서 팬코일 유니트의 설치를 위한 스페이스가 바닥이나 천장내에 필요하다. 휠타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 설치형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의 필요 면적은 23m²/대정도이다. 본 케이스 스테디에서 F.C는 60대로 약 138m²의 면적이 필요하다.

이상의 기계실 및 F.C 설치면적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VAV 방식의 기계실 면적	100%
F.C+OA방식의 설치 면적	72.5%

5. 맺 음 말

병원 건축의 공기조화 설비비용에 관하여 병실의 두 가지 공조방식에 대한 비용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공조방식의 비교는 비용의 시산에 의한 결과에 한하였으며 공조방식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인 각실별 온도 제어, 공기의 청정도, 보수관리의 면은 제외하였다. 비용계산도 대략적인 것이므로, 본고에서의 결과가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초·중학교 교육 시설의 다목적 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

劉 香 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제 1 장 서 론

I. 연구의 목적

初·中學校의 교육시설은 무엇보다 먼저 각 개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 그 건전한 發展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隣近 각 학교사이 또는 각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단체들 사이에서 教育施設이 다목적·공용적으로 活用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오늘날 교육시설 문제를 포함한 각급학교 教育政策은 수많은 다른 社會政策 예컨대 고용정책 복지정책 지역사회발전계획, 住民들의 文化生活, 여가선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學校內 學校間 및 學校와 地域社會사이에 있어서의 教育施設의 多目的·共用에 관한 새로운 방안의 開發을 위하여 世界各國은 저마다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政策사이, 政府와 자사회기관·團體사이 또는 각종 建設·건축계획 사이의 조정·협동의 주요동기는 상황에 따라 多様하다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기존시설의 活用度 提高, 중복시설의 배제, 用地의 效率의 利用등의 경제적 이유와 각종 教育·文化施設의 연관적활용에 의한 教育的 最大相乘效果(multiplier Effect)의 확보 등에 있다. 教育·文化的 동기와 아울러 社會·經濟的 동기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教育內容 및 教育外的 諸條件에 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경제적 諸條件의 급속한 변화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인식을 바꾸게하고 그 結果는 당연히 教育施設의 概念과 體系의 構造와 運用方式의 變革을 촉구한다. 오늘날 心理的 및 社會的 觀點에서 또 平生教育 발전의 觀點에서 교육시설의 학교내, 학교간 및 학교와 지역사회간 다목적 및 공용적 기능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初·中學校 教育에 있어서의 協同學習指導(team teaching), 可變(多様)學級規模(Variable Class size), 無學年學校(Non-Graded School), 示範·探求學習方法, 教育公園(education park) 등의 방안이 꾸준히 연구되

고 있으며, 다목적·교육구조, 다목적·다년평층 공용교육자료센터, 교육공학적 교육시설, 자율학습시설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요컨대, 教育시설의 융통성(flexibility), 적응성(adaptability), 다원가치성(polyvalence)의 문제는 미래사회의 교육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진지한 관심사가 되어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학교는 그 원초적 모습에 있어서 특정한 시설이 문제되지 않았고 또 특정한 장소·위치가 따로 없었다. 마을의 行政書記가 교사일 수 있었고, 학교건물은 마을의 각종행사를 위한 공공 집회소로 사용됐고, 혹은 마을주민들의 私的 目的을 위해서도 사용되곤 했던 것이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의 學校는 이미 다목적·공용의 사회적 존재였던 것이다. 산업·기술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학교는 특정 장소·위치와 특정한 시설을 갖춘 또 대체로 일반사회로부터 격리·고립된 存在로서 그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 점차로 초·중학교 교육은 의무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추세를 감안할때 이제 각급 개별학교의 자기충족적·고립적 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시설의 상호연계와 통합적기능 발휘에 대한 사회·경제적 및 교육·문화적 요청이 漸增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의 公共性과 그 사회적 共有·共用의 필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歐美의 여러나라 특히 OECD 각국의 實例를 살펴보면 아직도 전통적 학교시설개념과 새로운 교육시설 개념사이의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초·중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機能의 提高가 강조되고 교육시설의 개방적·통합적 운용에 관한 연구성과가 서서히 축적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초·중학교의 건축에서 “유아원 건물이 초·중학교 건물의 날개(wings)의 위치에 설계” 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에 관한 연구·개발의 논의가 산발적으로 提起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교육행·재정적 재조건

의 정비는 매우 未治하고, 교육시설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은 낮으며,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의 정책수단의 개발은 아직도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이 사실이다. 중등교육의 의무화단계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施設投資의 적절한 경제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활용의 교육적 相乘效果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정책의 발전방향이 잡혀나가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上述의 몇가지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과 현대교육이론의 연관적 변혁을 살펴보고, 교육시설의 법규적·건축이론적 제문제를 종합 검토한다.

둘째,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의 시설실태조사를 통하여, 학교내, 학교간 및 학교와 지역사회간,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에 관한 현실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未來의으로 현실 가능한 몇가지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II. 研究의 方法

초·중학교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관념을 근거로한 교육시설의 건축이론과 교육시설 基準令에서 통합적·개방적인 시설과 이러한 시설들이 어떠한 공용방법과 공용영역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 내어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과 공용방법 또는 공용영역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방법을 택하였다.

A. 문헌연구

1.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두가지 방법으로 문헌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교육사에서 본 교육시설사의 변천

둘째, 현대교육원리에서 본 통합성·개방성을 지닌 학습, 교수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과 교육목표를 규정

하고 있는 教育法에 관한 자료를 분석.

2.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결정하는 건축이론에 관한 문헌 및 자료와 교육시설 기준령을 分析하여 실태조사의 項目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基準을 선정하였다.

첫째, 시설의 보유상태

둘째, 건축적 조건

(구조, 규모, 재료, 색채, 설계면)

셋째, 환경위생조건 및 건축설비 설치상황

(방음설비, 방한설비 등)

넷째, 시설관리방법, 활용효과 및 시설 설치상황

(교구, 기기, 자료 등)

다섯째, 시설의 공용방법(인근학교와, 지역사회와, 학교안에서) 및 공용영역(교과영역, 특별활동영역, 생활영역).

B. 실태조사

1. 문헌연구를 통해서 본조사를 위한 예비설문지(부록Ⅱ 참조)를 만들어 서울시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1개교씩 방문하여 원장 또는 교장에게 설문지의 적합성을 묻고나서 재작성한 (본)설문지(부록Ⅰ, 참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나라 학교시설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첫째,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의 시설이 어느 정도로 다목적·공용적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위에서 제시한 5가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조사된 결과를 교육시설 기준령과 비교하고 기존시설이 共用方法에서나 공용영역에서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기본적인 해결방향을 提示하였다.

2. 실태조사 실시

① 일시: 1984. 8. 7 ~ 12.

② 방법: 우송조사법

③ 대상: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514개교(4市9道 조사대상수: <表1> 참조) 가운데 調査에 應한 296개교(<表2> 참조)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문헌연구와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Ⅲ-1. 문헌연구의 범위

A.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 기능의 개념 검토

B. 통합적·개방적 교육시설의 개념 검토

Ⅲ-2. 실태조사의 범위

A. 각종교육용지

1. 농업실습지와 양어장
2. 자연원(동물원과 식물원)
3. 운동장과 수영장

B. 각종교실

1. 학급교실
2. 사회과학실과 사회정보실
3. 실험·실습·설기실
 - a. 어학실험실과 과학실험실
 - b. 농업, 공업, 수산업, 상업, 가사실습실
 - c. 음악실기실, 미술실 및 체육설기실

C. 各種 서비스시설

1. 도서실
2. 지원시설
 - a. 교사중심 지원시설(교무실과 서무실)
 - b. 학생중심 지원시설(학생실)
 - c. 학교중심 지원시설(양호실과 화장실)

IV. 用語의 定義

본연구의 목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교육시설의 다목적·공용적·통합적·개방적 기능 등의 개념들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나타난 교육시설의 종류를 중심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A. 교육시설

“교육시설이란 교수 및 학습의 과정을 支援하고 刺戟하며, 강화시켜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媒介体이다.”²⁾

註 1) William H. Roe & Th bert L. Drake, The Principalsip, (New York; Mac Millan Pub. Co., Inc. 1974), P. 96.

Ⅲ. 研究의 範圍

B. 건축설비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화, 전기, 가스, 給水, 配水, 排水, 換氣, 暖房, 消火 또는 汚物處理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계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를 말한다.”³⁾

C. 교원공간

“교원공간이라 함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학교건물내에 포함된 여러가지 형태의 공간을 말한다.”⁴⁾

D. 학교건물

“학교건물이라 함은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수용할 공간의 기능이 일치하는 공간들의 집합체이다.”⁵⁾

第二章 文獻研究

1. 教育施設 概念의 變化

A. 전통적 교육시설

플라톤(Plato, B. C. 427~347)·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 C. 384~322)가 살던 시대에는 교육시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편안한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학생과 교사는 서로 생각을 토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편안한 장소란 사원의 지붕 밑이라든가 또는 담 밑이었다. 이때에는 이러한 장소를 울타리없는 학습공간이라고 하였다. 數世紀 동안 교육에서는 교육시설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 다만 교사와 학생만을 생각했고, 학교건물은 학습과정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아테네 시대의 교육은 원시적이고 단순하며, 부모가 교사를 선정해서 자녀의 교육을 부탁하였기 때문에 “학교라는 의미는 고대사원 밖의 단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난다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⁶⁾ 맥코믹과 카시디(Mc-Cormick & Cassidy, 1953)에 의하면 “고대 교사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가지고 교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교사들은 야외에서 학습을 하였다.”⁷⁾ 이것은 버즈(Butts, 1947)가 지적한대

로 학교란 교사가 있는 곳이면 바로 그곳이 학교가 되었다.⁸⁾ 고대그리스 시대에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음악과 체육 그리고 기본교육(3' R)으로 구성된 대단히 단순한 기본학습영역이었기 때문에 스미스(William A. Smith, 1955)의 「古代教育」⁹⁾에서 보면 敎具는 거의 없었고, 오직 알파벳이 쓰인 나무판, 기름묻은 화판, 수단위마다 색을 다르게 칠한 주판, 깃펜, 먹물, 종이, 간단한 악기, 퍼티, 악보받침대 등이 있을 뿐이었다. 쿠벌리(Cubberley, 1948)의 「教育史」¹⁰⁾에서 보면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와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목표가 未分化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교실을 사용하였었다. 그러나 그후 인접된 두개의 교실에 각기 분산하여 가르치게 하였다. 체육교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른 건물에서 지도하였다고 한다. 그후 100년후에 로마시대의 교육시설은 그리스에서 볼 수 있는 그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따라서 “학습공간에는 오직 의자와 책초리 뿐이었다.”¹¹⁾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는 학교건물과 같은 건물이 그리스나 로마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때에도 “학습공간은 야외나 담 밑이며, 학습과정에서 건물은 부수적인 것이었다.”¹²⁾ 이러한 현상은 17세기초에 미국의 학교건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학교건물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할 정도로 깨끗하고 아늑하고 안정감을 주지도 않았으며, 학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건물은 초라했으며, 오래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었다. 건물내부에는 긴책상과 의자가 있는 하나의 교실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학교건물은 주거공간(Shelter)으로서조차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와서 미국학교는 호레이스만과 헨리 바아나드(Horace Mann & Henry Barnard, 1820~1850)가¹³⁾ 自由公立學校의 설립을 주장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公教育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많은 유형의 공립학교건물이 신축되었으며, 농촌에도 1~2개의 교실을 가진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주택공간으

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가르치는 공간의 기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몇개의 학교건물은 17세기에 볼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도 불가능한 건물이 있었다. 미국의 학교건물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건축가의 자문이나 서비스를 받고 건축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해도 아직 학교건물은 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였다.”¹⁴⁾ 그 결과로 “이때의 학교건물은 교육시설로서 보아 건축사업의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육적으로 보았을 때 불필요하게 건물이 컸었고 활용하는데 비기능적이었다.”¹⁵⁾ 동시에 13~15세기말에 西歐에 유행하고 있던 고딕(Gothic)식인 선이 적절적이고 창과 출입구의 위가 뾰족한 아치형이거나, 14~16세기 르네상스식인 자연미를 가졌으며, 17~18세기 바로크(Baroque)식인 장식이 복잡한 조각을 한 복도, 현관, 기둥, 난간 등이 있었다. 이러한 미적인 면에서의 건축은 어떠한 側面에서도 교육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건물이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건축가만 비난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로스(Rath, 1957)가 지적한대로¹⁶⁾ 이때에는 교육철학을 기초로 한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가와 교육자 그리고 건축행정당국자들의 사이에 공동연구가 어려웠었다.

B. 現代教育施設

현대교육은 교사중심의 환경에서 점차로 학생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여가고 있다. 과거의 교실 증축은 취학인구가 급증하여 과밀학급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으나, 현대는 점차로 취학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아가

(註2) Basil Castaldi, Educational Facilities (2nd ed.) (London: Allyn And Bacon, Inc., 1982), p. 19.

(註3) 田耕培·崔藻煥, 建築法規解説, (서울:世進社, 1983), p. 11

(註4) Basil Castaldi, op. cit., p. 121

(註5) Stephen Knezevic, "Where are Schools Overcrowded?" American School Board Journal 134 (Jan., 1957), pp. 46~47

(註6) Basil Castaldi, op. cit., p. 4

(註7) Patrick McCormick and Francis Cassidy,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Catholic Education Press, 1953), p. 105.

(註8) R. Freeman Butts,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McGraw Hill, 1947), p. 33.

고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증축에서든 개축에서든 학습 중심의 환경으로 그 質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오늘날 많은 교육자나 건축가들이 학교건물의 기능적 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¹⁷⁾ 있는데 기인한다.

겟젤스(J. W. Getzels, 1981)가 연구한¹⁸⁾ 교실의 물리적 구조의 변천과정을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교실에서부터 현대적인 교실에 이어지는 현대교육개념과 이에 따르는 현대 교육시설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에 의하면 교실은 역사적으로 4 가지 유형으로 변천되어오고 있다. 1930년대 이전에는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른바 백지의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실의 구조는 물리적으로 학생들이 교사를 중심으로 일렬로 앉을 수 있게 책상과 걸상을 배열하였으며, 교사는 교실 앞 중앙에 위치한 교단에 서있고, 칠판과 분필이 유일한 교구였다. 학생들의 책상과 걸상은 변경시킬 수 없으며, 학생들은 교실에 머물러 있는 한 오직 각기 앞에 앉은 학생의 머리만 쳐다보아야 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사뿐이었다.

1930년대 초기에는 교실의 물리적 구조를 평면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천정, 벽, 그리고 바닥으로 구성된 입체적 공간이 아니고, 오직 교실 바닥만을 생각하여 교실은 직사각형이라는 개념을 가졌다. 그러나 점차로 교실은 입체적 공간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교실내의 학생들의 책상과 걸상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때에 학생들의 존재는 움직이는 존재로 생각했으며, 교사의 책상과 걸상은 교실의 앞쪽 구석에 위치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교실의 모양이 1930년대 이후와 같이 입체적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의 책상과 걸상의 배열은 사다리꼴로 교사를 향하여 배치했다. 이때에 교사의 책상과 걸상은 교실안에서 사라진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서는 학생을 사회적 존재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교실에서 학생·교사의 책상과 걸상이 사라졌으며,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교구들이 준비해 있었고, 학생과 교사는 이들 교구를 가

지고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러한 교실의 구조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고, 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연결된 개별적인 학습을 하는 소위 자극을 받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학습자의 교실구조로 바뀌었다.

이상과 같이 교실의 물리적 구조는 학습자의 학습형태를 정적에서 동적으로, 교실에서 야외 자연환경으로, 또는 지역사회로 옮겨놓았고, 그 결과로 현대교육개념을 교사중심의 단편적·폐쇄적 개념에서 학생중심의 통합적 개방적 개념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현대교육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나라의 교육시설은 지역사회화해가고 있으며, 각급학교간에 서로 통합적·개방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學校—地域社會」센타

1960년대에 여러나라들은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을 통합하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통합하고 있다. 둘째, 통합적·개방적 교육 계획에서 시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시설과 지역사회시설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하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통적인 학교보다 그 역할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하고 있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시설들사이에 서로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학교와 사회의 상호협조와 의사소통의 체제를 강화하려고 통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을 위하여 기획했고, 모형화했고, 이에 관련된 교육내용, 교수방법, 건축설계, 도시계획 또는 시설비 등에 관한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도한 모형들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국민학교—」, 「중학교—지역사회센타」

미국의 경우 국민학교와 지역사회센타가 통합 또는 개방된 인류자원센타(Human Resources Center, 1967년에 설계, 1971년에 운영시작)는 식

당, 극장, 체육실은 공용하고, 교수실(Instructional Areas), 행정실(Administrative Areas)은 학교만이 사용하며, 사회봉사시설, 지역사회 휴게실, 의료실 등은 지역사회만이 사용하고 있다.

중학교에 경우는 제퍼슨 센타(Thomas Jefferson Center, 1966년에 설계, 1972년에 운영시작)가 있다. 이센타에서도 인간자원센타와 마찬가지로 시설들이 통합 또는 개방되어 있으나, 다름점은 교수실이 공용되고 있고, 식당은 공용과 개별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놀이실은 공용되어 있으나 도서관은 학교만이 활용하게 되어 있다.

b. 「유치원—」, 「국민학교—지역사회센타」

스웨덴 국민들은 최근 몇년간 학교시설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현대교육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현대학교교육은 지역사회와 또는 각급학교 사이에 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교육을 포함한 개방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하여 설치되었을 경우에 이 건물들을 같은 지역에다 통합하게 되면 중복된만큼 절약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더욱 다양해진다. 셋째,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를 종합하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를 중심으로 볼때 특수아는 특수아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각년령층,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살기 때문에 시설은 다양해야 한다. 넷째,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유치원과 국민학교 저학년인 1, 2학년을 통합하고 있다. 이것은 스웨덴

(註9) William A. Smith, Ancient Education,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5), p. 133.

(註10) Ellwood p. Cubb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48), p. 280.

(註11) Russell Sturgis, History of Architecture, (Doubleday, 1916), p. 142.

(註12) Basil Castaldi, op. cit., p. 10.

(註13) Edgar W. Knight, Education in the U.S. (3rd.), (Boston: Ginn and Company, 1951), p. 413.

(註14) Alfred Roth, The New School, (New York: Frederick Preager, 1957), p. 24.

(註15) Ibid., p. 26.

(註16) Alfred Roth, Ibid., p. 26.

(註17) Basil Castaldi, op. cit., p. 5.

게테버그(Getheberg)와 넷넷 지역에
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형태이다.
스웨덴은 국민학교 1,2,3학년을 구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합
은 유치원에서 국민학교를 진학하는
데 대단히 편리하다. 스웨덴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센터의 중요한 구성요
소는 바로 학교이다. 학교는 모든 사
람에게 관심을 두는 지역사회와 형태
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센
타를 학교교육이나 지역사회 레크레
이션에 관련된 시설에만 국한하지 않
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
는 시설을 제공하는것 이라고 하는 이
론을 감안하면서 학교설계가들은 학
교시설이 중심이되는 지역사회센터
를 설계하고 있다. 또한 스메드비(Sme-
dby)지역은 지방자치도시에 있는 광
범위한 주거지역이다. 이지역은 바로
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하나의 지역
사회센터와 짝을 이루고 있었고, 그
속에 있는 농장을 주거지역으로 바꾸
었으며 동시에 레크레이션 센터를 건
립하였고 헛간이나 마굿간 등은 작업
장이나 회의실로 개조하였으며, 공원
은 묘기나 스키 등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전통적인 건물의 건축은 유치원, 국
민학교 또는 봉사시설을 분리하여 건
설하지만 현대건설은 에케보(Ekebo)
지역사회 센터에서¹⁹⁾ 보는 바와 같
이 유아를 위한 휴식공간, 국민학교
저학년에 필요한 소단위 학생집단 중
심의 교실 등을 주거지역 가운데 설

치하여 소위 주거지와 이웃한 학교라
하여 「네이버후드 스쿨」(Neighbour-
hood School)이라고 부른다. 중앙센
타에는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서비
스센터가 있고, 주변에는 학교건물이
있으며 여기에는 미래에 주택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설
계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어떤
부분도 쉽게 개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비스센터와 학교는 지
면배치에서 상당히 負荷량을 가진 보
(Column)의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대단히 융통성을 가진 공간으로 설
계되었다.

2. 單一教室學校

단일교실학교²⁰⁾는 원래 지역사회에
서 발전되어왔다. 학교건물이 최초에
건립되었을 때에는 모두 단일교실이
었다. 이와 같은 단일교실학교는 지
금도 농촌이나 도시의 외곽지대에 존
재하고 있다. 학년중심의 학교가 나
타나기 시작하여 학년별 교실이 생기
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이것은 1848년 보스턴에 있는 퀸시학
교(Quincey Shool)에서 호레이스 만
(Horace Mann)이 계획하여 설립한
것이다. 그러나 학년별로 정각된 학
교조직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와 중학교를 연결하여 세웠다. 이러
한 설계는 점차로 무학년학교(Nongr-
aded School)를 탄생시켰고, 연결된
학교로 성장시켰다.

3. 綜合學校

현대학교는 대도시의 경우 소규모
단위의 학교로 구성된 종합학교가 설
립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는 학생 개
개인이 만족스럽게 학교생활에 참여
하고 교사는 아동개인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학생, 학
생과 학생 사이에 인간관계를 만족스
럽게 하기 위해서 행정면에서 또는 교
수면에서 좀더 작은 규모의 학교로 나
뉘어서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학교의
설계를 “단위별 설계, 작은 학교설계
또는 주택과 같은 학교설계”²¹⁾ 라고
한다. 이러한 소형학교에 있는 학생
들은 오직 작은학교의 행정가, 담당자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總本部
와 연결된 특수한 「날개의 모양」(W-
ings)으로 위치한 건물에서 학습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프로그램도 작은학
교마다 서로 다르다. 다만 이들 학교
들은 동일교지내에서 도서관, 강단, 체
육관 등을 여러가지 개별공간으로 구
분해서 공용한다.

(註18) David, Thomas G, and Wright, Benjamin
D., (eds.), Learning Environmen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 1~12.

(註19) OECD, Building For School Community,
(V. Sweden), (Paris: OECD, 1976), pp. 163~167

(註20) Robert W. Richey, Planning For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73),
p. 42.

(註21) William H. Roe & Thelbert L. Drake, op,
cit., p. 96.

建築士자격시험을 위한 新刊

建築士綜合問題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건축법규 • 건축계획(主·客觀式)

黃 在 雄 編著
明星出版社 發刊
값 12,000 원

住宅의 工業化

장 기 홍

(주)삼익주택·대한팔크(PALC)
기술부장

1. 공업화의 배경

주택의 생산에 있어서 요즘 공업화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발전되어 가고있다. 그배경으로는 인구의 도시집중화, 생활수준향상, 토지부족, 숙련노동력부족 등의 건축산업 제문제를 들 수 있고 도시의 국제화에 따른 시대적인 새로운 요청과 전국의 주택보급율의 추이(표-1)와 시, 읍·면별 불량주택 현황(표-2)에 의하면 주택부족율과 불량율이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더욱 단기간내에서의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공업화주택이란?

주택의 대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택건축의 공업화를 도모하여 주택건설 작업을 현장에서 공장으로 끌어 들임으로써 인화, 인구, 인진, 에너지 세이빙(ENERGY SAVING), 서음 등의 성능 향상과 기능 직종의 단순화, 공기의 단축 등에 의한 원가절감(COST DOWN), 철저한 품질 관리로 주택의 질을 높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3. 조립주택의 실정

70년대 중동건설물에 힘입어 국내 건설산업도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전까지의 가설사무소나 가설막사는 거의 목재에 의존 하였으나 중동지역의 그것은 거의 전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량철을 샌드위치 파넬(SANDWICH PANEL 이하 F.S.P라 약함)로 건설되었다. 이와 같이 F.S.P의 수요가 급증하자, F.S.P 생산업체에서는 또다른 판로를 개척하기 시작하여(표-3)와 같이 F.S.P를 이용한 조립주택에 착수했다.

(표-3)에서 보여지는 바와같이 F.S.P를 이용한 조립주택건설에 여러사가 참여했지만 그 실적은 극히 미미하였다. 이유는 첫째, 일반 대중이 조립주택에 대한 선호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이었고, 둘째, F.S.P를 주재료로 사용함으로 건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을 갖게되어 한국인의 주택에 대한 재산증식 가치관에 부응하지못한점이었다.

그러면 잠시 이당시 이웃나라인 일본의 조립주택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70년대 중반에 일본은 건설성과 통산성 주관으로 도시지역의 불량주택

[표-1] 주택보급율 추이

구 분	'80	'81	'82	'83	'84
공급대상가구(천호)	7,470	7,731	8,002	8,282	3,572
주택수(천호)	5,319	5,369	5,460	5,586	5,706
건설량(천호)	211	150	191	226	220
멸실량(천호)	100	100	100	100	100
주택보급율	71.2%	69.4%	68.2%	67.4%	66.6%

(자료: 건설부간 건설통계연감)

[표-2] 시·읍·면별 불량주택현황 (1975~80) (단위: 호, %)

구 분	1975	1978	1979	1980
시	1,963,908	2,287,840	2,392,343	2,555,724
부	203,546	158,116	242,165	289,095
비율	10.4	6.9	10.1	11.3
읍	536,834	574,288	696,894	828,471
부	19,456	44,255	50,602	58,868
비율	3.6	7.7	7.3	7.1
계	2,500,742	2,862,128	3,088,437	3,384,195
비율	223,002	202,371	292,767	347,963
비율	8.9	7.1	9.5	10.3

주: 1. 매년도말 기준

2. 1980년은 11.1 기준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년감

(표-3) 국내의 주택건설공법의 현황

업 체 명	구 조 양 식	(주택)형, 규모	기술도입여부	공 장 현 황	건설실적	현 장 조 립	비 고
(주) 동 방 프 리 퀸 브	경량 철골재 (Frame+Sand- wich Panel System)	건설현장 가설사무 소, 기능공숙소, (국 내외) 창고, 공장건 물 및 주택	자 체 개 발	인천공장(인천공장으로 이전 예정) 위치: 인천시 남구 학익동 400 규모: 대지 2,400평, 건평 180평 인천공장(현재 정지작업 완료) 위치: 경기도 인천군 초법면 안평리 43 규모: 대지 7,500평 건평 1,484평 주요시설: 성형기, 절단기, 용접기, 파 워프레스, 컷타기, 선반 생산능력: 1,560평/월 투자액: 2억5천만원	77. 10. 24 착수 26평형 주택 년간 720동 건설계획 77~79. 6 막사, 가설건 물 등 9억5 천만원정도 실적	기초: Conc. 또는 형 강 P.C독립 기초 접합: Z-Bar 및 H-Bar 사용용 법 조립기: 레파와 지개자	국내 주택건설 실적 은 아직 없음. 주로 건설현장의 가 설건물, 창고 등 건 설, 현재 군막 사용 부채생산중
(주) 동 양 강 제	경량 철골재 (Frame+Sand- wich Panel System)	막사, 간이사무소, 식당, 숙소 Mobile House		위치: 경기도 용인군 천리면 규모: 대지 2,000평 주요시설: 성형기, 프레스, 절곡기 용접기 생산능력: 144 m ² /월 투자액: 3억원	77년초 착수 79년 4월까 지 해외진출 건설업체에 680동 판매 실적	기초: Conc. 또는 P.C Conc. 접합: T-Bar 식공법 Joiner로 연결 조립기: 전동드릴 오프스퍼너 최종드라이버	
(주) 한국 에스·이·씨 인터내셔널	경량 철골재 (Frame+Sand- wich Panel System)	막사, 냉장창고들 비롯한 각종 건물주 택, 간이주택, 태양 열주택	도입선: Hong Kong의 Isowall Internat- ional Ltd. 계약기간: 5년 기체료: 108,000\$ Royalty: 순매출액의 3%	포천공장 위치: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규모: 대지 1,739평 건평: 521평 용인공장(대지확보) 위치: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읍방리 규모: 대지 3,690평 건평: 368평 주요시설: Laminating machine 생산능력: 2 m ² /min		기초: Conc. 또는 P.C Conc. 접합: Mouldings Spline joiners Screws blind rivets 조립기: Secured- river drill blinded riveter	원래 냉동, 냉장, 창고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최근 주택 및 기타 건축부품으 로 활용되고 있음.
(주) 동 아 종 합 개 발	경량 철골재 (Frame+Sand- wich Panel System)	주 택 20~30평형	도입선: 일본 다이와하 우스 (주) 계약기간: 3년 Royalty: ¥38,000,000 3년간5회분할송금	위치: 미정 규모: 대지 13,900평 건평 7,500평 투자액: 60억원 생산능력: 파타면역으로 월 4,915평 철골가공부채 530 ton			공장부지가 미전정 으로 공장건설이 지 연되고 있음
(주) 한 국 전 업	P.C콘크리트 파넬시스템	단독 및 연립주택 17, 19, 22, 23평	자 체 개 발	경기도 평택의 기존 휴관공장의 시설 이용 주요시설: 지개차 Conc Mixer Vibrator 증기양생기	77: 17평 1동 78: 19, 22, 23 각 6세대 계 18세대를 2층연립주택 으로 수원에 전립	기초: 특수물력 A형 3단, B형 2단 접합: 볼트 조립기: 인력사용 (대량사용시 크레 인 필요)	수원에 건설한 것이 불배상태에 있고, 주 택경기 침체로 사업 중단 상태에 있음.
(주) 삼도종합개발	경량콘크리트 파넬시스템 (Poroment- Porous Conc)	단 독 주 택 15~25평	도입선: Denmark의 SAAMD CONSULTAPS 계약기간: 3년 기술대가: 200,000 \$ Royalty: 순매출액의 3%	현장제작, 조립방식 주요시설: 이동식 Batch plant 생산능력: 200 m ² /일 투자액: 2억원(예정)		기초: 연속기초 접합: 콘크리트 정착 (볼트사용도가능) 조립기: Truck Cr- ane Platform La- dder	사업착수 예정이었 으나 시제품의 성능 이 예상보다 저하되 고 (약속강도 10~ 30kg/cm ²) 중단상태
(주) 한 일 건 재 공 업	1) 경량 철골재 (폴조+샌드위 치 파넬) 2) S.S Board	농촌주택 12, 15, 18평형 단독주택 막사, 가설건물	I. 자체개발 II. 도입선: 일본 Nisse Ki House 공업 및 와타 나에 연구소 계약기간: 5년 Royalty: 순매출액 의 2.7% 선불 3,000 \$	위치: 인천시 북구 가좌동 106 규모: 대지 10,000평 건평 3,400평 주요시설: 성형기 9대 프레스: 3대 스렛다: 1대 레벨리: 1대 선 반: 2대 세타기: 1대 생산능력: 주택 200동/월 투자액: 605,000천원	79. 8월현재까 지 주택, 막사 창고등 9,000 동 전립	기초: 무근 콘크리트 접합: 볼트 조립기: 캐리진 스파나 부 서 드라이버 공기(26평기준): 15 일/동 소요인원 86인	1. 남양만, 제화도 등지에 농촌주 택을 건설(사업 성불래) 한후 현재는 군막사 용 부채생산중
(주) 부 서 물 산	경량 철골재 (Frame+Sand- wich Panel System)	단독주택, 기숙사, 현장사무소, 이동식 사무소, 창고준막사	자 체 개 발	위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규모: 대지 60,000평 주요시설: 15T Hoist Crane 절단기 절곡기 성형기 생산능력: 6,000 m ² /월 투자액: 8억원	78: 중동지역 공사현장주 소용	기초: ① P.C Conc. ② 양카설치공법 접합: Bolt 자동 driver 사용	주로 중동지역 건설 현장의 가설건물, 숙소용 가설기술에 의하였 으나 일본차량(주) 와 기술제휴 모색중

자료: 건설부, 조립식 부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 1979

재개발로 거주 수준 향상과, 핵가족화에 따른 주택수요에 대처함을 목적으로 신주택공급계획(HOUSE 5.5) (설계, 생산, 운송, 유지관리까지의 총합주택공급SYSTEM)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했다. 41개 그룹(1개 그룹은 2~3사로 구성됨) 110개사가 참여하여 3년간에 걸쳐 경쟁한 결과 미사와홈즈(주)사에서 제안한 「다기능소재 PALC를 이용한 철제구조의 캡슐(CAPSULE)구법 주택」이 1등으로 당선되었다. 그후 미사와홈즈사는 이 구법을 상품화시켜 연간 1,500호 이상의 팔크주택을 성광리에 판매하고 있다.

4 팔크를 이용한 조립주택

1) 팔크(PALC)란 ; 세멘트와 규사를 주원료로 하는 슬러리(SLURRY 유체혼합물)에 비중과 상응하는 량의 기포를 더하고 일차적으로 경화 성형시킨후 180℃의 오토클레이브(AUTOCLAVE) 속에서 압력을 가하고, 증기로 양생시켜 얻어지는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비중 0.5와 0.63의 2종류가 있다.

2) PALL의 특징

A. 성 에너지형 단열성 건축부재
팔크(PALC)는 그 자체가 단열재로 된 부재임으로 시공의 질에 따라 단열성이 변화되지 않는 부재로서 기존의 건축자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재료명	단 열 치	PALC와의 대비
PALC	0.107 Kcal/mh℃	1
콘크리트	1.2 "	12
시멘트벽돌 (벽돌)	1.2 "	12

(위와 같이 단열성이 양호하므로 주택의 냉난방비를 약 17%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

B. 경량

PALC는 그 내부에 무수한 세공을 갖고 있는 무기질 재료로서 그 비중이 0.5밖에 되지 아니하여 물에도 뜨며, 콘크리트보다 약 5배가 가벼운 건축재이다.

C. 구조인력

다공질의 경량인 단열재이나 비예강도가 커서 별도의 구조보강 없이 그

일본규격협회 부품관계비교

E. P. A		일본규격협회		부품형태분류		예	
원 재 료		소 재	L0재	0 차	원 재 료	금속, 돌, 자갈, 석회 푸라스틱, 나무, 페인트, 철근, 접착제	
재 료							
구 성 재	절 단 재	형 재	L1재		절 단재		
			L2재				
	구성단위	건 축 부 품	단위부품				구성단위
			집성부품				
재 성 성 재		Ls재	부속부품	1 차 건축 부품	창문, 지붕용, 파넬, 벽용파넬, 천장용파넬 등		
기 능 요 소			조 립	2 차 건축 부품	벽, 지붕, 천장, 바닥		
건 축 조 직		3 차 건축 부품		욕실 변소(공간으로서 하나 이상의 기능을 완비한 것)			
		4 차 건축 부품		주택 모델하우스			

자체로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경량의 단열구조재이다.

D. 인화성

화재발생시 유독 GAS나 연기의 발생이 없고 부재의 인화성능은 두께가 10cm일 경우 1000℃에서 1시간 이상 견디며 콘크리트와 동등하다.

E. 차음성 및 흡음성

콘크리트와 같은 차음성이 있으나 흡음성능면에서는 다공질자체이므로 흡음이 높아 충격에 의한 음전달이 없다.

F. 외관

유체혼합물(SLURRY)의 유동성이 높아 어떠한 복잡한 문양도 자유자재로 균일하게 구사할 수 있다.

G. 공기단축

구조와 마감이 공장에서 PALC 제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감공사 기간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는다.

3) 캡슐(CAPSULE) 공법

CAPSULE 공법은 표-4와 같이 일본규격협회 분류에 의하면 Ls 재 중 3차건축부품 단계로 기능공간이 공장생산되며 욕실이나 주방과 같이 분해하면 불편해지기 쉬운 공간을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U자형의 유니트(UNIT)로서 현재까지 가장 발달된 조립공법중의 하나다.

A. 캡슐 유니트(CAPSULE

UNIT)의 구조

① 골조는 철근프레임(FRAME)으로 구성된다.

• 유니트(UNIT)는 수송제한에 의해 프리룸 사이즈(FREE ROOM SIZE)는 만들 수 없다.

• 방하나를 분할하기 위해 거실부분

은 반드시 개방형 UNIT가 된다.

• 개방형 UNIT에는 반드시 프리룸(FREE ROOM)이 필요하다.

• 철근 FRAME은 구조체임과 동시에 PANEL을 고정하고 UNIT를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 개방형 UNIT의 연결에 의해 큰 공간이 가능하다.

• 화장실(SANITARY ROOM)은 독립한 작은 SPACE이므로 프레임(FRAME) 없는 PANEL만으로 구성된 BOX로도 가능하다.

② 구조내력분산

• 수직하중은 철골 프레임(FRAME)이 부담

• 수평하중은 철골 프레임과 PALC 파넬(PANEL)이 부담한다.

③ PALC판은 대형판으로 사용

④ 지붕재 공장에서 설치

⑤ 개구부 부품은 공장에서 설치

B. CAPSULE UNIT의 작업순서

① 생산방식

② 수송방식

③ 조립: 한 세대당 2~3 시

간이면 완료

④ 공사기간

5. 조립주택산업의 향후

한국에 있어서 앞으로의 주택산업은 도시에서의 주택부족을 증가에 의한 신규건설산업과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져 이를 빠른 시일내 주거수준 향상을 감안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의 조립화 즉 공업화가 필연적이라 할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향후의 조립식주택은,

㉓ 부재운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재 중량을 경량화 시켜야되고,

㉔ 설계면에서 미적인 요소를 살리기 위하여는 부재의 질감과 성형성이 우수해야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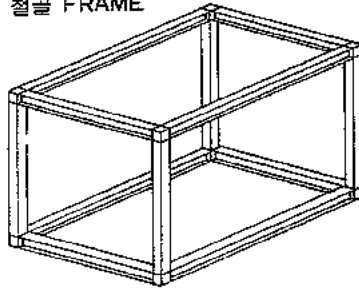
㉕ 평면의 가변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준척도를 사용한 개방형 시스템 (OPEN SYSTEM)의 적극활용으로 변화있는 설계가 가능토록 해야하며

㉖ 불량주택 재개발을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짧아야 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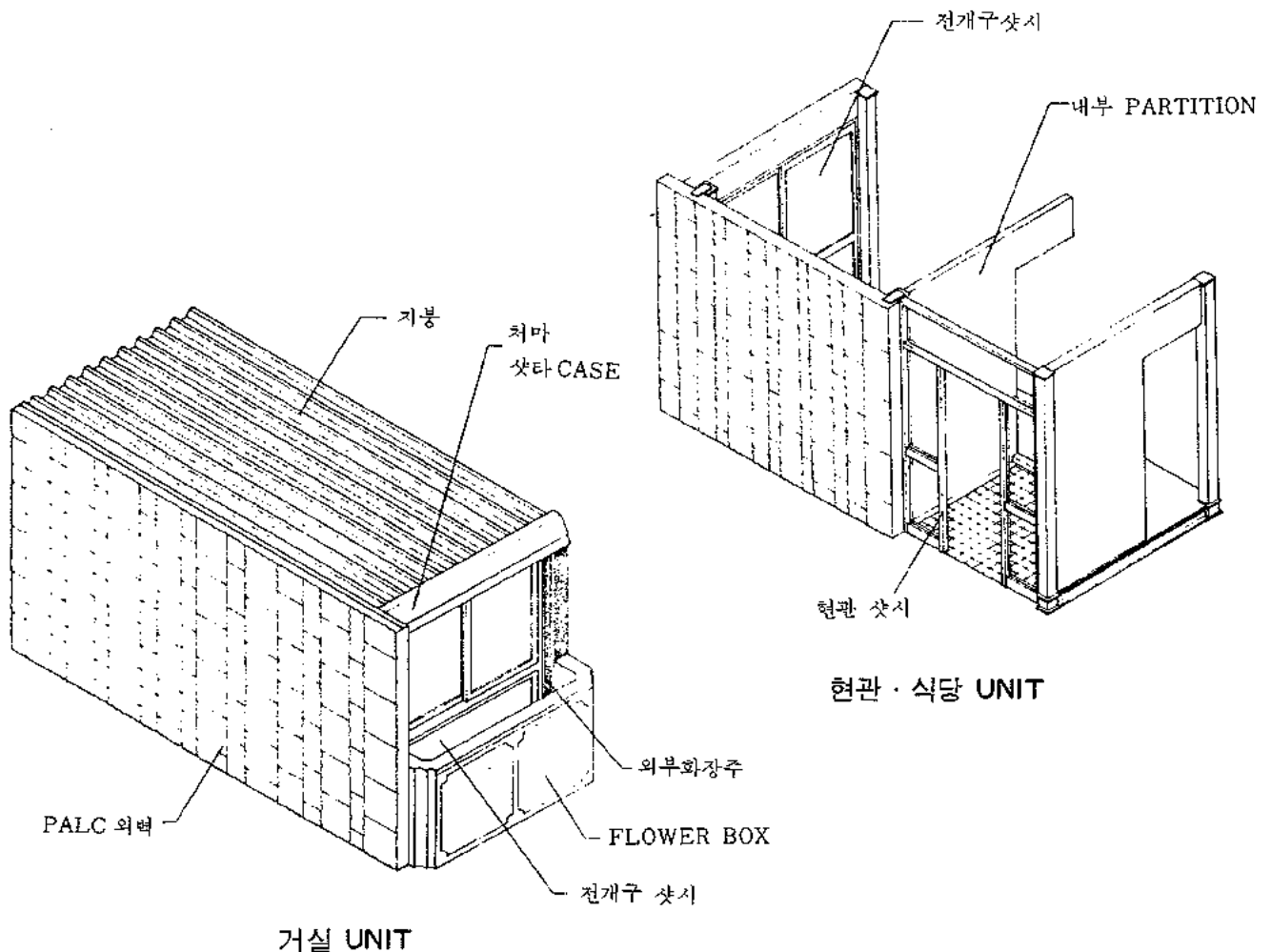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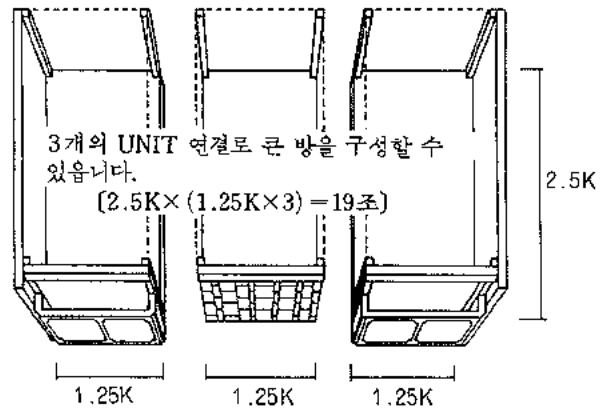
㉗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자재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되어야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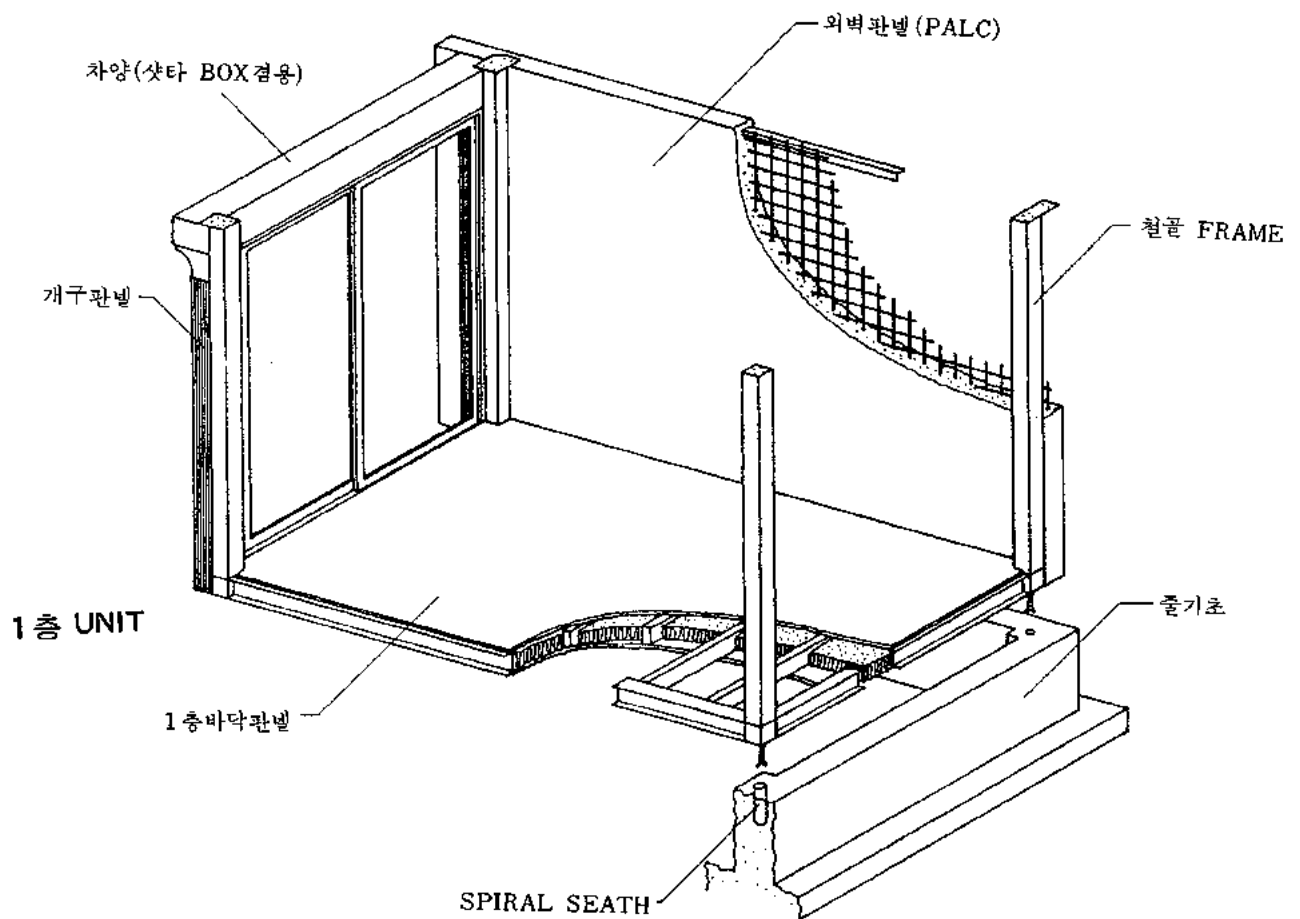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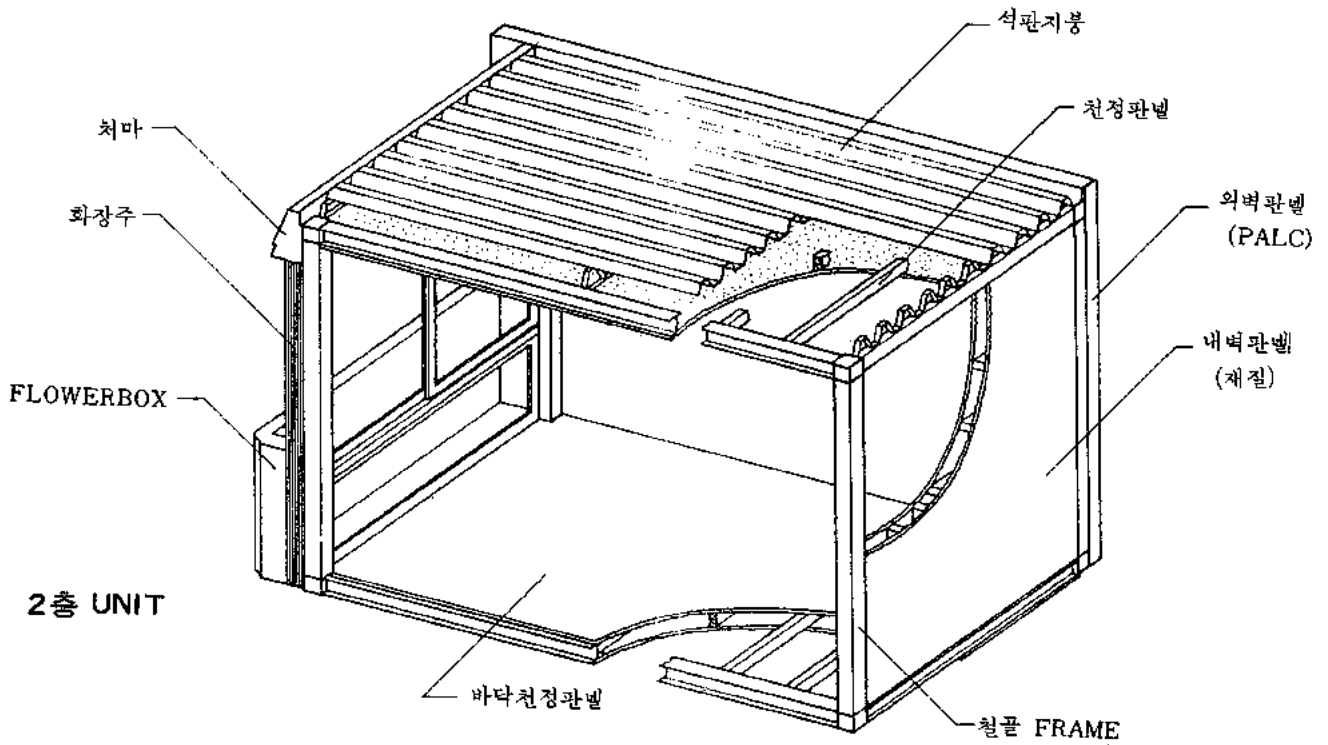
㉘ 4 계절의 기후변화에 견딜수 있는 내구성이 강한 재질등을 사용한 조립공법이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철골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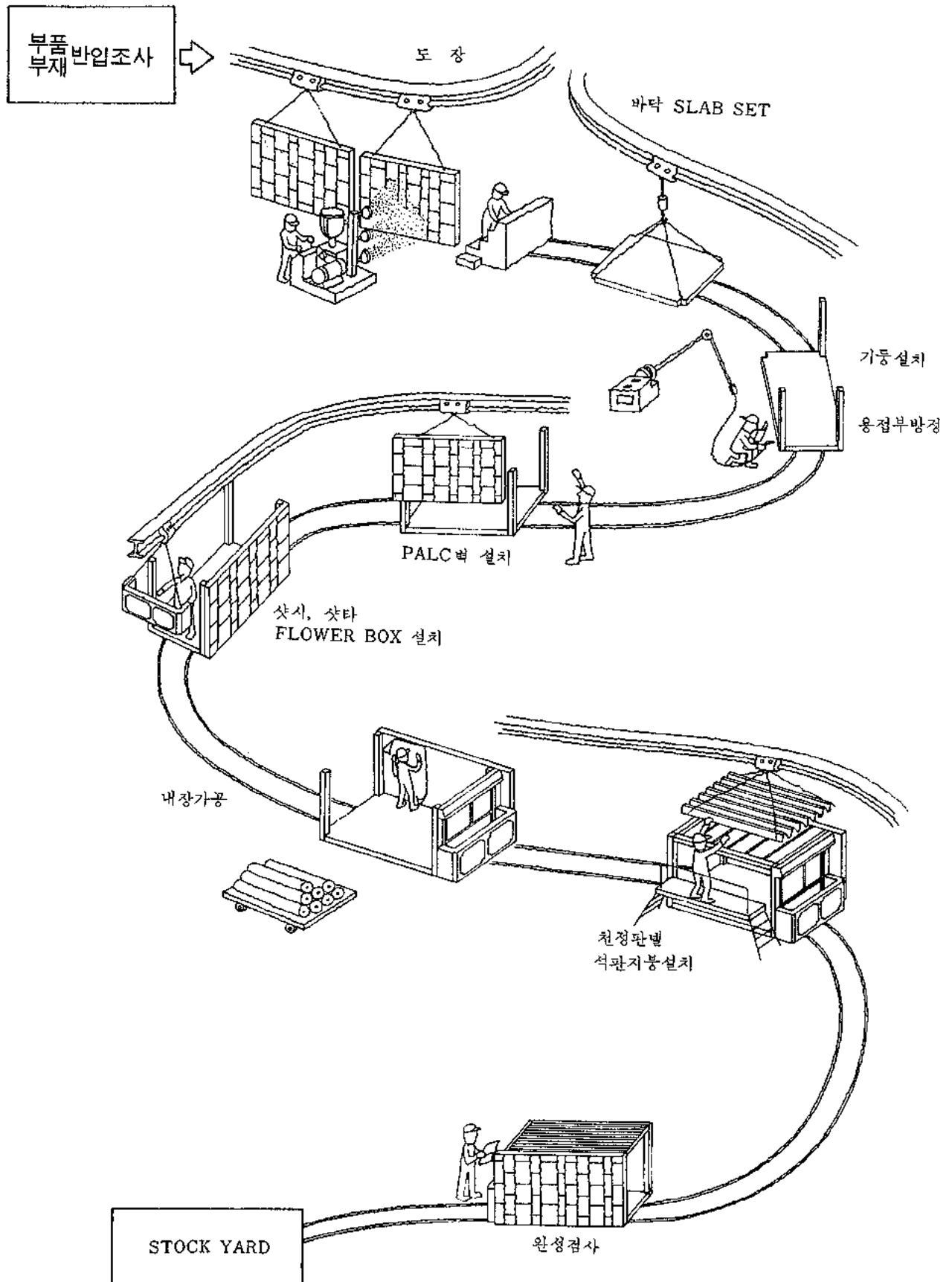


개방형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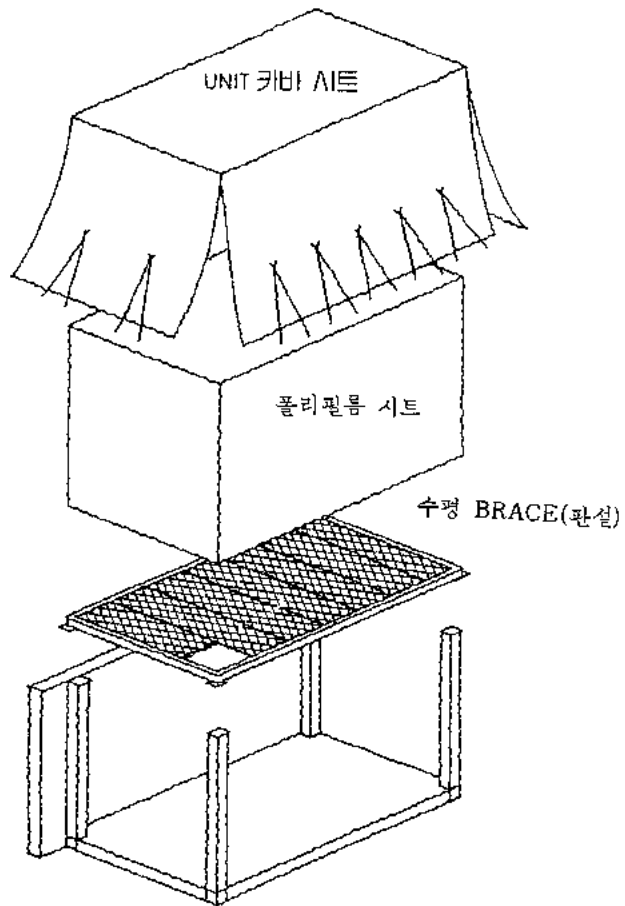


UNIT의 생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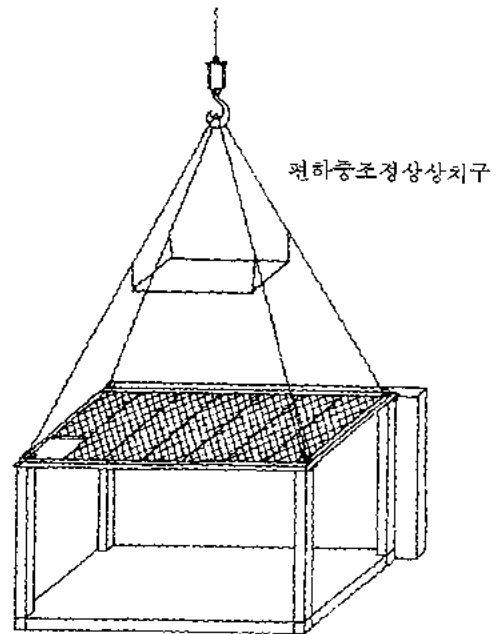


UNIT의 수송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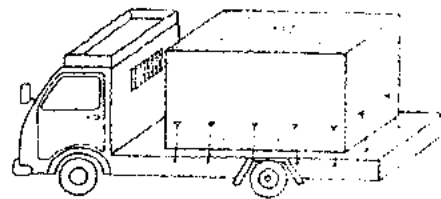
(1) 양생방법



(2) UNIT 끌어올리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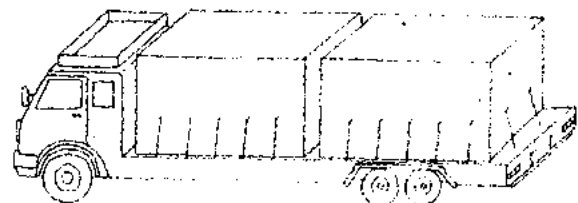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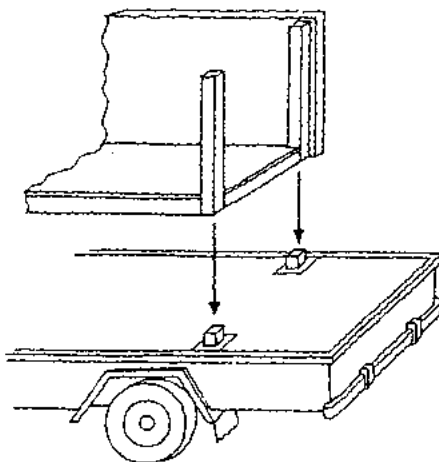


(4) 트럭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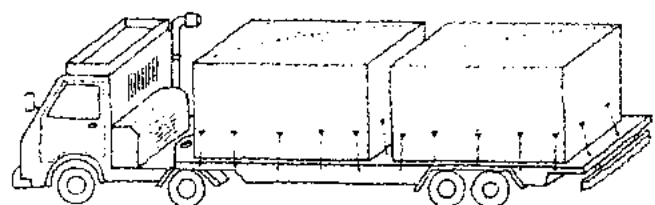


4톤 저상트럭

(3) 트럭 하대 고정방식



11톤 저상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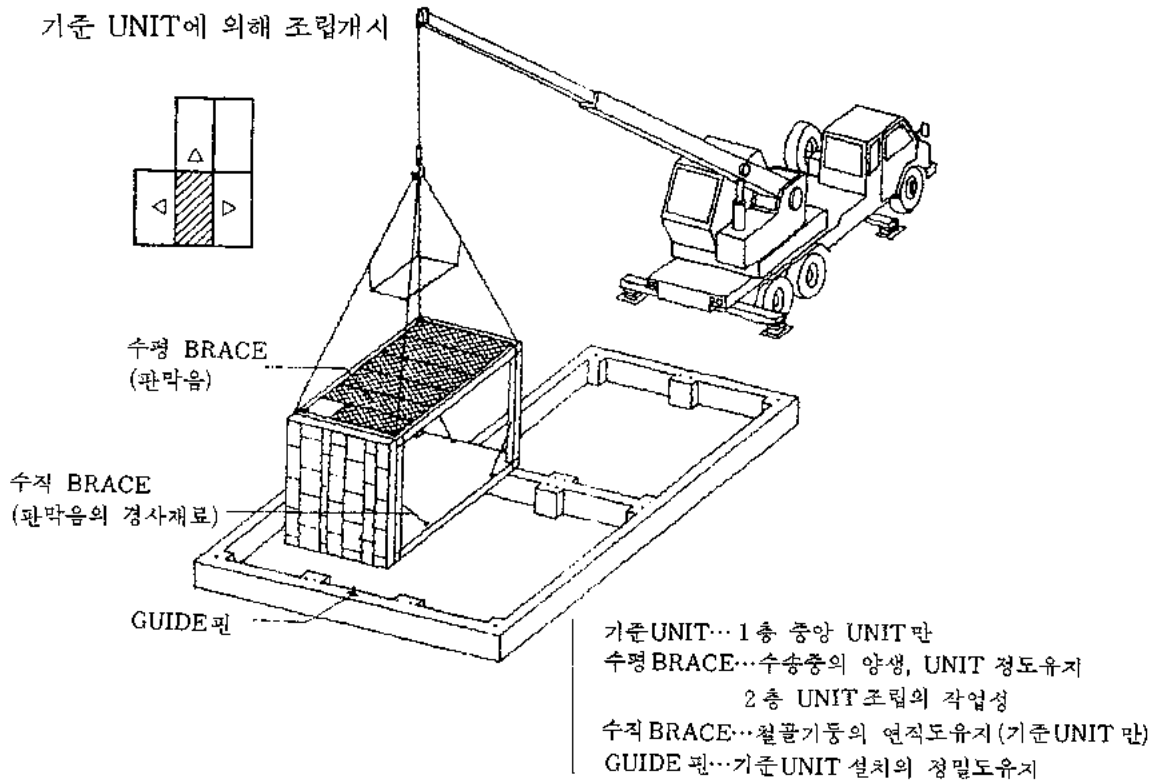


11톤 저상 트레일러

조립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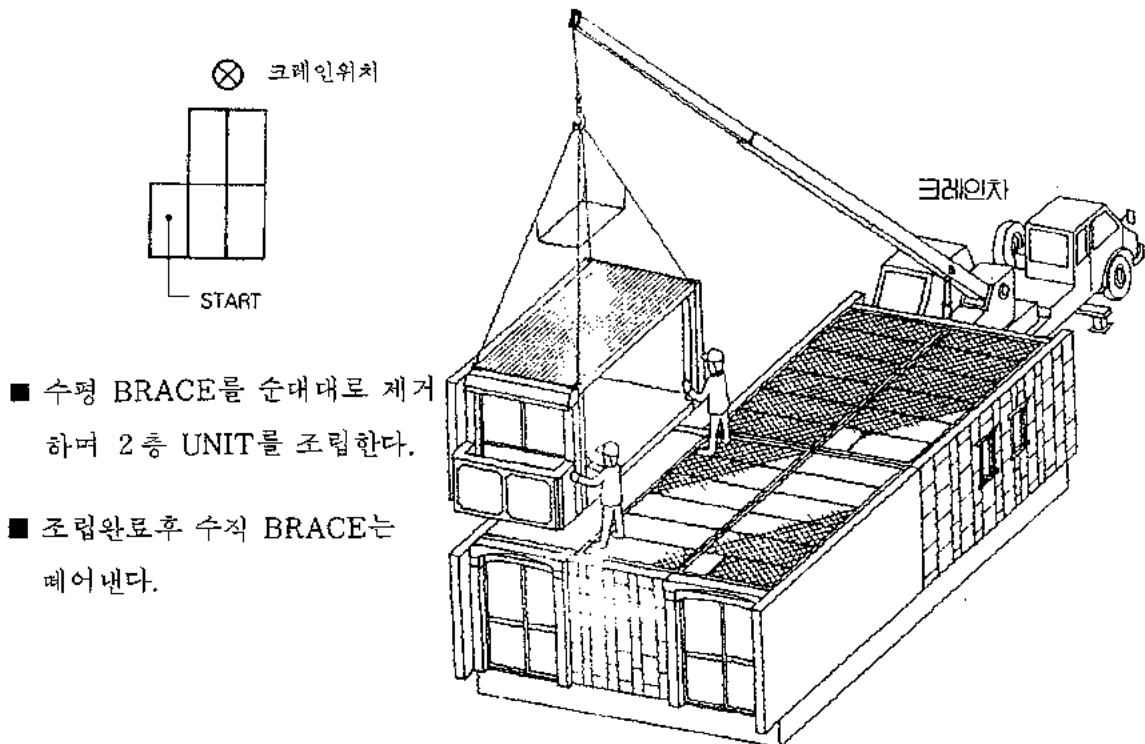
■ 1 층조립

기준 UNIT에 의해 조립개시



■ 2 층조립

크레인 설치위치에 따라 조립순서가 다름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크레인보다 먼 위치의 UNIT에 의해 조립개시





多世帯주택 各種 建築基準緩和 建築設備設計 3 만㎡ 서 2 만㎡ 로

건설부는 건축법에서 제도화한바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할 거리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등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 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이개정안은 건축물내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설허가시에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한후 허가해주고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사설강습소를 건축할수 있도록한것 등인데 그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은 출입구로부터 도로까지 폭 3 m 이상의 통로를 확보토록 하던 것을 다세대주택(연면적 330㎡ 이하로서 2 세대 이상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은 통로의 폭을 2m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공동주택의 각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 배 이하로 하던 것을 다세대주택은 정북방간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했다.

이개정안은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3m(2 층 이하는 2 m) 이상, 처마끝까지는 2 m(2 층 이하는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것을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외벽까지는 1m 이상, 처마끝까지는 0.5 m 이상만 띄우도록 하였고 △연면적 330㎡ 이하인 주택의 옥외계단설치부분은 전폐울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주거전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3 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게 하였고 △자연 녹지지역안에서 연립주택의 경우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던것을 다세대주택은 시장·군수가 공고한 구역이 아니라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이개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천㎡ 이상의 업무시설및 병원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주도록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할 때에는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하지 않는한 이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하고 또한 종전의 위반사항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개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거지역안에서 사설강습소의 경우 예·체능계, 전자계산, 전자및 산업응용계강습소만을 건축하던 것을 연면적 300㎡ 이하로서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설강습소(대학입시 학원 제외)는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만 건축하던 것을 공해배출량이 환경보존법상의배출시설설치허가기준 배출량의 2 배이하인 인쇄·봉제·필름현상및 두부제조공장은 12m 이상 도로에 6 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업지역 안에서 공장의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더라도 공해배출량이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기준배출량의 3 배 이하인 인쇄·봉제·필름현상및 두부제조공장은 건축할 수 있게 했으며 △점포와 대중음식점및 다방 등이 복합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될 경우 점포의 면적에 관계 없이 판매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 등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점포의 면적이 200㎡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될 경우에만 판매시설로 분류할수 있도록 했으며 연면적 3 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 2 만㎡ 이상

인 건축물을 해당분야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했다.

靑少年시설 29개 年内증설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400家口진설

정부는 노신영 국무총리서리주재로 금년도 제 1 차 청소년대책회의를 열고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이용 시설 확충 장기계획을 年内에 수립, 우선 올해 안에 117억 9 천만원을 들여 자연학습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센터 등 각종 청소년시설 29개를 증설하고 건축관계법을 개정하여 대단위 아파트지역 등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의 청소년이용시설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회, 성당등 종교시설과 기업체등 민간소유청소년이용시설의 개방을 적극권장, 주민공동생활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 청소년연맹등 26개 청소년단체에 7 억 3 천800만원을 지원하고 학생의 1 인 1 단체가입을 적극권장키로 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지도자확충을 위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교원 및 공무원 등의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문화행사의 진작을 위해 공공시설을 임대사용할 때는 관람석의 일정비율을 청소년관람석으로 지정, 할인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청소년국제교류사업도 정착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군의 지원병제도를 확대 실시, 무직 또는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조기입대시켜 1 인 1 기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올해안에 400가구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무직 미진학청소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졸 이하학력자의 고용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내 훈련실시기

관에 대한 교사의 인건비지원 및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예산규모는 통합재정수지균형과 통화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전제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세입내 세출이 되도록 책정

○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크면서 국제수지에 부담이 적은 부문을 중점지원하고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경직성경비의 효율제고 등 예산절약노력은 더욱 강화

○ 예산편성기준단가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기준소요물량은 원칙적으로 85년 수준을 유지.

大型건물廢熱回收장치設置의무화

서울市 延2 천㎡以上 숙박施設 등

앞으로 건축연면적이 2천㎡(606평) 이상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해야 준공검사에 통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85에너지소비절약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계획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천㎡(606평) 이상의 수영장, 목욕탕, 숙박시설 등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시내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4층 이상 격층운행이 의무화된다.

또 연면적 60㎡ 이상의 신축아파트 연립주택엔 가구별로 온도조절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축건물의 단열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에 단열시공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때는 절전등을 반드시 부착 시공토록 했다.

釜山지역 共同주택 建設활기

許可진수 去年同期보다 倍증가

부산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 활동이 작년보다 큰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건수는 모두 8건에 1천97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삼익주택의 300세대를 포함하면 모두

9건 1천397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승인실적은 지난해 3월 말까지의 5건 564세대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 주택관계자들은 「비교적 공동주택건설활동이 부진한 년초부터 이처럼 활기를 띠는 것으로 미루어 올해의 아파트건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건설이 이처럼 예년에 없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지난 2~3년간 크게 침체했던 부동산경기가 올해 들어서 다소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현재 부산에의 사업승인이 난것은 △ 명진개발 40세대(낙민동) △ 부원주택 70세대(온천동) △ 반도주택 260세대(대연동) △ 로알주택 235세대(연지동) △ 화신주택 195세대(초량동) △ 한신주택 145세대(명륜동) △ 화인주택 70세대(거여동) △ 부광주택 74세대(구포동) 등이며 삼익주택 300세대(대연동)는 심의중이다.

올해 住宅用地 148만평 新規確保

住宅公, 앞으로 住宅型도 多樣化 방침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택지를 조기 확보하고 주택형도 다양화해나가기로 했다.

주공에 따르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기전에 주택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착안, 올해에 148만평의 택지를 신규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해에 이월된 택지와 신규확보분 등 모두 242만 5천평 가운데 52%인 126만평을 올해에 사용하고 나머지 116만 5천평은 조기 확보해 두기로 했다.

또 주공은 앞으로의 주택단지는 다양한 형의 주택으로 개발키로 하고 △ 9평 12평 15평 안팎의 12층 및 15층형 소형아파트 △ 16~22평의 20층 △ 18~25평 안팎의 25층 아파트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都市구조 機能別로 多核化

永同동 3개圈 副核都心으로

서울시는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기 위해 현재 단핵도심으로 돼있는 도시구조를 다핵도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도심구조개편방향에 따르면 올해 도시기능현대화의 기본목표를 △ 도시구조개편에 따른 도심기능의 다핵화 △ 환경정비 촉진으로 인한 도시수준의 향상 △ 기간시설확충으로 도시기능의 원활화등으로 설정하고 현재 4대문안의 단핵으로 돼있는 도시구조를 기능별로 다핵화 해 4대문안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전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구조개편의 기본골격은 4대문안 현재의 도심을 주핵으로 해 도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 여의도 영등포권 △ 잠실권 △ 영등권 등 3개권은 부핵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3개부핵도심은 △ 여의도, 영등포권이 금융, 상업기능도심으로 잠실권이 체육, 유통기능도심으로 △ 영등권이 업무, 위락기능중심도심으로 발전된다.

또 △ 신촌 △ 청량리 △ 소하리 △ 개봉 △ 천호동은 구단위 생활권으로 육성, 구내에 상업, 유통, 위락중심의 기능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심부적시설을 방면별 시외곽지역으로 대폭이전키로 하고 우선 동마장의 시외버스터미널을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망우리지역과 구의지역으로 분리배치하며 용산청과물시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또 공산품판매상을 업종별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 △ 가전제품은 87년 12월까지 용산시장으로 △ 철제상품은 금년 10월까지 구로구시흥동으로 △ 기계공구상은 86년 6월까지 영등포당산동으로 각각 집단이전시킬 계획이다.

내시간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제11,674호

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3월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7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1. 계약금액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77조제2항제3호중 “2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차공사”를 “제1차공사”로 “제101조제3항”을 “제101조제4항”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약금액이 300만원(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

제85조의3제1항중 “20일”을 “14일”로 한다.

제8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1항본문중 “재무부장관이 은행의 저축예금 금리를 참작하여 결정 한 을”을 “은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를 “예산사정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로 한다.

제95조의3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토목공사에 있어서는”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에 있어서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의외 공사”로 한다.

③ 제1항의 현장설명에 있어서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에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종별 목적물수량이 표시된 내역서 및 동 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를 배부하되, 공사에정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경쟁입찰에 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1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질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제7호중 “공업규격 표시물품”을 “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4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6호중 “원호처장이 지정하는 원호대상자 집단복지공장”을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 집단복지공장”으로 한다.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공업규격 표시 물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에 대한 공업규격표시허가 또는 등급사정을 받은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 부터 매입할 때

제117조단서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133조중 “3월20일”을 “2월말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081호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1항단서중 “예정가격이 2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예정가격이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계약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이유

입찰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1억원 미만의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서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물품구입 및 공사 등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조정하며, 예정가격 20억원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1985년 3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평균가격낙찰제를 과당경쟁에 의한 공사의 불실화를 막기 위하여 그 예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 등에 대하여는 1986년 3월31일까지 그 적용을 연장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공사의 준공검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조정함으로써 검사의 신속을 기하도록 함(영 제85조의 3).

나. 공사 등의 대가지급기간을 종전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20일이내로 단축·조정하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기간은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함과 동시에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 100분의 10을 유보하고 지급하던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1	계약서 작성생략					
	○공사 또는 제조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계약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외국에서 체결하는 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②	계약보증금의 해제					
	○공사 또는 제조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계약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③	검사조서 작성의 생략					
	○공사 또는 제조계약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물품구입계약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④	수의계약대상					
	○공사 또는 제조계약	예정가격 300만원 이하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		
	○물품구입계약	예정가격 200만원 이하		예정가격 500만원 이하		
⑤	1인의 전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		계약금액 300만원 이하		

금부담을 덜어줌(영 제86조제 1항 및 제 3항).

다. 정부가 계약상대방에게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지급지연배상금에 적용될 지연이자율을 종전 년 7.6%에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연체이자율(년19%)로 상향 조정함(영 제87조제 1항).

라. 토목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서와 입찰금액의 산출내역서를 동시에 제출하던 것을 예정가격 1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의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99조의 2 제 3항 내지 제 5항).

마. 정부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종합낙찰제의 적용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을 종전에는 당해 물품의 주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재재무부장관이 일괄하여 지정·고시하

도록 함(영 제101조제 2항).

바. 물품구입 및 공사 등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등 각종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함으로서 소규모계약의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76조, 제77조제 2항, 제 84조, 제112조제 1항 및 제117조).

사. 정부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자의 과당경쟁에 의한 입찰로 야기될 수 있는 공사의 불실화를 막기 위하여 예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1985년 3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평균가격낙찰제(예정가격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입찰한자의 입찰금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평균치의 아래로 가장 가깝게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를 예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정부공사 또는 정부공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1986년 3월31일까지 그 적용을 1년간 연장하도록 함(대통령령 제11,081호 부칙 제 1항단서개정).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특례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제11,675호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제 2 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제 6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중앙설계 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 7조제 5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한 자가 5인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서에 관한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조제 5 항 단서중 “예정가격의 100분의 75 미만으로서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경우에,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를 “예정가격의 100분의 75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 당해공사가 적절히 이행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입찰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입찰함으로써”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1985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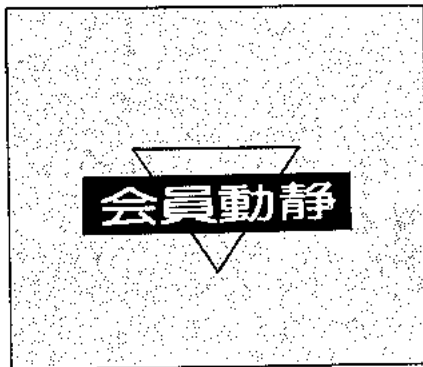
대형공사계약제도의 입찰절차를 일부 개선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한 자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서의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입찰하는 경우, 입찰서와 함께 설계서 및 시공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인 설계·시공일괄

입찰은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입찰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기본설계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5인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설계서에 대한 심의없이 실시설계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절차를 간소화함(영 제 7 조제 5 항).

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5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하여는 덤핑입찰로 인한 정부공사의 불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사전에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부적당한 자를 배제시키는 저가심사제가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하여 그 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그 요건을 보완함(영 제 8 조제 5 항 단서).



변경 □서울지부=△오정수회원 / 아람건축연구소 / 종로구안국동175-87 / 733-0906

△김기석회원 / 아람건축연구소 / 종로구안국동175-87 / 733-0907

△유충규회원 / 뉴서울건축 / 중구만리동 2 가226-1 / 392-1801

△김성탁회원 / 한국건축설계연구소 / 용산구한남동794-8 / 792-0773

△방규상회원 / 세진건축 / 중구산당동267-40 / 252-2828

△홍순구회원 / 석진건축설계사무소 / 강남구삼성동107-9 / 545-2325

△조승제회원 / 건축사사무소연회건축 / 서대문구연희동169-16 / 332-0484

△노영진·이천원회원 / 건축연구소 자유공간 / 종로구사직동36-1 / 724-0874

△강순일회원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718-13 / 568-7423

△김춘웅·오원근회원 /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역삼동 718-13 / 562-9835

△한광희회원 / 가산건축사사무소 / 동대문구신설동81-30 / 94-5728

△지영국회원 / 주·삼안건설기술공사 / 강남구논현동91-3 / 541-2121

△백승욱회원 / 백강건축연구소 / 종로구관수동20 / 265-4606

△정구근회원 / 삼예건축 / 강남구삼성동57-1 / 543-1031

△이봉로회원 / 대륙건축설계사무소 / 관악구봉천 4 동1590-7 / 877-3166

□부산지부=△이인수회원 / 목전종합건축사사무소 / 동구초량동1162-9 / 463-7470

△송유덕회원 / 송유덕건축사사무소 / 동구초량 5 동1156-6 / 463-8042

△배종원회원 / 배종원건축사사무소 / 중구남포동 1 가34 / 22-8090

△이건영회원 / 건향건축사사무소 / 중구남포동 1 가34 / 22-8812

△이동배회원 / 동서건축설계사무소 / 동구초량 5 동1156-6 / 463-9845

△장호성회원 / 삼아장호성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2-46 / 89-4067

△김성곤회원 / 삼아김성곤건축사사무소 / 부산진구부전동402-46 / 88-8193

□경기지부=△김중권회원 / 김중권건축사사무소 / 파주군파주읍아동리338 / 2-2410

△윤전회원 / 윤전건축사사무소 / 남양주군구리읍수택리424-1 / 2-8209

△김동호·최의준회원 / 김동호·최의준건축사사무소 / 시흥군군자면원곡리761-11 / 6-7000, 6-2500

△조성만회원 / 조성만건축사 / 수원시매산로 3 가

△권영근회원 / 권영근건축사사무소 / 안양시안양동493-6 / 3-3927

△홍대현회원 / 홍대현건축사사무소 / 강화군강화읍관정리 / 170-4 / 2-3810

□충북지부=△이충구회원 / 이충구건축사사무소 / 제천시청전동108-15 / 2-6869

△오선교·김성호회원 / 선합동건축사사무소 / 청주시영동50-2 / 2-4370

□제주지부=△오재영회원 / 삼주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1 동1789-2

△유정철회원 / 오란도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2 동1183-8

△백형철회원 / 삼진건축사사무소 / 제주시이도 2 동1768-27

□강원지부=△심명택회원 / 제일건축설계사무소 / 원주시학성 2 동 207-12 / 42-4130

△홍대표회원 / 연합건축설계사무소 / 강릉서임당동86-2 / 2-4196

□서울지부=△강봉진회원 / 국보건축연구소 / 종로구청진동183-1

△조병관회원 / 정안건축사사무소 / 강남구논현동80-1 / 546-5571, 5572

□인천지부=△이태홍회원 / 동인건축사사무소 / 중구사동171 / 72-8073

□전남지부=△김상석회원 / 공간건축연구소 / 광주시동구대의동75-1

△강영희회원 / 환경종합설계공사 / 광주시동구대의동75-1

□경기지부=△옥휘철회원 / 옥휘철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외정부동 186-16 / 42-6515

△박영목회원 / 박영목건축사사무소 / 가평군가평읍읍내리496-1 / 2-2279

△김평선회원 / 김평선건축사사무소 / 광명시철산동464-7 / 612-2261

△박상옥회원 / 박상옥건축사사무소 / 의정부시외정부동198-22 / 2-6594

□인천지부=△고종욱회원 / 신도건축설계사무소 / 인천남구도화359-2 / 2. 16

폐업 □서울지부=△전우대 회원 / 대건건축연구소 / 강남구 삼성동 1 번지 / 85. 3. 11

△오용부회원 / 주·석우건축 / 강남구방배동795-18 / 85. 3. 12

△이효식회원 / 대건남일합동건축연구소 / 강남구도곡동543-2 / 84. 3. 11

△김옥빈회원 / 일양건축연구소 / 종로구운니동98-78 / 85. 3. 19

△오상주회원 / 도양건축연구소 / 영등포구여의도동44-21 / 85. 3. 28

△김일웅회원 / 환경구름훈풍건축연

구소 / 중구장충동 2 가200-69 / 85. 3. 29

□경기지부=△김동숙회원 / 화성건축연구소 / 부천시심곡동731-15 / 85. 3. 20

□제주지부=△박광진회원 / 수복건축설계사 / 서귀포시서귀동291-37 / 85. 2. 19

전입 □서울지부=△윤인묵회원 / 가야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신길동97-40 / 846-5863 / 85. 3. 26

△충남

□경기지부=△강은영회원 / 강은영건축사사무소 / 성남시태평동3309-310 / 43-3394 / 85. 2. 25 / 서울

△서남식회원 / 서남식건축사사무소 / 송탄시신장 2 동324-23 / 62-3252 / 85. 3. 12 / 서울

□경북지부=△주홍식회원 / 한국건축사사무소 / 경북포항시죽도 2 동66-9 / 74-7373 / 85. 3. 8 / 대구

△전재기회원 / 한국건축사사무소 / 경북포항시죽도 2 동66-9 / 74-7373 / 85. 3. 8 / 대구

전출 □대구지부=△주홍식회원 / 예일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시서구비산동333-2 / 85. 3. 7

△전재기회원 / 범화건축설계사무소 / 대구중구대봉동655-135 / 85. 3. 7 / 경북

□충북지부=△김용성회원 / 금성건축설계사무소 / 단양군단양읍하방리218-2 / 85. 3. 15 / 경북

재입 □서울지부=△박학재 회원 / 타운건축설계사무소 / 구로구구로동 / 862-8231

법세 □서울지부=△남두철회원 / 부친별세 / 자택 / 85. 2. 1

△편기봉회원 / 부친별세 / 서암복음

병원 / 85. 2. 16

□대구지부=△김상태회원 / 부친별세

□충남지부=△권백순회원 / 부친별세 / 자택 / 85. 2. 6

□충북지부=△김현식회원 / 문화건축설계사무소 / 지병 / 85. 3. 6

회갑 □대구지부=△김전돌회원 / 모친회갑

□경기지부=△강석준회원 / 자택 / 85. 3. 23

결혼 □서울지부=△박면수 회원 / 장남결혼 / 목화에식장 / 85. 2. 5. 13:00

△김정학회원 / 차녀결혼 / 영빈예식장 / 85. 2. 6. 12:00

△한영수회원 / 장녀결혼 / 가든예식장 / 85. 2. 7. 12:30

□부산지부=△김만석회원 / 영애 / 삼일교회 / 85. 2. 2. 14:00

△구중섭회원 / 영식 / 축복예식장 / 85. 2. 8. 12:00

□대구지부=△조기보회원 / 차녀결혼

□인천지부=△채용운회원 / 장남 / 귀빈예식장 / 85. 2. 24. 13:00

□경기지부=△홍재혁회원 / 삼남 / 오산시대예식장 / 85. 2. 3

△강석준회원 / 차녀 / 뉴코아예식장 / 85. 2. 2

△안의모회원 / 장남 / 서울침례교회 / 85. 3. 16

△서낙규회원 / 차남 / 영빈관예식장 / 85. 3. 19

△윤전회원 / 영애 / 동궁타운예식장 / 85. 3. 8

□충남지부=△오한진회원결혼 / 대전라이카예식장 / 85. 2. 10. 13:00

新刊案内

建築士 建築技師 試験對備

最新建築綜合問題解法

著 者 張 起 仁

發行處 圖書 技 文 社

定 價 6,000 圓

THE ULTIMATE IN INTERIOR & EXTERIOR COATINGS Fiber Tex-Cote® Gl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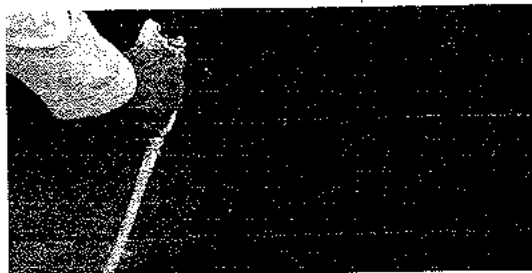
화이버 텍스코트글래스 (FIBER TEX-COTE® GLASS) 제품의 특징

- (1) 고상하고 미려한 색상을 장기간 유지한다.
- (2) 내후성 및 내구력이 뛰어나다.
- (3) 흡음, 단열 및 방수효과가 우수하다.
- (4) 구조력과 성형력이 강력하다.
- (5) 도막 자체가 통기성이 있으므로 결로현상이 방지된다.
- (6) 내산, 내알칼리성이 우수하다.
- (7) 완전한 내화성으로서 방화벽의 역할은 물론 무공해성 제품이다.
- (8) 곰팡이나 부패현상이 방지되므로 건축물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다.
- (9) 질감이 다양하며 무광이다.
- (10) 건조후 도막 신축성이 우수하다.
- (11) 시공절차가 간편하다.

만족합니다
흡족합니다
그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레인스토퍼 (RAINSTOPPER)의 특징

- (1) 벽면의 수분침투 방지.
- (2) 건조후에 표면이 투명하고 얼룩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보이게 함.
- (3) 시공표면의 산화, 백화 및 풍화현상을 방지.
- (4) 오물접착 및 모세관 침투현상 방지.
- (5) 페인트 도장면에 시공시 페인트의 수명을 연장.
- (6) 목재부분의 수분 침투에 의한 손상 방지.
- (7) 시공에 기후조건이 없으며 산·알칼리 및 해수(海水)에 강하므로 결국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줌.
- (8) 표면내부에 침투하므로 표면에 피막이 형성되지 않음.
- (9) 내후성이 우수하며 자외선에 강함.



株式会社 韓國 텍스코트

(美国 T. C. A. 社 技術提携)

事務所: 서울特別市永登浦区汝矣島洞13-31

(韓國機械工業振興會館5層)

電話: 783-8141~3

私書函: 汝矣島 P. O. BOX 302

주요 생산제품 안내

● 텍스-코트 600®

강한 접착력과 유연성을 지닌 속건성 수성제품. 합판이나 시멘트판 및 패널시스템용으로 사용.

● 레인스토퍼™ 스테인

페인트 도장과 다른, 위의 레인스토퍼-크리어 제품에 침투성 색이 첨가된 제품.

석공(MASONRY), 콘크리트, 시멘트블럭, 건축콘크리트, 벽돌 시멘트스타코.

● 텍스 타이트

석공표면, 합판(WOOD), 수영장(P-POOL), 콘크리트 블럭, 지하실 내벽용 강력방수액

● TCA CONCRETE FLOOR STAIN

FLOOR, WALKWAYS, PATIO, DECK 등 내마모성 침투성 바닥제.

● BLACK TOPPER —

아스팔트 주차장용 상도코팅제